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金 曾 漢

이것은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調查研究室에서 國家再建最高會議 法制司法委員會의 委囑에 依히여 調查研究한 것을 整理한 것이며, 同委員會의 諒解를 얻어 本誌에 掲載하는 것이다.

第1章 序 說

一. 調查目的

우리 나라 사람들의 意識 속에 家族制度에 대한 觀念이 어느 程度로 維持되고 있으며, 實際의 社會構造에 있어서 家族制度의 모습이 어느 程度로 維持되고 있는나를 把握함에 있다.

무릇 우리 나라의 社會構造나 社會意識에 있어서는 家族制度나 家族意識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크며, 따라서 政治·法律·經濟에 關한 諸問題가 家族制度 乃至 家族意識에 關한 正確한 實態把握을 要請하는 程度가 높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나라에서 아직 이에 關한 調查研究가 行하여진것이 殆無한 實情에 있으며, 이번의 調查研究는——적어도 比較의 大規模로 많은 人員이 動員된 調査로는——最初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二. 調查質疑書 作成

調查質疑書는 行政大學院 調查研究室長 金海東助教授와 慶熙大學校法科大學 親族相續法擔當 金疇洙教授가 草案을 作成한 後, 서울大學校法科大學 鄭光鉉教授, 前中央大學校 卓熙俊教授 및 本人과 함께 數회에 걸쳐 再檢討하여 假質疑書를 만들고, 豫備調査의 結果에 依하여 이를 修正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그 質疑書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出生地

1 調查地(面 또는 市)

2 道內

3 道外(以南)

4 道外(以北)

5 其他

(2) 本籍地(戶籍이 있는 곳, 假戶籍包含)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 1 調査地(面 또는 市)
 - 2 道內
 - 3 道外(以南)
 - 4 道外(以北)
 - 5 其他
- (3) 戶主와의 關係
- 1 戶主
 - 2 戶主의 妻
 - 3 戶主의 長男
 - 4 其他
- (4) 戶籍簿上의 家族數 ()名
- (5) 同居家族數(食母 其他 傭人 除外)
1. 戶籍簿에 記載되어있는 同居家族數 ()名
 2. 戶籍簿에 記載되어 있지않은 其他 同居家族數 ()名
 3. 戶籍簿에 記載되어 있으나 同居하지 않는 家族數 ()名
그 事由 : _____
- (6) 언제 戶主가 되었습니까?
(戶主에게만)
本人이 ()歲때
- (7) 어떤 事由로 戶主가 되었습니까?
(戶主에게만)
- 1 前戶主가 死亡해서
 - 2 分家해서
 - 3 假戶籍登錄
 - 4 其他
- (8) 戶主가 되었던 當時의 生活事情은 어떠하였습니까?
- 1 自立할수 있었다.
 - 2 自立할수 없었다.
 - 3 其他
- (9) 戶主相續者는 만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마땅히 있어야한다.
(子息이 없으면 養子라도 해야 한다)

資 料

- 2 있는 것이 좋지만 없으면 할수 없다.
3 있을 必要없다.
4 其他
- (10) 家族을 주로 누가 扶養하고 있습니까?
1 戶主
2 長男
3 戶主의 妻
4 其他家族
- (11) 扶養範圍는
1 家族全部 (戶籍上의)
2 家族一部
3 其他
- (12) 戶主가 全家族 (戶籍簿에 記載된 全家族)을 반드시 扶養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4)로}
3 其他 {(14)로}
- (13) {(12)의 1에 對答한 경우}
戶主가 生活能力이 없을 때에는 原則的으로 家族을 누가 扶養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長男
2 戶主의 夫人
3 長男, 戶主의 夫人 以外の 家族
4 其他
- (14) 戶主는 家族 또는 一家 親戚中(戶籍簿에 記載되어 있거나 없거나 間에) 生活能力이 없는 者가 있을 때 어느 範圍까지 扶養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直系家族
2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3 同一 戶籍內에 있는 家族만
4 三寸까지
5 四寸까지
6 五寸까지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7 6寸~ 8寸까지

8 9寸~10寸까지

9 그 以上

10 其他 _____

(15) 貴下의 家族中 事實上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면서 分家申告를 하지 않은 家族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16) 있다면 그 理由는?

1 戶主가 生存하여 있기 때문에

2 別로 그럴 必要가 없어서

3 귀찮아서

4 미처 생각지 못해서

5 몰라서

6 其他

(17) 貴下의 家族中 父親이 生存하여 계신데 分家한 家族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9)}

3 모르겠다. {(19)로}

(18) 있다면 그 理由는? {(17)의 1에 對答한 사람만}

1 官廳의 諸般 節次上 其他 그便이 便利해서

2 事實上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

3 其他 _____

(19) 祭祀는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나다. {(22)로}

3 아무래도 좋다.

4 모르겠다. {(22)로}

(20) {(19)의 1이나 3에 對答한 경우에만}

祭祀는 반드시 宗孫이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2 아니다.
- 3 其他
- (21) {(19)의 1이나 3에 對答한 경우에만}
- 祭祀는 어떻게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生活範圍內에서 可及的이면 盛大하게 차려야 한다.
- 2 簡單하게 차리는 것이 좋다.
- 3 其他
- (22) 祭祀때에는 一家 親戚中 몇寸까지는 꼭 參席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直系家族
- 2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 3 同一 戶籍內에 있는 家族은 全部
- 4 三寸까지
- 5 四寸까지
- 6 五寸까지
- 7 六寸~八寸까지
- 8 九寸~十寸까지
- 9 그 以上
- 10 其他 _____
- (23) 초상때 貴宅에서는 몇寸까지 喪服이나 頭巾을 着用하십니까?
- 1 直系家族
- 2 直系家族과 兄弟姊妹
- 3 同一 戶籍內에 있는 家族은 全部
- 4 三寸까지
- 5 四寸까지
- 6 五寸까지
- 7 六寸~ 八寸까지
- 8 九寸~十寸까지
- 9 그 以上
- 10 其他
- (24) 祭祀는 몇代祖까지나 지내야 되겠습니까?
- 1 父母代
- 2 祖父母代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3 曾祖父母代

4 高祖父母代

5 五代

6 그 以上

7 其他

(25) 祖上中에 벼슬을 한 분이나 有名한 분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26) 解放後부터 現在까지 一家 親戚中에서 벼슬을 하신 분이나 有名한 분이 있습니까?

(※ 該當欄에 全部 表示할것)

1 없다.

2 同一 戶籍簿內의 家族

3 三寸

4 四寸

5 五寸

6 6寸~8寸

7 9寸~10寸

8 그 以上

9 모른다.

10 其他

(27) 現在 貴宅에 族譜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8) 家族中에 윗어른이 한분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各自가 일을 所信대로 處理하기 爲해서도 없는 것이 좋다.

2 있는 것이 좋다.

3 아무래도 좋다.

4 모르겠다.

(29) 一家 親戚 全體中에서는 어떻습니까?

1 各自가 일을 所信대로 處理하기 爲해서도 없는 것이 좋다.

2 있는 것이 좋다.

3 아무래도 좋다.

4 모르겠다.

(30) 子女들(貴下의)의 配偶者는 누가 選定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 父母 또는 親戚

2 當事者

3 父母 또는 親戚이 먼저 定하고 當事者의 同意를 얻는다.

4 當事者가 먼저 定하고 父母 또는 親戚의 同意를 얻는다.

5 아무래도 좋다.

6 其他

(31) 婚姻을 할때 반드시 家族(戶籍上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3)으로}

3 꼭 그럴 必要는 없다.

(32) {(31)의 1이나 3의 경우만}

그 範圍는?

1 父母

2 戶主

3 其他家族

(33) 지금까지 父母의 意見에 反對되는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5)로}

3 其他 {(35)로}

(34) {(33)의 1의 경우만}

어떤 경우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35) 行列(항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4 其他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36) 나이가 同輩 또는 손아래이면서 行列(항렬)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尊待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한다. {(38)로}
- 2 尊待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 3 모르겠다. {(38)로}

(37) {(36)의 2에 對答한 경우만}

尊待해야 된다면

- 1 나이의 差가 많아도 尊待해야 한다.
- 2 그 사람의 年齡에 따라서 尊待한다.
- 3 서로 尊待한다.
- 4 모르겠다.
- 5 其他

(38) 年齡 () 歲

(39) 職業 ()

(40) 性別

男

女

(41) 學 歷

- 1 無
- 2 한글解得程度
- 3 書堂(漢文解得)
- 4 國民學校 中退 및 卒業
- 5 中學校 中退 및 卒業
- 6 高等學校 中退 및 卒業
- 7 大學 中退 및 卒業
- 8 그 以上

(42) 生活程度

1 上

2 中

3 下

(43) 宗 教

1 無

資 料

- 2 佛教
- 3 基督教 (新教)
- 4 天主教
- 5 儒教
- 6 天道教
- 7 其他

三. 調查期間 및 調查地域

(1) 豫備調查

豫備調查는 1962年 6月27日부터 7月 2日 사이에 忠南 大德郡懷德面과 江原道 洪川郡瑞石面의 2個地域에서 實施하였다.

(2) 本調查

本調查는 1962年 7月 6日부터 7月12日 사이에 全國 10個地域에서 實施하였는데, 그 10個地域은 다음과 같은 方針에 따라서 選定하였다.

i) 서울 以外에 9個地域을 選定하되, 嶺南, 湖南, 中央部(嶺南과 湖南을 除外한 地域)에서 都市, 僻地 및 都市와 僻地의 中間인 地域을 各一個씩 選定한다.

ii) 調查地域의 크기는 市에 있어서는 洞, 郡部에 있어서는 面으로 한다.

이 方針에 따라서 選定된 10個地域은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鐘路區白鹿洞	慶尙北道 金陵郡農所面
京畿道 仁川市內洞	慶尙南道 釜山市中央洞
忠清南道 天安郡歡城面	全羅北道 茂朱郡雲川面
江原道 平昌郡平昌面	全羅南道 光州市大義洞
慶尙北道 靑松郡靑松面	〃 麗川郡召羅面

四. 調查對象人員

各地域에서 120名을 選定하여 面接하되, 戶主, 戶主의 妻, 戶主의 長男 및 其他家族을 各同數로 하고, 職業別, 學歷別等이 되도록 고루 섞이도록 留意하였다. 實際로 面接한 人員數는 다음과 같다.

戶主	336名
戶主의妻	265
戶主의長男	230
其他家族	265
不明	2
計	1098名

即 面接率이 91.5%이었으며, 또 報告內容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應答이 매우 적었다.

五. 調查擔當者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調査는 行政大學院教授 全員과 金疇洙教授가 擔當하였으며, 行政大學院學生 18名(卒業生 2名, 他校生 1名包含)이 補助를 하였다. 擔當教授와 補助學生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서울 全教授共同	金陵 朴東緒教授, 李在勳, 金吉助
仁川 金疇洙教授, 韓榮錫, 朴鍾貴	釜山 盧隆熙教授, 李一字, 崔乙龍
天安 崔鍾起教授, 高時天, 梁泰奎	茂朱 安海均教授, 李京鎬, 金濟允
平昌 俞 焘教授, 金元浩, 朴英熙	光州 金海東教授, 朱信淳, 文昌洙
靑松 趙錫俊教授, 朴炳孝, 韓昇洙	麗川 徐元宇教授, 李秀範, 安恭嶺

第 2 章 家族動態와 家族規模

一. 序 說

戶籍은 身分關係를 公簿에 公示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고, 이 點에 있어서 人口 動態를 事實 그대로 反映함을 目的으로 하는 住民登錄과 다르다. 그러므로 戶籍에 있어서는 戶籍의 所在地(本籍)와 實際 居住地, 戶籍上的 家族과 實際로 同居하는 世帶員이 반드시 一致함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되도록 一致하는 편이 實際로 便宜하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本籍地와 現住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戶籍謄抄本이나 身元證明을 받는데 매우 不便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戶籍上的 家族이 實際로 同居하지 않는 사람까지 包含하여 數十名에 達할 때에는, 戶籍公務員이 戶籍謄本을 作成하는데, 莫大한 勞力이 必要한 것은 勿論이지만, 實際生活에 있어서도 必要 以上으로 廣範圍의 家族이 戶主權의 統制를 받는다는 不合理가 생긴다.

本籍地의 移動, 卽 轉籍은 法律上 自由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戶籍法114條, 115條參照). 그러나 實際의 事務取扱에 있어서는 轉籍申告를 좀처럼 接受해 주지 않는 것이 現實이고, 그 結果 大部分의 사람은 現住所가 本籍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몇 代를 내려 가도록 轉籍을 함이 없이 本籍地가 固定되어 있는 것이 普通이다.

分家도 또한 法律上 自由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民法788條, 789條參照). 그러나 이것도 亦是, 實際로 獨立한 生計를 가진다고 반드시 戶籍上으로도 分家申告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現實이다.

그러면 本籍地와 現住地와의 不一致는 어느 程度이며, 戶籍上的 家族과 實際 同居世帶員의 不一致는 어느 程度이나. 前者에 關하여는, 그 面(洞)內에 戶籍이 있는 者로서 實際로 그 面(洞)內에 居住하는 者가 얼마나 되느냐?와, 그 面(洞)內에 居住하는 者로서 戶籍이 그 面(洞)內에 있는 者가 얼마나 되느냐?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기로 하고, 後者에 關하여는, 分家에 關한 問題는 뒤에 다시 考察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于先 戶籍上的 家의 크기(家族數)와 實際로 同居하는 世帶의 크기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

資 料

그리고 이 事項들에 관한 調査는 前記의 調査書에 依하여 調査員들이 直接 行한 것이 아니라 面事務所 또는 洞會事務所에 依賴해서 한 것이다. 그 結果 調査要領에 있어서 不統一한 點이 생겨서, 一部 地域은 이 報告에서 除外하기로 하였다.

二. 家族動態

(1) 戶籍과 居住地와의 差異

(a) 面(洞)內에 戶籍이 있는 者로서 그 面(洞)內에 居住하는 者

(가) 面§1, §2

	天 安	平 昌	青 松	茂 朱	麗 川	大 德	計
面中戶籍이現地に 있는者數	11,337	13,265	7,835	8,428	12,414	1,099	54,378
戶籍簿上의面內人口	29,366	25,057	13,885	13,554	17,265	9,236	108,333
比 率	38.6%	52.9%	56.4	62.2%	71.9%	11.9%	50.2%

§1 이 表의 數字는 假戶籍을 包含한 것이다.

§2 金陵郡의 分은 調査不充分으로 因하여 除外하였고, 大德郡에서 豫備調査로 把握한것을 包含시켰다.

(나) 都市§1

	서 울	仁 川	釜 山	光 州	計
洞中戶籍이現地に 있는者數	732	122	652	477	1,983
戶籍簿上의洞內人口	9,363	6,171	1,602	2,089	19,225
比 率	7.8%	2.0%	40.7%	22.8%	10.3%

§1 이 表의 數字는 假戶籍을 包含한 것이다.

(b) 面(洞) 民中 戶籍이 그 面(洞)에 있는 者

(가) 面§1, §2

	天 安	平 昌	青 松	茂 朱	麗 川	大 德	計
面中戶籍이現地に 있는者數	11,337	13,265	7,835	8,428	12,414	1,099	54,378
面內 居住 總 人 口 數	17,561	16,316	10,067	10,457	14,506	11,988	80,895
比 率	64.6%	81.3%	77.8%	80.6%	85.6%	9.2%	67.2%

§1 이 表의 數字는 假戶籍을 包含한 것이다.

§2 金陵郡의 分은 調査不充分으로 因하여 除外하였고, 大德郡에서 豫備調査로 把握한 것을 包含시켰다.

(나) 都市§1

	서 울	仁 川	釜 山	光 州	計
洞中戶籍이現地に 있는者數	732	122	652	477	1,983
面內 居住 總 人 口 數	9,805	4,283	9,305	6,063	29,456
比 率	7.5%	2.8%	7.0%	7.9%	6.7%

§1 이 表의 數字는 假戶籍을 包含한 것이다.

戶籍과 居住地의 一致率

戶籍이 있는 곳 卽 本籍地와 現居住地와의 不一致는 두 개의 要因으로 생긴다. 卽 하나는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本籍이 그 地域에 있으면서 他地域으로 轉出함으로써 이고, 다른 하나는 本籍이 他地域에 있으면서 그 地域에 轉入하여 옴으로써이다. 위의 統計中 (a)는 前者의 方向에서 본 一致率이고, (b)는 後者의 方向에서 본 一致率이다. 萬若에 轉出者도 轉入者도 없다면 (a), (b) 모두 100%로 나타날 것이니, 이러한 경우를 $\frac{100+100}{2}=100\%$ 의 一致率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要領으로 各地域의 戶籍과 居住地의 一致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天 安	平 昌	青 松	茂 朱	麗 川	大 德	서 울	仁 川	釜 山	光 州
51.6%	67.1%	67.1%	71.4%	78.8%	10.1%	7.7%	2.4%	23.9%	15.4%

이 數字에 나타난 것을 본다면 都市와 農村은 그 一致率에 큰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卽 大德郡을 除外한다면 農村에 있어서의 一致率의 平均은 67.2%이다. 이에 反하여 서울, 仁川, 釜山, 光州의 四個都市에 있어서의 平均 一致率은 12.4%이다. 一致率이 가장 높은 것은 麗川의 78.8%이고, 가장 낮은 地域은 仁川이다.

轉出率과 轉入率

위의 두 가지 數字 中, (a)面(洞)內에 戶籍이 있는 者로서 그 面(洞)內에 居住하는 者가 많다는 것은 轉出率이 적다는 것을 意味하고, (b)面(洞)民 中 戶籍이 그 面(洞)에 있는 者가 많다는 것은 轉入率이 적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轉出率, 轉入率은 各各 다음과 같이 計算할 수 있을 것이다.

$$\text{轉出率} = \frac{\text{그面(洞)에 戶籍이 있으면서 他地에 居住하는者 } \$1}{\text{戶籍簿上的 面內人口}} \times 100$$

$$\text{轉入率} = \frac{\text{面(洞)民中 戶籍이 現地에 없는者 } \$2}{\text{面內居住總人口}} \times 100$$

§ 1 이 數字는 上記表中 「戶籍簿上的 面(洞)內人口」에서 「面(洞)民中 戶籍이 現地에 있는者」를 除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2 이 數字는 上記表中 「面(洞)內居住總人口數」에서 「面(洞)民中 戶籍이 現地에 있는者數」를 除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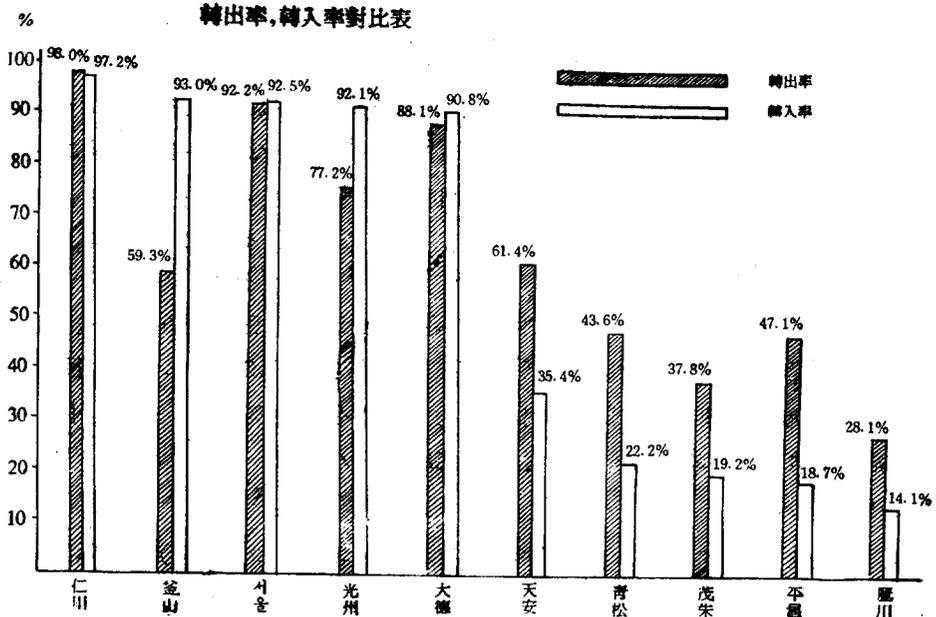
이 式에 따라서 各地域의 轉出率과 轉入率을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天 安	平 昌	青 松	茂 朱	麗 川	大 德	서 울	仁 川	釜 山	光 州
轉 出 率	61.4%	47.1%	43.6%	37.8%	28.1%	88.1%	92.2%	98.0%	59.3%	77.2%
(順 位)	(5)	(7)	(8)	(9)	(10)	(3)	(2)	(1)	(6)	(4)
轉 入 率	35.4%	18.7%	22.2%	19.2%	14.1%	90.8%	92.5%	9.72%	93.0%	92.1%
(順 位)	(6)	(9)	(7)	(8)	(10)	(5)	(3)	(1)	(2)	(4)

轉出率과 轉入率을 對比하여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地域의 順序는 轉入率이 높은 地域부터 낮은 地域으로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轉出率이나 轉入率이나 都市에서 높고 農村에서 낮음을 알 수 있다. 轉出率, 轉入率 모두 가장 큰 것은 仁川이고, 가장 적은 것은 麗川이다. 그러나 轉出率과 轉入率 이 決코 比例하는 것이 아님을 注意하여야 한다. 卽 麗川, 平昌, 茂朱, 青松, 天安에 있어

資 料



서는 轉出率이 轉入率보다 越等하게 큰데 反하여, 釜山과 光州에서는 轉入率이 轉出率보다 훨씬 더 크다 (1).

(2) 家族의 크기

家族의 크기를 戶籍上의 家의 크기와 實際로 同居하는 世帶의 크기로 區分하고, 이것을 2人以下, 3~4人, 5~6人, ……로 나누어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面\$1

地域 人數 區分	平 昌		靑 松		金 陵		茂 朱		麗 川		計		百分率	
	戶籍	世帶	戶籍	世帶	戶籍	世帶	戶籍	世帶	戶籍	世帶	戶籍	世帶	戶籍	世帶
2 以下	523	317	206	168	162	148	279	40	177	91	1,347	764	11.7	8.9
3~4	823	885	277	355	198	333	326	125	200	378	1,824	2,076	15.8	24.2
5~6	1,041	1,024	584	503	324	458	422	145	311	564	2,682	2,694	23.2	31.4
7~8	766	594	350	391	332	329	353	76	313	529	2,114	1,919	18.3	22.4
9~10	406	198	258	201	218	105	207	13	255	268	1,344	785	11.6	9.2
11~12	240	57	144	59	143	51	136	2	167	81	830	250	7.2	2.9
13~14	126	7	98	16	95	27	94	1	138	23	551	74	4.8	0.9

(1) 日政時 昭和17年(1942年)에 京城帝國大學 南鮮農村調査隊가 全北沃溝郡沃溝面魚麗里屯山部落에서 實施한 調査의 報告에 依하면 그 部落의 世帶數 72中 그 部落에 本籍을 가진 것이 50이며 따라서 22世帶(全世帶數의 30%強)가 그 部落에 本籍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部落에 本籍을 가진 戶數 61中 16戶(全戶籍數의 26%強)가 그 部落에 居住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 數字를 이 報告에서의 要領에 따라서 表現하면 轉出率 26%強, 轉入率 30%強, 一致率約 72%인 셈이다. - 有泉 亨 · 屯山에 있어서의 戶籍과 實際의 齟齬(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第13冊 574面以下)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15~16	47	1	56	1	55	8	53		89	3	300	13	2.6	0.2
17~18	19		40		44		34		55	1	192	1	1.7	
19~20	11		25		36		21		46		139		1.2	
21~22	4		11		19		10		37		81		0.7	
23~24	7		10		11		5		29		62		0.5	
25~26	1		5		8		5		11		30		0.3	
27~28					4				5		9		0.1	
29~30					3		1		11		15		0.1	
31以上			2		4				21		27		0.2	
計	4,014	3,083	2,066	1,694	1,656	1,459	1,946	402	1,865	1,938	11,547	8,576		
備考			最高34						現地に本最高 籍이 없는 48 者만을對 象으로함					

§ 1. 天安은 調査不充分으로 除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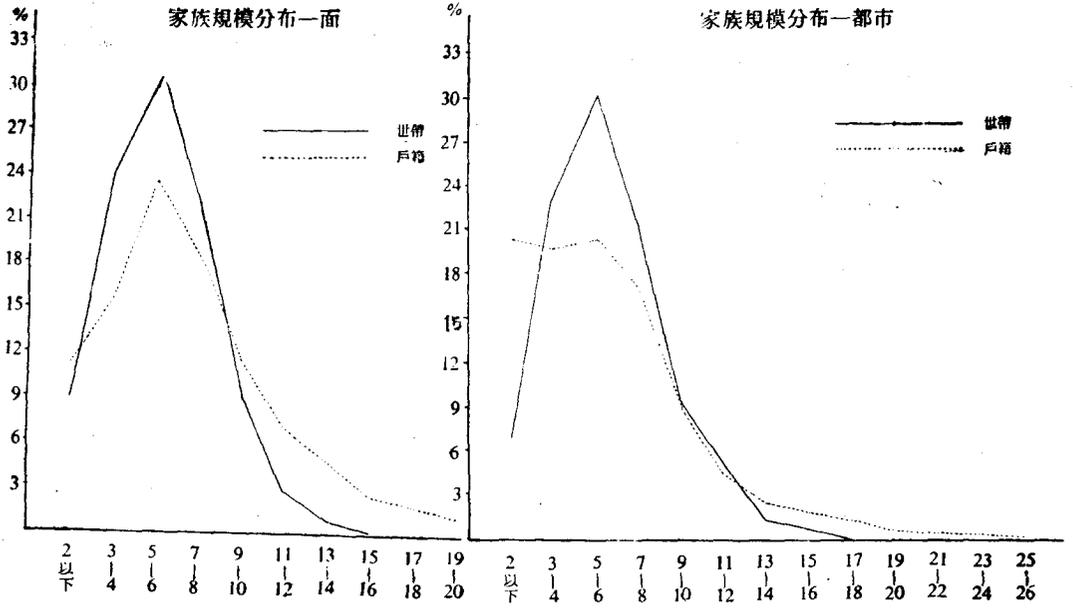
(나) 都 市

地域 數 區分	서 울		仁 川		釜 山		光 州		計		百 分 率	
	戶籍	世 帶	戶籍	世 帶	戶籍	世 帶	戶籍	世 帶	戶籍	世 帶	戶籍	世 帶
2 以 下	310	75	286	90	35	160	28	65	659	390	20.4	7.9
3~ 4	292	343	240	201	55	392	54	198	641	1,134	19.8	23.0
5~ 6	301	584	218	226	64	429	76	258	659	1,497	20.4	30.4
7~ 8	245	363	173	166	46	310	91	227	555	1,066	17.1	21.6
9~10	136	106	78	58	24	174	58	122	296	460	9.1	9.3
11~12	79	97	49	26	10	75	17	54	155	252	4.8	5.1
13~14	39	37	31	7	5	20	16	17	91	81	2.8	1.6
15~16	36	10	20	2	5	12	9	6	70	30	2.2	0.6
17~18	26	1	10		1	2	6	1	43	4	1.3	0.1
19~20	12		5		3	1	1	1	21	2	0.6	
21~22	7		2		1	1	2		12	1	0.4	
23~24	7		2		1		3		13		0.4	
25~26	3		1		1		2		7		0.2	
27~28	1		1						2			
29~30	1		1						2			
31以上							1		1			
計	1,495	1,616	1,117	776	251	1,576	363	950	3,326	4,918		
備 考									最高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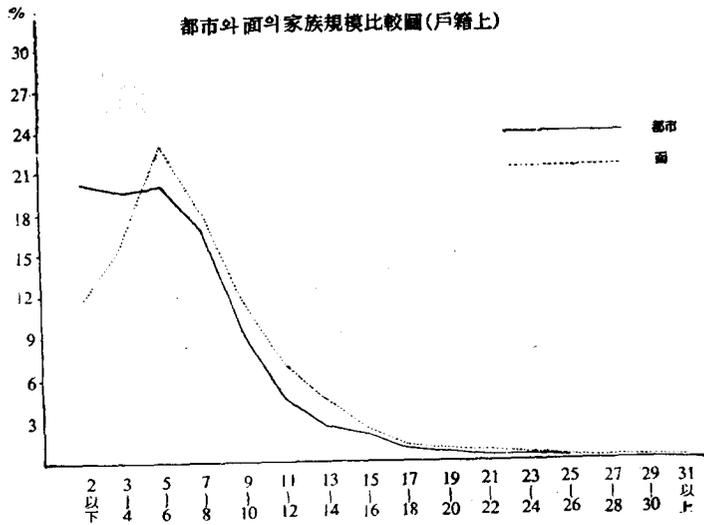
以上の 數字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家口當 人員數는, 戶籍上으로나 世帶上으로나 그 最頻數는 5~6人이다. 多人數家口는 戶籍上으로는 아직 多少 存在하지만(光州에 있어서는 最高 56名, 麗川에 있어서는 48名), 世帶의 크기가 20名을 超過하는 例는 釜山에 2, 光州에 1뿐이다

資 料



그리고 家族規模의 分布는 都市에 있어서나 農村에 있어서나 別로 큰 差異는 없다. 지금 都市와 農村의 家族規模를 比較하기 爲하여, 都市와 面의 世帶의 規模分布를 하나의 圖表에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以上에서 보는 바, 世帶 人口數의 最頻數가 5~6人이라는 것은,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에 全國을 通한 一家口當 平均人員이 5.7人(1960年)이라고 하는 것과도 符合된다. (2)

그러면 이 數字는, 古來의 大家族制度가 個人主義의 浸透에 依하여 崩壞함으로써 小規模의 家族이 普遍的으로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나. 上

揭의 韓國統計年鑑에 依하면 1955년에는 5.65人이었던 것이 1960년에는 5.7人으로 增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數字가 個人主義의 浸透로 家族規模가 점점 적어져 가는 것

(2) 經濟企劃院 第8回 韓國統計年鑑(1961年) 20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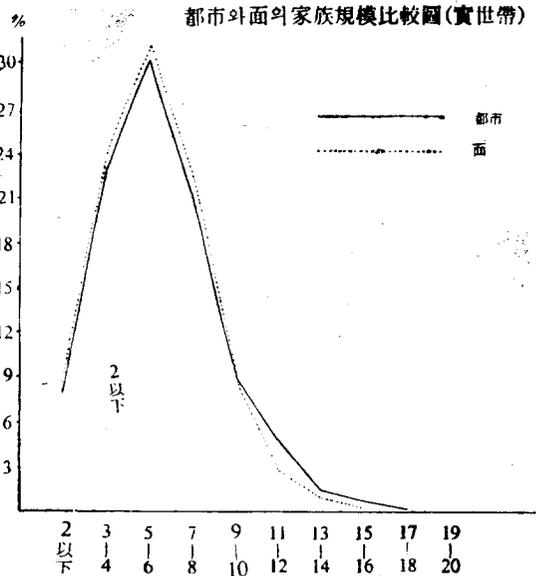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을 意味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李朝時代에는 大家族制度가 行하여졌던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其實 李朝時代에 있어서도 家族規模는 決코 크지 못하였던 事實이 報告되고 있다. 卽 前京城帝國大學 教授 四方 博氏가 肅宗庚午年(1690年)과 英祖辛酉年(1741年)의 大丘戶籍을 가지고 調查한 바에 依하면, 一戶當 平均人口는 肅宗朝에는 4.4人, 英祖朝에는 4.6人이었다고 한다.(3) 이 數字는 親族 아닌 同居者를 包含한 것이며, 더구나 他地方보다도 人口가 稠密하였을 것으로 推測되는 大丘(大邱)地方을 對象으로한 것이다. 四方 教授는 「口數가 若干 많은 戶에 있어서도 子孫3代 以上에 미치는 것은 거의 이를 볼 수 없고, 위로는 祖父母의 在戶를 드물게 볼 수 있고, 아래로는 孫에 그치는 것이 예이며, 成人하여 婚姻한 兄弟姊妹가 同住하는 따위도 그 例가 매우 적다」고 하고, 또 「血族關係에 依하여 맺어지는 大家族은 存在하지 않고, 使用人까지를 包含한 廣義의 大家族은 例外的으로 存在한다」고 말한다.(4)

또, 亦是 四方 教授가 同報告에서 引用한 바에 依하면, 日政時代에 들어온 後의 人口調査에 依하더라도 全國의인 一家口當 平均人員이 1910년에 4.7人, 1930년에 5.3人, 1935년에 5.3人이었다고 한다.(5)

그러므로 위에 나온 數字에 依하면, 1690年—1741年—1910年—1930年, 1935年—1955年—1960年의 順으로 一家口當 平均人員은 增加해 온 것으로 된다. 勿論 여기에서 大丘戶籍의 正確性에 對해서는 어느 程度 疑心을 품을 餘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數字가 數倍 또는 數分之1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면, 李朝時代에도 一家口當 平均人員이 決코 많았던 것은 아니고, 또 1960年의 5.7人이라는 數字가 減少의 結果 到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確實히 말할수 있을 것이다. 萬若에 우리 나라의 近代로부터 現代에 걸쳐 이른바 大家族制度가 存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結局 家口의 크기를 決定하는 가장 큰 要因은 經濟的인



(3) 四方博, 李朝人口에 關한 一研究(朝鮮社會法制史研究所收) 310面.

(4) 四方博, 同 311面.

(5) 四方博, 同 312面.

面에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 1960年の 統計에 一家口當 平均人員이 가장 적은 것이 濟州道의 4.41人이고 그 다음이 江原道の 5.31人이라는 事實도 어느 程度 이러한 判斷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 章 親族意識과 祖上奉祀

一. 親族意識

먼저 親族意識, 卽 내가 어느 宗族의 사람이라는 意識과 어떤 사람을 自己와 同族이니까 普通사람 보다도 親近하게 느끼는 意識이 어느 程度로 強한가를 보기 爲하여, 第25, 26, 27 問, 第22, 23問, 第14問等에 대한 答을 보기로 한다.

(1) 現在 貴宅에 族譜가 있습니까? (第27問)

大體로 말해서 族譜를 所重히 여기고 이를 保管하고 있는 사람이면 親族意識이 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물음에 대한 答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있 다	없 다	其 他	計
702	377	19	1098
63.9%	34.3%	1.8%	100%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 울	仁 川	天 安	平 昌	靑 松	金 陵	釜 山	茂 朱	光 州	麗 川
있 다 (%)	72 (67.9)	47 (40.9)	55 (60.0)	60 (53.1)	65 (65.0)	72 (68.6)	69 (59.0)	84 (74.3)	82 (76.6)	91 (80.5)
없 다 (%)	33 (31.1)	66 (57.4)	46 (42.2)	52 (46.0)	34 (34.0)	33 (31.4)	44 (37.6)	29 (25.7)	19 (17.8)	21 (18.6)
其 他 (%)	1 (1.0)	2 (1.7)	3 (2.8)	1 (0.9)	1 (1.0)	0	4 (3.4)	0	6 (5.6)	1 (0.9)
計	106	115	109	113	100	105	117	113	107	113

「있다」라는 答이 가장 적은 곳은 仁川이며, 다음으로 적은 곳이 平昌이다. 反對로 「있다」의 答이 가장 많은 곳은 麗川이고, 다음이 光州, 다음이 茂朱이다. 이것으로 보전대 族譜의 有無는 위에서 본 轉出率, 轉入率의 問題와도 반드시 一致하지 않고, 또 都市와 農村間에 顯著한 差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地方別로 湖南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祖上中에 벼슬을 한 분이나 有名한 분이 있습니까? (第25問)

우리 나라에는, 自己의 祖上中에 높은 벼슬을 하거나 其他 有名한 사람이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傾向이 強하다. 이 물음에 대하여 「없다」고 答한 가운데에는, 實際로 없는 경우와,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家族制度가 무너지고 親族意識이 弱해질 수록, 祖上에 대한 關心이 稀薄해지고, 따라서 벼슬을 하거나 有名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도 모르는 사람이 늘게 될 것이다. 위의 물음에 대한 答은 다음과 같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青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있	다	55	42	27	36	21	12	30	34	36	21	314
(%)		(51.9)	(36.5)	(24.8)	(31.9)	(21.0)	(11.4)	(25.6)	(30.1)	(33.6)	(18.6)	(28.6)
없	다	32	41	43	38	44	68	61	61	34	75	497
(%)		(30.2)	(35.7)	(39.5)	(33.6)	(44.0)	(64.8)	(52.1)	(54.0)	(31.8)	(66.4)	(45.3)
모	른	19	32	37	39	34	24	26	17	34	16	278
(%)		(17.9)	(27.8)	(33.9)	(34.5)	(34.0)	(22.9)	(22.3)	(15.1)	(31.8)	(14.2)	(25.3)
其	他			2		1	1		1	3	1	9
(%)				(1.8)		(1.0)	(0.95)		(0.8)	(2.8)	(0.8)	(0.8)

이 數字를 보전대, 「있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고, 다음이 仁川, 다음이 光州이다. 釜山을 除外하고는 大體로 都市에 「있다」는 대답이 많다. 反對로 「있다」는 대답이 가장 적은 곳은 金陵, 麗川, 青松의 順位로 되어 있다. 平昌과 茂朱에서 「있다」는 대답이 比較的 高率을 보이고 있는 點은 特異하다.

(3) 解放後부터 現在까지 一家 親戚中에서 벼슬을 하신 분이냐 有名한 분이 있습니까? (第26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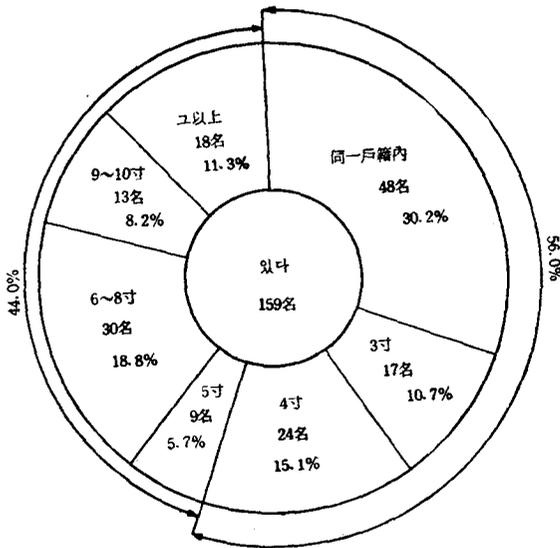
第25問과 大體로 같은 趣旨이다. 應答結果는 다음과 같다.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青松	金陵	釜山	茂朱
없	% 다	64	96	89	87	73	77	90	95
		(60.4)	(83.5)	(81.8)	(77.0)	(73.0)	(73.3)	(76.9)	(84.1)
있	同一戶籍內 (%)	8	6	1	6	3	4	3	2
		(7.5)	(5.2)	(0.9)	(5.3)	(3.0)	(3.8)	(2.7)	(1.8)
		3	0	0	1	1	5	2	2
		(2.8)			(0.9)	(1.0)	(4.8)	(1.7)	(1.8)
		4	2	0	3	1	3	4	5
(%)	(1.9)	(1.7)		(2.7)	(1.0)	(2.9)	(3.4)	(4.4)	
다	6~8 寸 (%)	2	4	1	7	0	4	4	3
		(1.9)	(3.5)	(0.9)	(6.1)		(3.8)	(3.5)	(2.6)
		2	1	1	1	1	2	1	1
(%)	(1.9)	(0.9)	(0.9)	(0.9)	(1.0)	(1.9)	(0.8)	(0.9)	
그	以上 (%)	0	1	2	1	3	2	0	2
			(0.9)	(1.8)	(0.9)	(3.0)	(1.9)		(1.8)
모	른	22	5	13	5	16	8	11	3
(%)		(20.8)	(4.3)	(11.9)	(4.4)	(16.0)	(7.6)	(9.4)	(2.6)
其	他	1	0	2	0	1	0	1	0
(%)		(0.9)		(1.8)		(1.0)		(0.8)	
		光州			麗川			計	
없	다	64			90			825	
	(%)	(59.8)			(79.5)			(75.2)	
있	同一戶籍內 (%)	8			7			48	
		(7.5)			(6.2)			(4.4)	
		3			1			17	
	(%)	(1.9)			(0.9)			(1.5)	
있	4 寸 (%)	3			1			24	
		(2.8)			(0.9)			(2.2)	

資 料

다	5 寸	2	1	9
	(%)	(1.9)	(0.9)	(0.8)
	6~8 寸	3	2	30
	(%)	(2.8)	(1.8)	(2.7)
모	9~10 寸	2	1	13
	(%)	(1.9)	(0.9)	(1.2)
其	그 以 上	5	2	18
	(%)	(4.7)	(1.8)	(1.6)
其	은 다	17	8	108
	(%)	(15.8)	(7.1)	(9.9)
其	他	1	0	6
	(%)	(0.9)		(0.5)

이 中 「있다」의 答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있다」의 應答 中, 「同一 戶籍內」에 있다는 것이 30.2%로서 壓倒的으로 많고, 同一 戶籍內와 4寸以內를 합하면 56.0%가 되며, 5寸 以上은 44.0%에 不 過하다. 그러나 元來 벼슬을 하거나 有 名한 사람 한사람을 中心으로 하여, 그 同一 戶籍內의 親族과, 3~4寸의 親族과 5寸 以上의 親族의 數를 본다면, 寸數가 멀어질 수록 그 數字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寸數의 遠近을 不問하고 本問에 該當하는 者를 모두 든다면, 寸數가 멀 수록 그 數字가 커져야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應答에 5寸 以上

의 數字가 적은 것은, 寸數가 먼 사람中에 벼슬을 하거나 有名한 사람이 있어도 그다지 크게 關心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勿論 아직도 10寸 以上의 親族中에 벼슬을 하거나 有名한 사람이 있다고 應答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大體로 말하자면 5寸 以上 좀 되면 벼슬을 하거나 有名해 지거나 이제는 親族들에게 그렇게 큰 關心을 일으키는 것이 못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應答을 職業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農 業 主 婦	商 業	비 業	公 務 員	學 生	勞 動	無 職	其 他	計	
없	337	6	101	44	42	29	10	208	48	825
(%)	(82.8)	(60.0)	(79.0)	(62.1)	(71.2)	(56.8)	(83.4)	(70.3)	(75.0)	(75.2)
同一戶籍內	9	1	4	5	4	5	0	18	2	48
	(%)	(2.2)	(10.0)	(3.1)	(7.0)	(6.8)	(9.8)	(6.1)	(3.1)	(4.4)
3 寸	7	0	0	1	0	1	1	3	4	17
(%)	(1.7)			(1.4)		(2.0)	(8.3)	(1.0)	(6.2)	(1.5)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있 다	4寸 (%)	3 (0.7)	0	3 (2.3)	1 (1.4)	3 (5.1)	0	0	13 (4.4)	1 (1.6)	24 (2.2)
	5寸 (%)	1 (0.2)	1 (10.0)	0	0	1 (1.7)	1 (2.0)	0	4 (1.4)	1 (1.6)	9 (0.8)
	6~8寸 (%)	8 (2.0)	0	4 (3.1)	1 (1.4)	3 (5.1)	2 (3.9)	0	11 (3.6)	1 (1.6)	30 (2.7)
	9~10寸 (%)	4 (1.1)	1 (10.0)	3 (2.3)	2 (2.8)	0	1 (2.0)	0	2 (0.7)	0	13 (1.2)
	그 이상 (%)	9 (2.2)	0	3 (2.3)	2 (2.8)	2 (3.3)	1 (2.0)	0	1 (0.4)	0	18 (1.6)
모 든 다 (%)	26 (6.4)	1 (10.0)	9 (7.0)	15 (21.1)	4 (6.8)	11 (21.5)	1 (8.3)	36 (12.1)	5 (7.8)	108 (9.9)	
其 他 (%)	3 (0.7)	0	1 (0.8)	0	0	0	0	0	2 (3.1)	6 (0.5)	
計		407	10	128	71	59	51	12	296	64	1098

이 밖에 第22問(祭祀 때에是一家 親戚中 몇寸까지는 꼭 參席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23問(초상 때 貴宅에서는 몇寸까지 喪服이나 頭巾을 着用하십니까), 第14問(戶主는 家族 또는一家 親戚中 生活能力이 없는 者가 있을 때 어느 範圍까지 扶養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도 親族意識의 廣狹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各各 祖上奉祀와 扶養의 部分에서 說明하기로 한다.

二. 祖上奉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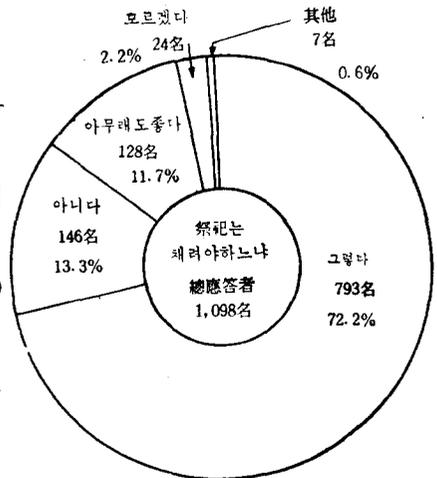
祖上奉祀는 家族制度에 있어서 가장 核心을 이루는 것이다. 다음에 祭祀는 지내야 하느냐, 몇 代祖까지 지내야 하느냐, 祭祀에는 몇 寸의 親族까지 參祀해야 하느냐 등의 물음에 대한 答을 보기로 한다.

(1) 祭祀는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19問)

(가) 이 물음에 대한 總括的 集計는 右表와 같다.

(나) 家族의 立場別

이 答을 家族의 立場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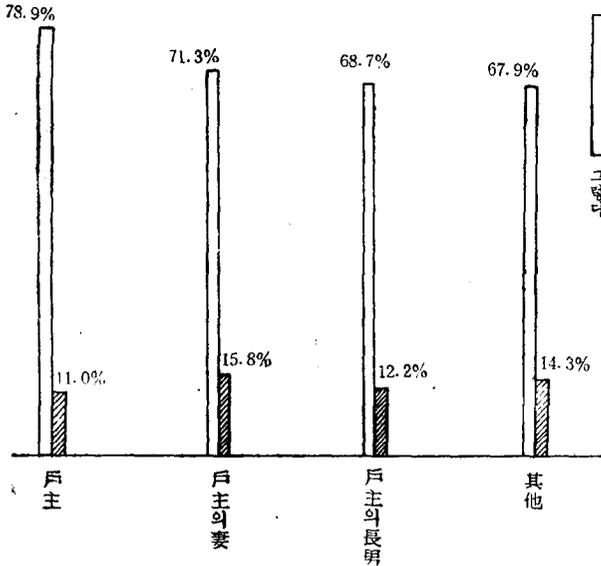


	그렇다	아니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其他	計
戶主 (%)	265 (78.9)	37 (11.0)	28 (8.3)	3 (0.9)	3 (0.9)	336
戶主의 妻 (%)	189 (71.3)	42 (15.8)	19 (7.2)	13 (4.9)	2 (0.8)	265
戶主의 長男 (%)	158 (68.7)	28 (12.2)	40 (17.3)	2 (0.9)	2 (0.9)	230
其他 (%)	180 (67.9)	38 (14.3)	41 (15.5)	6 (2.3)	0	265

資 料

不 明	1	1	0	0	0	2
(%)	(50.0)	(50.0)				
計	793	146	128	24	7	1098

이 中 「그렇다」와 「아니다」의 答을 그래프로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렇다」는 意見은 戶主에 있어서 가장 많고, 다음은 妻, 長男, 其他의 順序이다. 「아니다」의 答은 大體로는 이와 逆順이지만, 다만 妻가 15.8%로 最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特異하다. 「아무래도 좋다」는 意見은 長男에 있어서 17.3%로 가장 많고, 다음은 其他家族의 15.5%이다. 現在 祭祀의 責任을 맡고 있지아니한 사람이 祭祀 問題에 대하여 戶主나 戶主의 妻보다 關心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特히 長男이 其他家族 以上으로 「아무래도 좋다」는 意見을 表示하고 있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다) 地域別

이 答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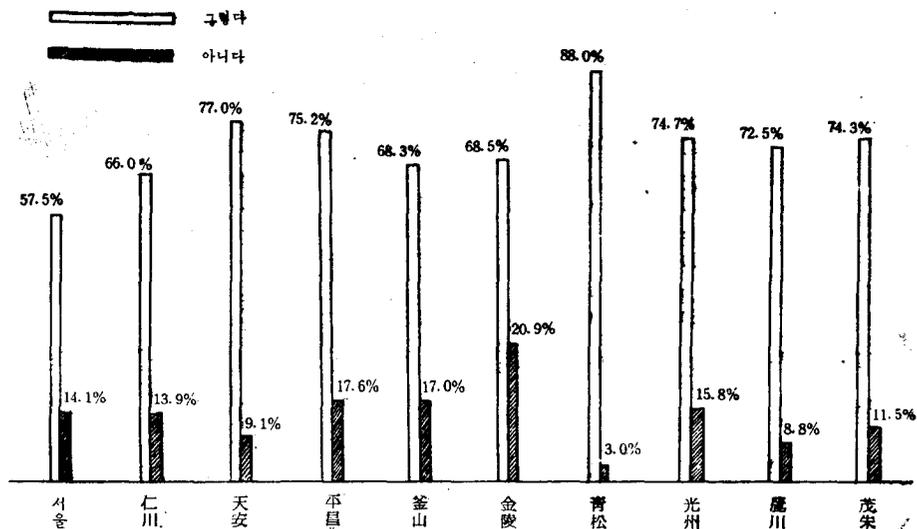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釜山	金陵	青松	光州	麗川	茂朱	計
그 렇 다	61	76	84	85	80	72	88	80	82	85	793
(%)	(57.5)	(66.0)	(77.0)	(75.2)	(68.3)	(68.5)	(88.0)	(74.7)	(72.5)	(74.3)	(72.2)
아 니 다	15	16	10	20	20	22	3	17	10	13	146
(%)	(14.1)	(13.9)	(9.1)	(17.6)	(17.0)	(20.9)	(3.0)	(15.8)	(8.8)	(11.5)	(13.2)
아 무 래 도 좋 다	26	21	13	6	15	9	3	7	18	10	128
(%)	(24.5)	(18.2)	(11.9)	(5.3)	(12.8)	(8.5)	(3.0)	(6.5)	(15.9)	(8.8)	(11.6)
모 르 겠 다	2	2	1	2	1	1	6	1	3	5	24
(%)	(1.8)	(1.7)	(0.9)	(1.7)	(0.9)	(0.9)	(6.0)	(0.9)	(2.6)	(4.4)	(2.1)
其 他	2	0	1	0	0	1	0	2	0	0	7
(%)	(1.8)		(0.9)			(0.9)		(1.8)			(0.6)
計	106	115	109	113	117	105	100	107	113	113	1098

이 答中 「그렇다」와 「아니다」를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 表의 圖表와 같다.

즉, 「그렇다」와 「아니다」의 答이 많은 편으로 부터 順序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렇 다			아 니 다	
青 松	88.0%	金 陵	20.9%	
天 安	77.0	平 昌	17.6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平昌	75.2	釜山	17.0
光州	74.7	光州	15.8
茂朱	74.3	서울	14.1
麗川	72.5	仁川	13.9
金陵	68.5	茂朱	11.5
釜山	68.3	天安	9.1
仁川	66.0	麗川	8.8
서울	57.5	靑松	3.0

이것으로 보건대, 靑松은 「그렇다」가 가장 많고 「아니다」가 가장 적으며, 天安은 「그렇다」에 있어서 第2位이고 「아니다」이 답이 적은 편으로부터 第3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그렇다」의 順位와 「아니다」의 順位가 반드시 逆順으로 符合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의 답이 都市에 있어서 顯著히 低率(光州만은 例外)이고, 그 反面에 僻地라고 볼 수 있는 靑松, 平昌, 茂朱는 모두 第5位 以內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特異하게 눈에 띄는 것은 金陵이 「그렇다」의 답이 적은 편으로부터 第4位이고, 「아니다」의 답이 第1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 學歷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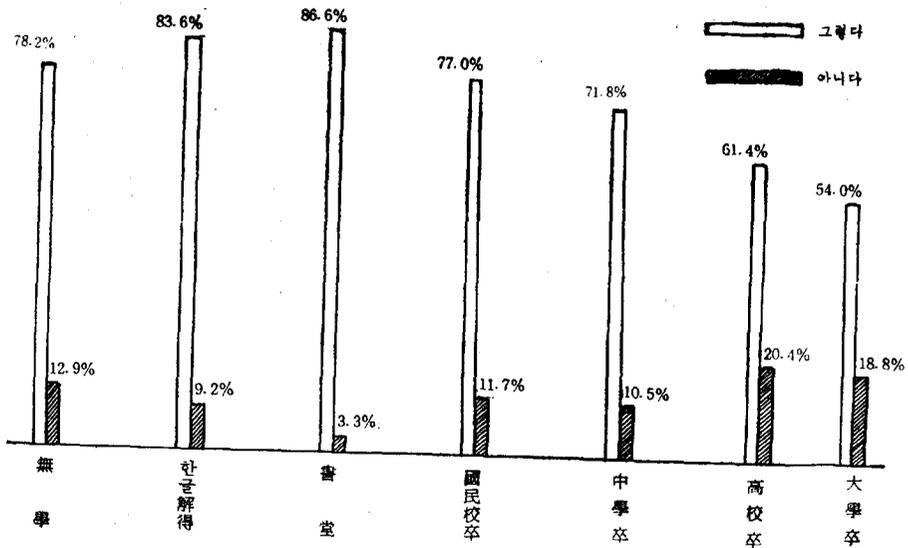
學歷別로 본 分布는 다음과 같다.

學歷	그렇다 (%)	아니다 (%)	아무래도 좋다 (%)	모르겠다 (%)	其他 (%)	計
無學	97 (78.2)	16 (12.9)	5 (4.0)	6 (4.0)	0	124
한글解得	118 (83.6)	13 (9.2)	6 (4.2)	3 (2.1)	1 (0.9)	141
書堂	26 (86.6)	1 (3.3)	3 (10.0)	0	0	30

資 料

國民校卒 (%)	255 (77.0)	39 (11.7)	26 (7.8)	8 (2.4)	3 (0.9)	331
中校卒 (%)	102 (71.8)	15 (10.5)	22 (15.4)	2 (1.4)	1 (0.7)	142
高校卒 (%)	102 (61.4)	34 (20.4)	26 (15.6)	2 (1.2)	2 (1.2)	166
大學卒 (%)	75 (54.0)	26 (18.8)	36 (26.5)	1 (0.7)	0	138
그 이 上 (%)	6 (75.0)	0	2 (25.0)	0	0	8
不 明 (%)	12 (66.6)	2 (11.1)	2 (11.1)	2 (11.1)	0	18

이 中 無學으로부터 大學卒業까지의 「그렇다」와 「아니다」의 答의 百分率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으로 보건대 祭祀를 지내야 한다는 觀念이 가장 강한 것은 書堂만 다닌 사람들이고, 學歷程度가 높아질 수록 그 觀念이 顯著하게 弱해짐을 알 수 있다.

(마) 宗 教 別

宗教別 分布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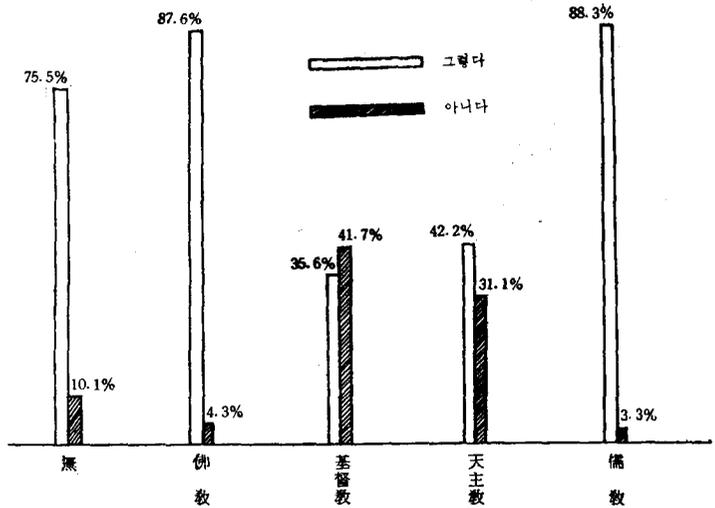
	그 렇 다	아 니 다	아 무 래 도 좋 다	모 르 겠 다	其 他	計
無 (%)	535 (75.5)	72 (10.1)	78 (11.0)	19 (2.6)	4 (0.5)	708
佛 教 (%)	121 (87.6)	6 (4.3)	10 (7.2)	1 (0.7)	0	138
基 督 教 (%)	41 (35.6)	48 (41.7)	22 (19.1)	2 (1.7)	2 (1.7)	115
天 主 教 (%)	19 (42.2)	14 (31.1)	11 (24.4)	0	1 (2.2)	45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儒	教	53	2	5	0	0	60
(%)		(88.3)	(3.3)	(8.3)			
天	道	1	0	0	0	0	1
(%)		(100)					
其	他	13	3	2	0	0	18
(%)		(72.2)	(16.6)	(11.1)			
不	明	10	1	0	2	0	13
(%)		(76.9)	(7.6)		(15.3)		

이 中 「그렇다」와 「아니다」의 答의 百分率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天道教 以下는 除外).

먼저 儒教가 宗教인다는 問題가 될 수 있는 바이지만, 그 判斷은 應答者에게 一任된 셈이다. 答으로 나타난 바를 보건대, 「그렇다」는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儒教이고, 다음이 佛敎와 無宗教의 順序이며, 이와 反對로 「그렇다」의 答이 가장 적은 것은 基督教이며, 다음으로 적은 것은 天主教이다.



다. 基督教에 있어서는 「아니다」의 答이 「그렇다」보다도 若干 더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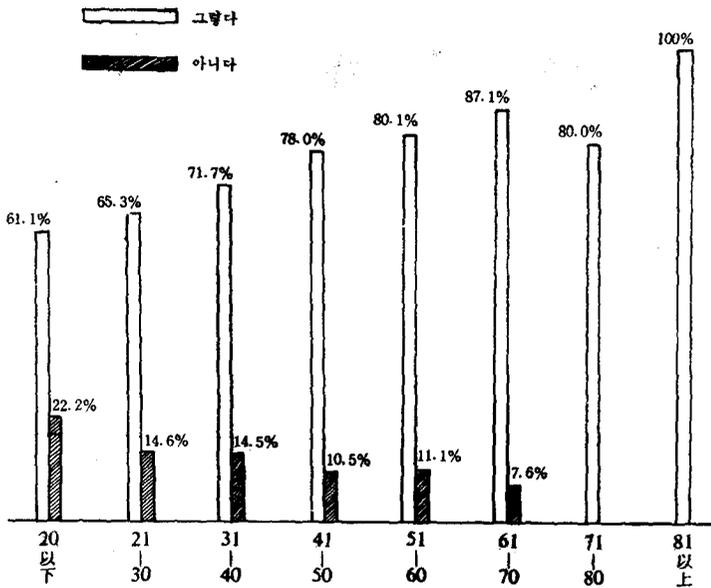
(바) 年 齡 別

年 齡 別 分布는 다음과 같다. 이번의 調查의 對象者는 18歲 以上으로 하였었으므로, 20歲 以下라 함은 18歲 以上 20歲까지를 意味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年 齡은 滿이 아니라 通稱年 齡에 依한 것이다.

	그 령 다	아 니 다	아무래도 좋 다	모 르 겠 다	其 他	計
20以下 (%)	33 (61.1)	12 (22.2)	7 (12.9)	1 (1.8)	1 (1.8)	54
21~30 (%)	206 (65.3)	46 (14.6)	55 (17.6)	7 (2.2)	1 (0.3)	315
31~40 (%)	231 (71.7)	47 (14.5)	37 (11.4)	6 (1.8)	1 (0.3)	322
41~50 (%)	178 (78.0)	24 (10.5)	17 (7.5)	7 (3.1)	2 (0.8)	228
51~70 (%)	93 (80.1)	13 (11.1)	8 (6.9)	1 (0.8)	1 (0.8)	116
61~70 (%)	34 (87.1)	3 (7.6)	2 (5.1)	0	0	39

		資 料				
71~80 (%)	8 (80.0)	0	2 (20.0)	0	0	10
81以上 (%)	3 (100)	0	0	0	0	3
不 明 (%)	6 (60.0)	1 (10.0)	0	2 (20.0)	1 (10.0)	10
其 他 (%)	1 (100)	0	0	0	0	1

「그렇다」와 「아니다」의 答의 百分率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으로 보건대 年齡이 많을 수록 「그렇다」의 答이 많고, 反對로 年齡이 적어짐에 따라 그 比率이 顯著하게 低下하는 同時에 「아니다」와 「아무래도 좋다」는 答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勿論 같은 사람도 年齡이 많아지면 생각이 어느 程度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表에 나타난 數字는 그 以上の 것, 즉 時代의 差異에서 오는 社會觀念의 差異를 相當 程度로 包含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幾十年後에는 家族制度에 대한 觀念이 어떻게 달라지리라는 것을 어느 程度 豫測케 하는 바가 있다.

(사) 職 業 別

職業別 分布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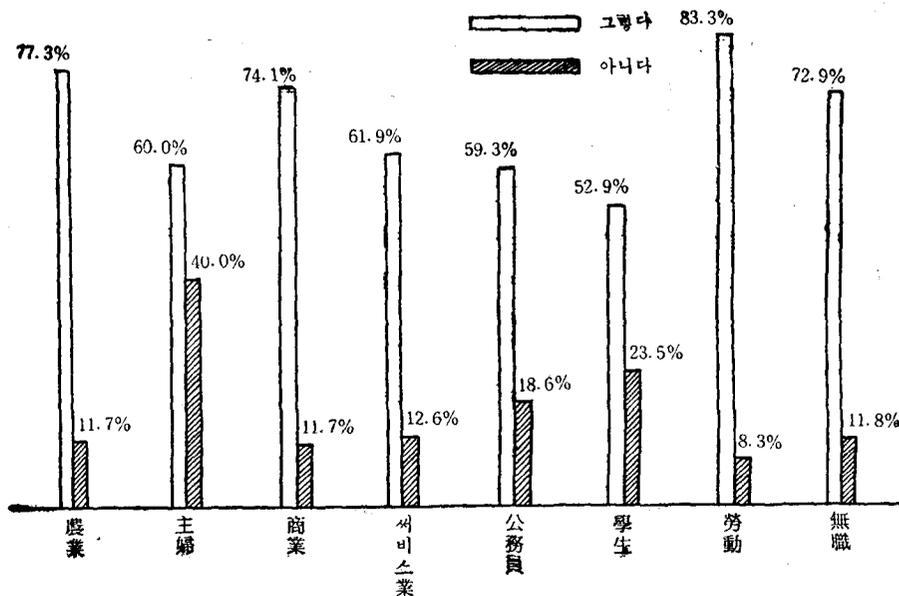
		그 렇 다	아 니 다	이 무 래 도 좋 다	모 르 겠 다	其 他	計
農 業	(%)	315 (77.3)	48 (11.7)	32 (7.8)	11 (2.7)	1 (0.2)	407
主 婦	(%)	6 (60.0)	4 (40.0)	0	0	0	10
商 業	(%)	95 (74.1)	15 (11.7)	12 (9.3)	2 (1.5)	4 (3.1)	128
비 스 業	(%)	44 (61.9)	9 (12.6)	15 (21.1)	2 (2.8)	1 (1.4)	71
公 務 員	(%)	35 (59.3)	11 (18.6)	12 (20.3)	1 (1.6)	0	59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學 生	27	13	11	1	0	51
(%)	(52.9)	(23.5)	(21.5)	(1.9)		
勞 動	10	1	1	0	6	12
(%)	(83.3)	(8.3)	(8.3)			
無 職	216	38	36	5	1	296
(%)	(72.9)	(12.8)	(12.1)	(1.7)	(0.3)	
其 他	45	8	9	2	0	64
(%)	(70.3)	(12.5)	(14.0)	(3.1)		

이것으로 보건대, 「그렇다」의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勞動, 다음이 農業, 商業의 順位로 되어 있으나, 勞動에 從事하는 調査對象者는 數가 적었으므로, 勞動이 最高라는 點은 信賴度가 높지 못하다고 하겠다. 反對로 「그렇다」의 答이 가장 적은 것은 學生이고, 다음이 公務員이다. 主婦에 있어서 「그렇다」가 매우 적고, 「아니다」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亦是 調査對象人員이 적었기 때문에, 信賴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業은 「그렇다」의 答이 公務員 다음으로 적으며, 無職에 있어서도 「그렇다」의 答이 壓倒적으로 많다. 「아니다」의 答은 大體로 「그렇다」의 答에 反比例하고 있다.

이 中에서 「그렇다」와 「아니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아) 性 別

이 答이 男女의 性別에 따라서 差異가 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	아니다	아무래도좋다	모른다	其他	計
男 (%)	474 (73.4)	74 (11.4)	88 (13.3)	5 (0.7)	4 (0.6)	645
女 (%)	313 (70.4)	71 (15.9)	40 (9.0)	17 (3.8)	3 (0.6)	444
不明 (%)	16 (66.6)	1 (11.1)	0	2 (22.2)	0	9

資 料

이것으로 보전대, 女子는 男子보다 「그렇다」의 答이 적고, 「아니다」의 答이 많다.

(자) 生活程度別

生活程度를 上, 中, 下로 나누어 生活程度別 分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生活程度가 上이나 中이나 下는 應答者 自身の 말에 依存하였음을 附言한다.

	그 령 다	아 니 다	아 무 래 도 좋 다	모 른 다	其 他	計
上 (%)	27 (72.9)	5 (13.5)	5 (13.5)	0	0	37
中 (%)	422 (69.1)	32 (15.0)	80 (13.1)	13 (2.1)	3 (0.4)	610
下 (%)	332 (76.6)	46 (10.6)	43 (9.9)	9 (2.0)	3 (0.6)	433
不 明 (%)	12 (66.6)	3 (16.6)	0	2 (11.1)	1 (5.5)	18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는, 生活程度가 낮은 편이 「그렇다」의 答이 가장 많고, 中流에 가장 적으며, 上流은 그 中間에 位置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生活程度의 區分은 應答者 自身이 한 것이어서 客觀性을 保障하기 어려우므로, 이 數字를 가지고 一般의 傾向이 어떻다는 判斷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다만 生活程度가 낮은 사람에게 있어서 오히려 祭祀의 觀念이 强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차) 戶主가 된 當時의 生活事情別

家族의 立場別로 보면, 戶主가 「그렇다」의 答이 가장 많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보았거니와, 그가 戶主가 된 當時에 自立할 수 있었느냐의 與否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령 다	아 니 다	아 무 래 도 좋 다	모 른 다	其 他	計
自 立 可 能 (%)	187 (78.0)	26 (10.8)	22 (9.2)	2 (0.8)	3 (1.2)	240
自 立 不 能 (%)	67 (82.7)	10 (12.3)	4 (5.0)	0	0	81
其 他 (%)	3 (60.0)	1 (20.0)	0	1 (20.0)	0	5
不 明 (%)	8 (80.0)	0	2 (20.0)	0	0	10

이것으로 보전대, 自立할 수 있었던 경우보다 自立할 수 없었던 경우에 오히려 「그렇다」의 答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自立할 수 없었다는 것은 大體로 年齡이 적었다는 것을 意味할 것이므로, 早失父母한 경우에 祖上을 그리워하는 心情이 보다 强하며 따라서 祭祀觀念도 그만큼 强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2) 祭祀는 반드시 宗孫이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20問)

이 質問은 祭祀를 차려야 한다는 答과 아무래도 좋다고 答을 한 사람에게만 물은 것이다.

(가) 總 括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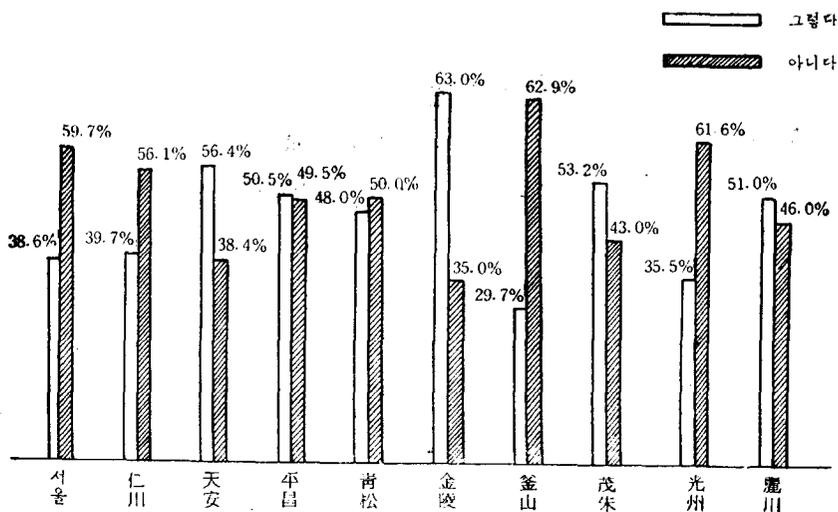
그렇다	430名	46.7%	其他	10名	1.1%
꼭 그럴 必要는 없다	469名	50.9%	無應答	12名	1.3%

(나) 地域別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그 러 다 (%)	22 (38.6)	29 (39.7)	44 (56.4)	50 (50.5)	61 (48.0)	50 (63.0)	28 (29.7)	57 (53.2)	38 (35.5)	51 (51.0)	430
꼭 그 러 릴 必 要 는 없 다 (%)	34 (59.7)	40 (56.1)	30 (38.4)	49 (49.5)	64 (50.0)	28 (35.0)	65 (69.2)	46 (43.0)	66 (61.6)	46 (46.0)	469
其 他 (%)	0	2 (2.7)	1 (1.2)	0	2 (1.6)	0	0	1 (0.9)	1 (0.9)	3 (3.0)	10
無 應 答 (%)	1 (1.7)	1 (1.4)	3 (3.8)	0	0	1 (1.3)	1 (1.1)	3 (2.8)	2 (2.0)	0	12
計	57	73	78	99	127	79	94	107	107	100	921

全般的으로 보아서, 祭祀는 차려야 한다는 意見은 全應答者의 72.2%로서 壓倒的 多數를 차지하였었지만, 반드시 宗孫이 차려야 하느냐 라는 問題에 대하여는, 「그렇다」의 答이 46.7%로서 半에 未達하고, 反對로 「꼭 그럴 必要는 없다」는 答이 50.9%로서 半을 넘고 있다. 이것을 地域的으로 보건대, 「그렇다」의 答이 가장 많은 곳이 金陵이고, 다음이 天安, 茂朱, 麗川, 平昌의 順序이며, 以上의 地域에서는 「그렇다」의 答이 50%를 넘고 있다. (「祭祀는 차려야 하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金陵에서는 「그렇다」가 매우 적고, 「아니다」가 相當히 많았는데, 本問에 있어서는 「그렇다」의 答에 있어서 金陵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若干 奇異하다). 이와 反對로 「그렇다」의 答이 적고, 「꼭 그럴 必要는 없다」의 答이 많은 곳으로는, 釜山이 第1位이고, 다음은 光州, 서울, 仁川이다. 즉 4個都市가 第1位로부터 第4位까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아니다」의 答은 이와 反比例).



資 料

(다) 家族의 立場別

	그 령 다	꼭그 령 必 要는 없다	其 他	無 應 答	計
戶 主	147	141	2	3	293
(%)	(50.2)	(48.1)	(0.7)	(1.0)	
戶 主 의 妻	108	97	3	0	208
(%)	(52.0)	(46.7)	(1.4)		
戶 主 의 長 男	79	115	1	3	198
(%)	(39.9)	(58.1)	(0.5)	(1.5)	
其 他	96	115	4	6	221
(%)	(43.4)	(52.0)	(1.8)	(2.7)	
不 明	0	1	0	0	1
(%)		(100)			

「그렇다」의 答이 戶主에 있어서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自然스러운 일이나, 戶主의 妻에 있어서 더욱 많은 比率을 보이고 있음은 興味있는 일이며, 戶主의 長男(大體로 말해서 앞으로 宗孫으로서 祭祀의 責任을 맡아야 할 立場에 있는 者)에 있어서 가장 低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라) 生活程度別

生活程度의 區分에 관하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 령 다	꼭그 령 必 要는 없다	其 他	無 應 答	計
上	21	11	0	0	32
(%)	(65.6)	(34.4)			
中	213	273	6	10	502
(%)	(42.4)	(54.4)	(1.2)	(2.0)	
下	188	181	4	2	375
(%)	(50.1)	(48.3)	(1.1)	(0.5)	
無 應 答	8	4	0	0	12
(%)	(66.7)	(33.3)			
計	430	469	10	12	921
(%)	(46.7)	(51.0)	(1.0)	(1.3)	

上流에 있어서 「그렇다」의 答이 가장 많고, 下流가 그 다음, 中流에 있어서는 「그렇다」의 答이 顯著하게 적고 反對로 「꼭 그 령 必要는 없다」는 答이 훨씬 더 많다. 上, 中, 下의 順序에 따라 차례로 數字가 增減되는 것이 아닌 點은 上問(第19問)에 있어서와 같다.

(3) 祭祀는 어떻게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第21問)

이 質問도, 祭祀를 차려야 한다는 答과, 아무래도 좋다는 答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 것이다. 그總括的集計는 다음과 같다.

生活範圍內에서 可及的이면 盛大하게 차려야 한다	114名	12.4%
簡單하게 차리는 것이 좋다	736名	79.9%
其 他	19名	2.1%
無應答	52名	5.6%

즉 簡單하게 차리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壓倒的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家族의 立場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可及的盛大 하게	簡單하게	其 他	無 應 答	計
戶主	33 (11.3)	245 (83.6)	5 (1.7)	10 (3.4)	293
戶主의 妻	33 (15.9)	158 (76.0)	4 (1.8)	13 (6.3)	208
戶主의 長男	23 (11.6)	153 (77.3)	4 (2.0)	18 (9.1)	198
其 他	25 (11.3)	179 (81.0)	6 (2.7)	11 (5.0)	221
不 明	0	1 (100)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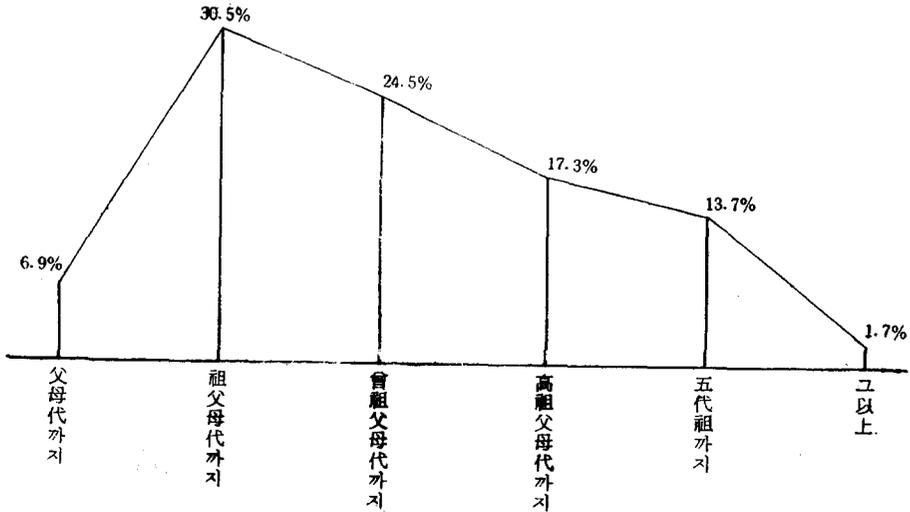
이 물음에 대하여는, 可及的 盛大하게 라는 答은 戶主의 妻에 있어서 若干 高率을 보일 뿐, 其他에 있어서는 比等하고, 簡單하게 라는 答은 戶主에 있어서 가장 많다.

(4) 祭祀의 範圍——祭祀는 몇 代祖까지나 지내야 되겠습니까?(第24問)

(가) 總 括

父母代까지	64名	6.9%	그 이 上	16名	1.7%
祖父母代까지	281名	30.5%	其 他	27名	2.9%
曾祖父母代까지	226名	24.5%	無 應 答	22名	2.4%
高祖父母代까지	159名	17.3%	計	921名	
五代祖까지	126名	13.7%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즉 祖父母代까지 라는 答이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고, 五代祖까지라는 答은 아직 相當히 많지만, 그 以上이라는 答은 極히 적다. 五代祖 奉祀라고 하는 傳統的 慣習보다 얼마나 範圍가 縮少되고 있는가를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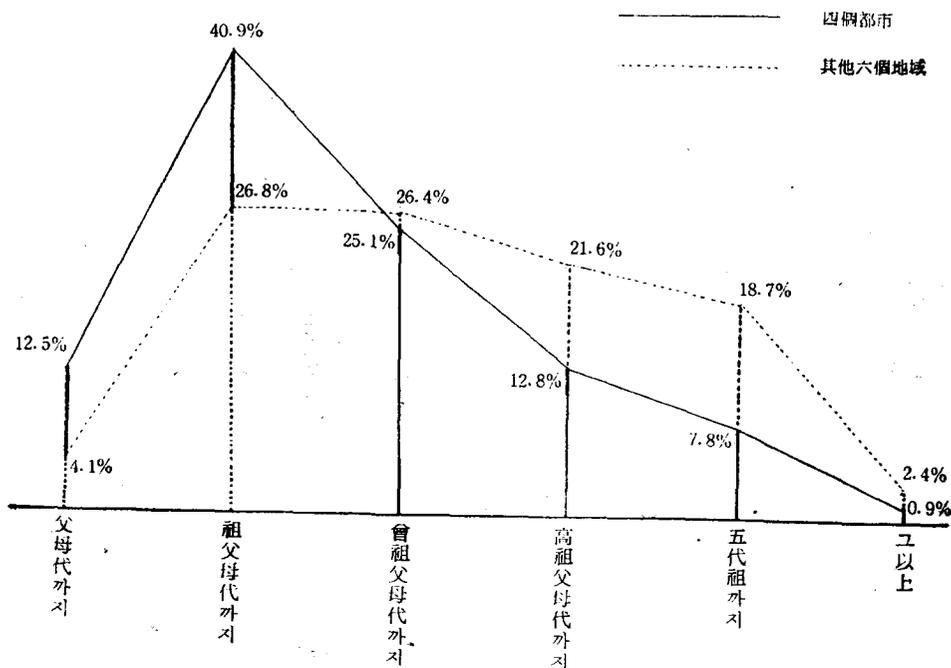
(나) 地域別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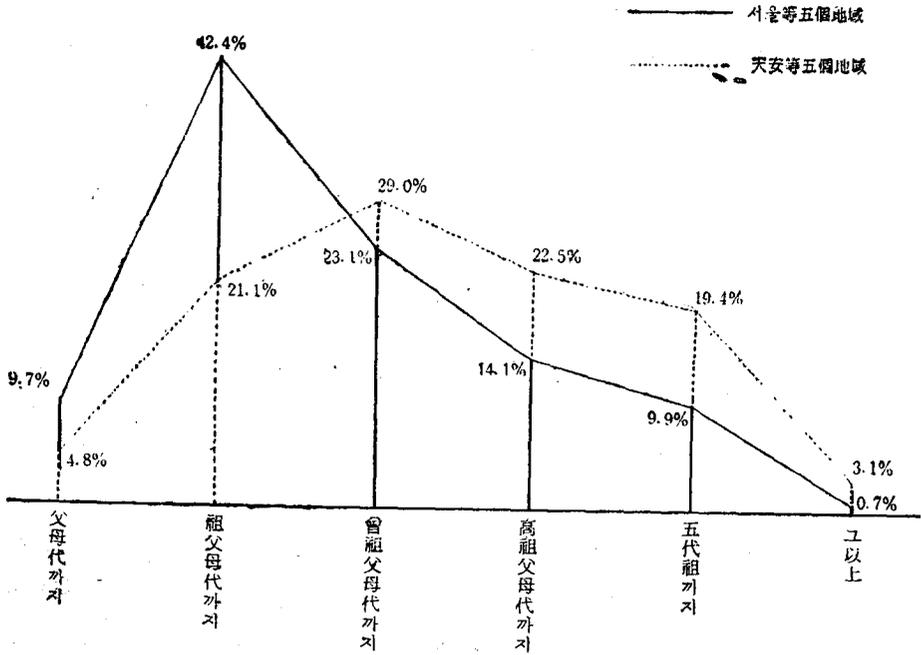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青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父母代까지 (%)	18 (20.7)	14 (14.4)	4 (4.1)	5 (5.5)	0	5 (5.2)	7 (7.4)	7 (7.4)	3 (4.2)	1 (1.0)	64
祖父母代까지 (%)	41 (47.1)	50 (52.0)	27 (27.8)	21 (23.1)	30 (32.9)	34 (35.1)	38 (40.0)	16 (16.8)	8 (11.3)	16 (16.0)	281
曾祖父母代까지 (%)	15 (17.2)	18 (18.6)	29 (29.9)	27 (29.7)	20 (21.9)	24 (24.7)	28 (29.5)	17 (17.9)	23 (32.4)	25 (25.0)	226
高祖父母代까지 (%)	4 (4.6)	9 (9.3)	23 (23.7)	14 (15.4)	15 (16.5)	20 (20.6)	17 (17.9)	25 (26.3)	13 (18.3)	19 (19.0)	159
五代祖까지 (%)	3 (3.4)	5 (5.2)	8 (8.2)	18 (19.8)	21 (23.1)	14 (14.4)	2 (2.1)	24 (25.3)	16 (22.5)	15 (15.0)	126
그 이상 (%)	1 (1.1)	0	0	4 (4.4)	2 (2.2)	0	0	1 (1.1)	2 (2.8)	6 (6.0)	16
其他 (%)	0	1 (1.1)	5 (5.2)	1 (1.1)	2 (2.2)	0	0	3 (3.2)	1 (1.4)	14 (14.0)	27
無 應 答 (%)	5 (5.7)	0	1 (1.0)	1 (1.1)	1 (1.1)	0	3 (3.2)	2 (2.1)	5 (7.1)	4 (4.0)	22
計	87	97	97	91	91	97	95	95	71	100	921

이것으로 보건대, 서울, 仁川, 釜山の 3個都市(光州만 例外)에 있어서는 모두 父母代까지가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金陵과 青松에서도 祖父母代까지가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다. 그 中 青松은 지금까지의 統計에 있어서는 가장 保守의 傾向을 濃厚하게 나타내었는데, 이 물음에 있어서는 都市에 있어서와 비슷한 數字를 보이고 있는 것은 注目할만하다. 그리고 父母代까지 라는 答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인 것도 또한 注目할만하다. 지금 4個都市의 集計와 餘他 地域의 集計와를 比較하여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그리고, 祖父母代까지 라고 하는 答이 高率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仁川, 釜山, 金陵, 靑松의 5個地域의 集計와 餘他 5個地域의 集計와를 가지고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다) 性 別

性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父母代까지	祖父母代까지	曾祖父母代까지	高祖父母代까지	五代祖까지	그以上	其他	無應答	計
男	33	175	142	111	75	7	8	11	562
%	(5.9)	(31.1)	(25.3)	(19.8)	(13.3)	(1.2)	(1.4)	(19.6)	
女	31	105	83	46	51	7	19	11	353
%	(8.9)	(29.7)	(23.5)	(13.0)	(14.4)	(1.9)	(5.4)	(3.1)	
不明	0	1	1	2	0	2	0	0	6
%		(16.7)	(16.7)	(33.3)		(33.3)			

이것으로 보건대, 性別에 따라서 뚜렷한 傾向의 差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라) 生活程度別

	父母代까지	祖父母代까지	曾祖父母代까지	高祖父母代까지	五代祖까지	그以上	其他	無應答	計
上	2	9	7	7	4	2	0	1	32
%	(6.3)	(28.1)	(21.8)	(21.8)	(12.5)	(6.3)		(3.2)	
中	35	160	127	88	65	4	11	12	502
%	(6.9)	(31.8)	(25.2)	(17.5)	(12.9)	(7.9)	(21.9)	(23.9)	
下	26	108	90	60	56	9	16	9	374
%	(9.6)	(28.9)	(24.0)	(16.0)	(15.0)	(2.4)	(4.2)	(2.4)	
不明	1	4	2	4	1	1	0	0	13
%	(7.6)	(30.7)	(15.3)	(30.7)	(7.6)	(7.6)			

資 料

父母代까지 라는 答이 下流일 수록 若干 많은 點을 除外하고는, 모두 祖父母代까지 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고, 其他 特別히 뚜렷한 傾向의 差異를 볼 수 없다.

(5) 祭祀에 參席해야 하는 親族의 範圍——祭祀 때에는 一家 親戚中 몇 寸까지는 꼭 參席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22問)

이 問題는 祭祀觀念의 強弱과 아울러 親族意識의 廣狹을 나타낸다.

(가) 總 括

直系家族	67名	7.2%	6-8寸까지	144名	15.6%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147名	16.0%	9-10寸까지	47名	5.1%
同一戶籍內의 家族은全部	48名	5.2%	그 以 上	31名	3.4%
3 寸 까 지	46名	4.9%	其 他	30名	3.3%
4 寸 까 지	242名	26.3%	計	921名	
5 寸 까 지	119名	13.0%			

이 答들은 반드시 親族範圍의 廣狹의 順序로 되어 있지 않다. 直系家族이 3寸 以上에 巨할 수도 있고, 또 同一戶籍의 家族이 5寸을 넘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答을 親戚範圍의 廣狹의 順으로 排列하기는 困難하다. 그러나 大體로 4寸까지 라고 하는 答이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答과 6寸~8寸까지 라는 答이다.

지금 最初의 세 가지의 答을 [直系 乃至 同一戶籍]으로써 範圍를 劃하자고 하는 意見으로서 하나로 묶고, 다음의 세 가지 答을 가까운 傍系까지를 包含하는 意見으로서 하나로 묶고, 다음의 두 가지 答을 10寸 以內의 傍系를 包含하는 意見으로서 다시 하나로 묶어 보면 다음과 같다.

直系乃至同一戶籍內	262名	28.4%	그 以 上	31名	3.4%
3寸~5寸	407名	44.2%	其 他	30名	3.3%
6寸~10寸	191名	20.7%			

(나) 地 域 別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直系家族 %	8 (9.2)	17 (17.5)	6 (6.1)	2 (2.2)	2 (2.2)	1 (1.0)	7 (7.4)	6 (6.3)	13 (18.0)	5 (5.0)	67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	32 (36.8)	25 (25.7)	14 (14.4)	5 (5.5)	4 (4.4)	8 (8.2)	15 (15.8)	10 (10.5)	21 (29.6)	13 (13.0)	147
同一戶籍內의 家族全部 %	5 (5.7)	8 (8.2)	2 (2.0)	3 (3.3)	3 (3.3)	4 (4.1)	4 (4.2)	5 (5.3)	10 (14.1)	4 (4.0)	48
3 寸 까 지 %	5 (5.7)	6 (6.1)	4 (4.1)	3 (3.3)	8 (8.8)	4 (4.1)	1 (1.1)	4 (4.2)	2 (2.8)	9 (9.0)	46
4 寸 까 지 %	14 (16.1)	19 (19.6)	22 (22.3)	26 (28.5)	28 (30.7)	43 (44.3)	27 (28.4)	26 (27.4)	3 (4.2)	34 (34.0)	242
5 寸 까 지 %	9 (10.3)	9 (9.3)	13 (13.3)	15 (16.5)	12 (13.1)	12 (12.4)	13 (13.6)	20 (21.0)	5 (7.1)	11 (11.0)	119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6~8寸까지	6	7	19	19	14	23	20	16	5	15	144
%	(6.9)	(7.2)	(19.6)	(20.9)	(15.3)	(23.7)	(21.0)	(16.8)	(7.1)	(15.0)	
9~10寸까지	2	4	6	13	10	2	1	4	3	2	47
%	(2.3)	(4.1)	(6.1)	(14.3)	(10.9)	(2.0)	(1.1)	(4.2)	(4.2)	(2.0)	
그以上	5	1	4	4	5	0	5	1	3	3	31
%	(5.7)	(1.0)	(4.1)	(4.4)	(5.5)		(5.3)	(1.1)	(4.2)	(3.0)	
其他	1	1	7	1	5	0	2	3	6	4	30
%	(1.1)	(1.0)	(7.2)	(1.1)	(5.5)		(2.1)	(3.2)	(8.4)	(4.0)	
計	87	97	97	91	91	97	95	95	71	100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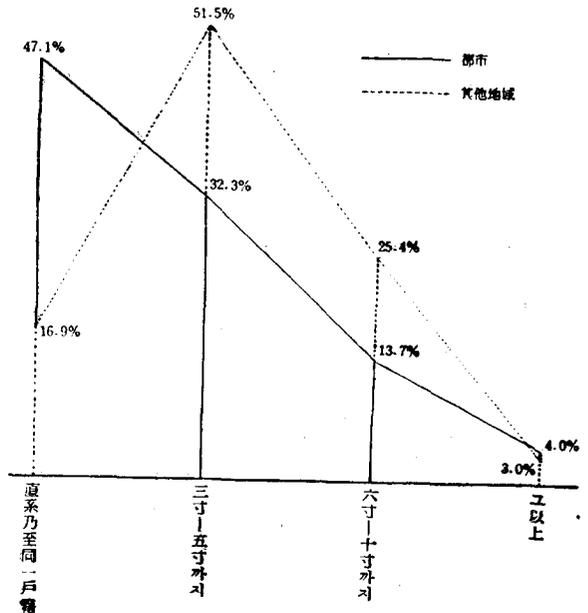
이것을 4個都市와 餘他 6個地域으로 나누어 集計해 보면 다음과 같다.

	四個都市	其他	四個都市	其他
直系家族	45(12.9%)	22(3.9%)	6~8寸까지	38(10.9%)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93(26.6%)	54(9.5%)	9~10寸까지	10(2.9%)
同一戶籍內의 家族全部	27(7.7%)	21(3.7%)	그以上	14(4.0%)
3寸까지	14(4.0%)	32(5.6%)	其他	10(2.9%)
4寸까지	63(18.0%)	179(31.3%)	計	350
5寸까지	36(10.3%)	83(14.5%)		571

즉 都市에 있어서는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음에 反하여, 其他 地域에 있어서는 4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直系 乃至 同一 戶籍內라는 意見(最初의 세 가지 答)은 都市에 있어서 顯著하게 많음에 反하여, 傍系를 包含한다는 意見은 其他 地域에 더 많다. 이 答들을 위에서와 같이 몇 개 씩으로 묶어서 都市와 其他 地域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都市	其他
直系乃至同一戶籍	165(47.1%)	97(16.9%)
3寸~5寸까지	113(32.3%)	294(51.5%)
6寸~10寸까지	48(13.7%)	143(25.4%)
그以上	14(4.0%)	17(3.0%)
其他	10(2.9%)	20(3.5%)

이것을 그래프로 對比하여 보면 右 表와 같다.



(다) 學歷別

	無學	한글解得	書堂	國民校卒	中校卒	高校卒	大學卒	그以上	不明
直系家族	3	7	1	7	11	23	13	2	0
%	(2.9)	(5.6)	(3.4)	(2.5)	(8.9)	(18.0)	(11.7)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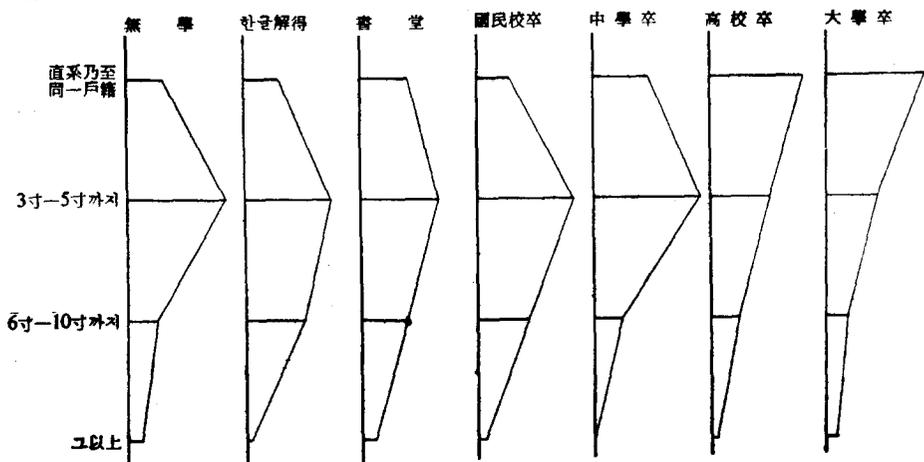
資 料

直系家族 및 兄弟 姉妹 %	13 (12.9)	9 (7.3)	5 (17.2)	25 (8.9)	19 (15.3)	32 (25.0)	39 (35.1)	2 (25.0)	3 (21.4)
同一戶籍內의 家 族全部 %	3 (2.9)	6 (4.8)	1 (3.4)	14 (5.0)	5 (4.0)	9 (7.0)	7 (6.3)	2 (25.0)	1 (7.2)
3 寸 까 지 %	7 (6.9)	4 (3.3)	1 (3.4)	22 (7.8)	6 (4.8)	2 (1.5)	4 (3.6)	0	0
4 寸 까 지 %	28 (27.7)	35 (28.3)	10 (34.5)	71 (25.2)	41 (30.6)	30 (23.4)	19 (17.1)	2 (25.0)	6 (42.9)
5 寸 까 지 %	17 (16.8)	16 (13.0)	1 (3.4)	49 (17.4)	19 (15.3)	8 (6.2)	7 (6.3)	0	2 (14.3)
6~8寸 까 지 %	12 (11.9)	28 (22.6)	5 (17.2)	58 (20.6)	13 (10.4)	14 (10.9)	12 (10.8)	0	2 (14.3)
9~10寸 까 지 %	5 (5.0)	11 (8.9)	2 (6.9)	19 (6.7)	4 (3.2)	5 (3.9)	1 (0.9)	0	0
그 % 以 % 上	6 (5.9)	3 (2.4)	2 (6.9)	10 (3.5)	1 (0.8)	4 (3.1)	5 (4.5)	0	0
其 % 他	7 (6.9)	5 (4.0)	1 (3.4)	7 (2.5)	5 (4.0)	1 (0.7)	4 (3.6)	0	0
計	101	124	29	282	124	128	111	8	14

中學卒까지는 모두 4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는데, 高校卒과 大學卒에 있어서는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다. 이 答들을 위에서와 같이 몇 개씩 묶어 보면 다음과 같다.

	無 學	한글解得	書 堂	國民校卒	中 校 卒	高 校 卒	大 學 卒
直系乃至同一戶籍 %	19 (18.8)	22 (17.7)	7 (24.1)	46 (16.3)	35 (28.2)	64 (50.0)	59 (53.2)
3寸~5寸 까 지 %	52 (51.5)	55 (44.4)	12 (41.4)	142 (50.4)	66 (53.2)	40 (31.3)	30 (27.0)
6寸~10寸 까 지 %	17 (16.8)	39 (31.5)	7 (24.1)	77 (27.3)	17 (13.7)	19 (14.8)	13 (11.7)
그 % 以 % 上	6 (5.9)	3 (2.4)	2 (6.9)	10 (3.5)	1 (0.8)	4 (3.1)	5 (4.5)
其 % 他	7 (6.9)	5 (4.0)	1 (3.4)	7 (2.5)	5 (4.0)	1 (0.7)	4 (3.6)
計	101	124	29	282	124	128	111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여 對比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즉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顯著하게 直系乃至 同一戶籍內로 局限하려는 意見이 많고, 傍系를 包含시키려는 意見이 적다.

(라) 年 齡 別

	20以下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以上	不 應 答	其 他
直 系 家 族 %	2 (3.3)	21 (8.0)	21 (7.9)	16 (8.2)	5 (4.9)	2 (5.6)	0	0	0	0
直系家族및兄弟 姊妹 %	12 (20.0)	49 (18.7)	41 (15.4)	23 (11.7)	13 (12.8)	5 (13.9)	2 (20.0)	1 (33.3)	1 (16.6)	0
同一戶籍內의家 族全部 %	4 (6.7)	9 (3.4)	13 (4.8)	14 (7.1)	6 (5.9)	2 (5.6)	0	0	0	0
3 寸 까 지 %	2 (3.3)	10 (3.8)	16 (6.0)	11 (5.6)	6 (5.9)	1 (2.8)	0	0	0	0
4 寸 까 지 %	9 (15.0)	67 (25.6)	66 (24.7)	53 (27.0)	29 (28.8)	10 (28.0)	2 (20.0)	2 (66.6)	3 (50.0)	1 (100)
5 寸 까 지 %	5 (8.3)	27 (10.3)	40 (14.9)	26 (13.2)	13 (12.9)	5 (13.9)	3 (30.0)	0	0	0
6寸~8寸까지 %	2 (3.3)	51 (19.5)	38 (14.3)	18 (14.2)	18 (17.8)	4 (11.1)	1 (10.0)	0 (33.3)	2	0
9寸~10寸까지 %	2 (3.3)	10 (3.8)	16 (6.0)	13 (6.6)	2 (2.0)	3 (8.3)	1 (10.0)	0	0	0
그 이 % 上	1 (1.6)	9 (3.4)	5 (1.8)	8 (4.1)	6 (5.9)	2 (5.6)	0	0	0	0
其 % 他	1 (1.6)	8 (8.0)	11 (4.1)	4 (2.0)	3 (3.0)	2 (5.6)	1 (10.6)	0	0	0
計	40	261	267	196	101	36	10	3	6	1

위의 數字를 보전대, 20歲以下를 除外하고는 어느 年代에 있어서나 4寸까지 라는 意見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다(20歲 以下에 있어서는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意見이 最高이고 4寸까지는 第2位). 그 밖에, 大體로 말해서, 年齡이 적을 수록 直系乃至 同一戶籍內로 局限하려는 意見이 많아짐에 反하여, 年齡이 많을 수록 傍系親을 包含시키려고하는 意見이 많은 傾向을 볼 수 있으나, 그 數字가 반드시 年齡의 多寡에 比例하여 增減되고 있지는 않다.

(마) 宗 教 別

	無	佛 教	基督教	天主教	儒 教	天道教	其 他	無 應 答
直 系 家 族 %	34 (5.4)	18 (13.7)	5 (7.8)	5 (16.7)	2 (3.4)	0	3 (20.0)	0
直系家族및兄弟 姊妹 %	87 (14.0)	20 (15.3)	16 (25.0)	12 (40.0)	10 (17.0)	0	0 (20.0)	2
同一戶籍內의家 族全部 %	24 (3.9)	10 (7.6)	4 (6.2)	4 (13.3)	4 (10.3)	0	0	0
3 寸 까 지 %	35 (5.6)	5 (3.8)	4 (6.2)	2 (6.7)	0	0	0	0
4 寸 까 지 %	171 (27.5)	28 (21.3)	19 (29.7)	1 (3.3)	18 (31.0)	0	3 (20.0)	2 (20.0)
5 寸 까 지	85 (13.6)	12 (9.1)	7 (10.9)	3 (10.0)	6 (10.3)	1 (100)	3 (20.0)	2 (20.0)

資 料

6寸~8寸 까지 %	104 (16.7)	17 (13.0)	7 (10.9)	2 (6.7)	7 (12.0)	0	4 (26.7)	3 (30.0)
9寸~10寸까지 %	35 (5.6)	8 (6.1)	0	0	3 (5.1)	0	1 (6.6)	0
그 % 이 % 상	15 (2.4)	9 (6.9)	2 (3.1)	0	4 (6.9)	0	0	1 (10.0)
其 % 他	27 (4.3)	4 (3.0)	0	1 (3.3)	2 (3.4)	0	1 (6.6)	0
計	612	131	64	30	58	1	15	10

天主教를 除外하고는, 4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는 點에 있어서 共通하다(天主教에 있어서는 直系家族 및 兄弟姉妹라는 答이 壓倒的으로 最高를 차지하고 있다). 또 第2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直系家族 및 兄弟姉妹라는 答인 點이 儒敎, 佛敎, 基督敎에 共通된다(다만 無宗敎의 境遇만이 例外).

(바) 職 業 別

	農 業	主 婦	商 業	서비스業	公務員	學 生	勞 動	無 職	其 他
直 系 家 族 %	14 (22.5)	1 (14.3)	15 (13.4)	8 (13.6)	8 (17.4)	0	0	16 (6.3)	5 (9.2)
直系家族및兄弟 姉妹 %	27 (7.8)	1 (14.3)	20 (18.5)	15 (25.4)	16 (34.8)	15 (39.4)	2 (18.2)	44 (15.9)	11 (20.3)
同一戶籍內의家 族全部 %	11 (3.2)	0	8 (7.4)	4 (6.8)	2 (4.3)	4 (10.5)	0	17 (6.7)	2 (3.7)
3 寸 까 지 %	20 (5.7)	1 (14.3)	4 (3.7)	5 (8.5)	1 (2.2)	2 (5.3)	0	11 (4.3)	2 (3.7)
4 寸 까 지 %	107 (30.9)	2 (28.6)	19 (17.6)	12 (20.3)	9 (19.6)	9 (23.7)	4 (36.4)	66 (26.2)	14 (26.0)
5 寸 까 지 %	50 (14.5)	2 (28.6)	11 (10.1)	6 (10.2)	5 (10.9)	2 (5.3)	3 (27.3)	34 (13.5)	6 (11.1)
6寸~8寸 까지 %	70 (20.2)	0	18 (16.7)	5 (8.5)	3 (6.5)	2 (2.6)	2 (18.2)	14 (14.3)	9 (16.0)
9寸~10寸까지 %	25 (7.2)	0	8 (7.4)	1 (1.6)	1 (2.2)	1 (2.6)	0	10 (3.3)	1 (1.8)
그 % 이 % 상	9 (2.6)	0	3 (2.8)	1 (1.6)	0	2 (5.3)	0	12 (4.7)	4 (7.4)
其 % 他	13 (3.7)	0	2 (1.9)	2 (3.4)	1 (2.2)	2 (5.3)	0	10 (3.3)	0
計	346	7	108	59	46	38	11	252	54

學生과 公務員에 있어서는 直系家族 및 兄弟姉妹까지 라는 意見이 壓倒的으로 高率을 보이고 있고, 또 서비스業과 商業에 있어서도 直系家族 및 兄弟姉妹까지 라는 意見이 4寸까지 라는 意見보다 高率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反對로 農業과 無職에 있어서는 4寸까지 라는 意見이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고, 또 主婦와 勞動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사) 性 別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直系家族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同戶籍 內의 家族 全部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寸까지	9寸~10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男 %	44 (7.8)	90 (16.1)	29 (5.2)	22 (3.9)	156 (27.8)	66 (11.7)	89 (15.8)	36 (6.4)	16 (2.8)	14 (2.4)	562
女 %	23 (6.5)	56 (15.8)	19 (5.3)	24 (6.8)	84 (23.8)	53 (15.0)	52 (15.7)	11 (3.1)	15 (6.5)	16 (4.5)	353
不明 %	0	1 (16.7)	0	0	2 (33.3)	0	3 (50.0)	0	0	0	6

이 數字에 나타난 것으로는 性別에 따라 어떠한 뚜렷한 傾向의 差異를 發見할 수 없다.

(아) 生活程度別

	直系家族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同戶籍 內의 家族 全部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寸까지	9寸~10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上 %	3 (9.3)	4 (12.5)	2 (6.2)	3 (9.3)	6 (18.8)	5 (15.6)	7 (21.9)	2 (6.2)	0	0	32
中 %	41 (8.2)	93 (18.5)	29 (5.8)	18 (3.5)	136 (27.1)	62 (12.4)	74 (14.7)	20 (3.9)	16 (3.2)	13 (2.6)	502
下 %	23 (6.1)	49 (13.1)	16 (4.3)	24 (6.4)	96 (25.6)	49 (13.1)	60 (16.1)	25 (6.7)	15 (4.0)	17 (4.5)	374

總括的統計에 있어서와 같이 4寸까지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라는 答이 次位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中流에서이다. 上流에 있어서는 6寸~8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고, 下流에 있어서는 4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는 點은 中流에 있어서와 같지만, 5寸乃至 10寸의 傍系까지를 包含하는 意見이 中流에 있어서 보다 많다.

(6) 喪服着用的 範圍——초상 때 貴宅에서는 몇 寸까지 喪服이나 頭巾을 着用하십니까? (第23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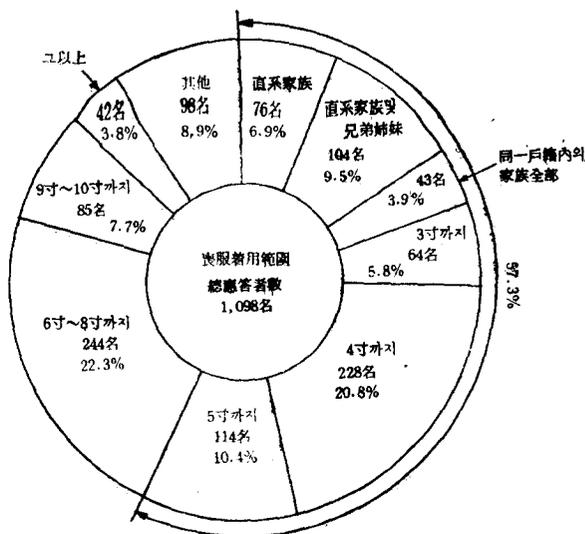
元來 親族의 範圍는 喪服着用的 範圍에 依하여 定하여졌던 만큼, 喪服着用的 範圍의 廣狹은 곧 親族意識의 廣狹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가) 總 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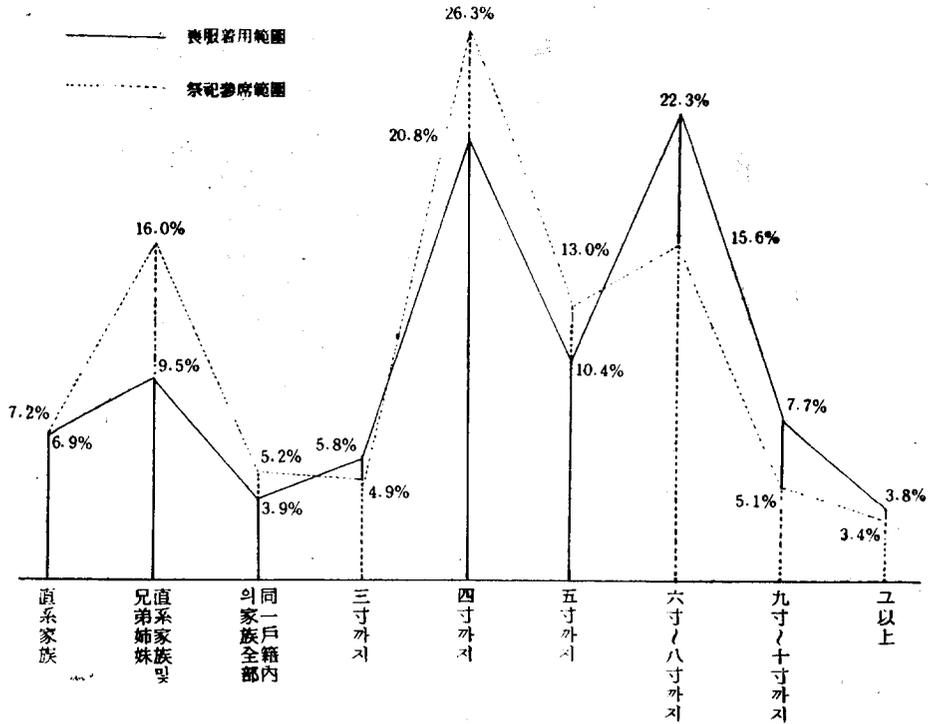
總括的 集計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右表와 같다.

이것을 祭祀參席 範圍에 관한 答과 對比해 보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이 두 曲線을 比較하건대, 祭祀參席 範圍에 관하여는 4寸까지 라는 答이 壓倒的으로 많고, 그 다음은 直系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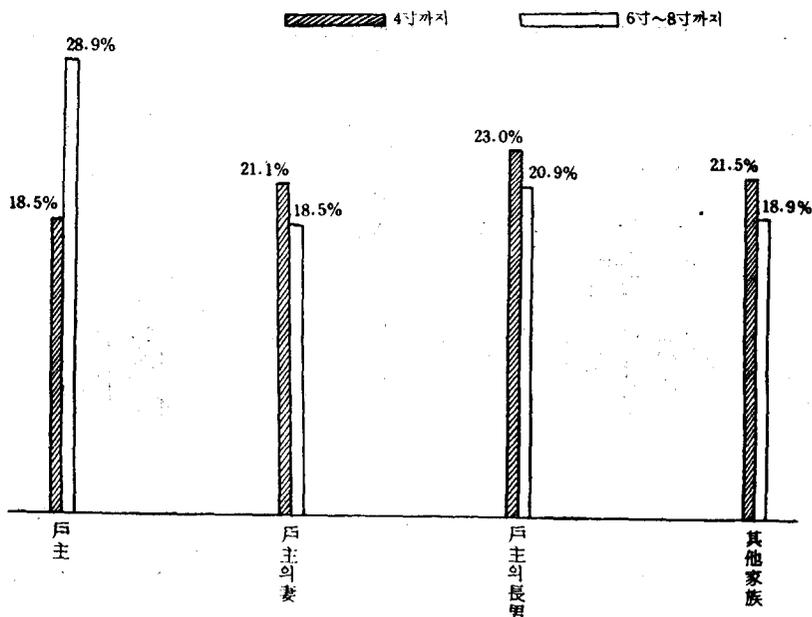
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答이었는데, 喪服用 範圍에 관하여는 6寸~8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率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4寸까지 라는 答이며, 直系乃至 同一戶籍內 라는 答은 훨씬 적다.

(나) 家族의 立場別

	直系家族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同一戶籍內의 家族全部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寸까지	9寸~10寸까지	그 이상	其他	計
戶主	23	35	12	15	62	29	97	41	12	10	336
%	(6.8)	(10.4)	(3.6)	(4.5)	(18.5)	(8.6)	(28.9)	(12.2)	(3.6)	(3.0)	
戶主의 妻	19	26	12	11	56	37	49	16	10	29	265
%	(7.2)	(9.8)	(4.5)	(4.2)	(21.1)	(13.9)	(18.5)	(6.0)	(3.8)	(11.0)	
戶主의 長男	17	23	11	17	53	22	48	13	5	21	230
%	(7.4)	(10.0)	(4.9)	(7.4)	(23.0)	(9.6)	(20.9)	(5.7)	(2.2)	(9.0)	
其他	17	19	8	20	57	26	50	15	15	38	265
%	(6.4)	(7.2)	(3.0)	(7.5)	(21.5)	(9.8)	(18.9)	(5.7)	(5.7)	(14.3)	
無 應 答	0	1	0	1	0	0	0	0	0	0	2
%		(50.0)		(50.0)							
計	76	104	43	64	228	114	244	85	42	98	1098

지금 가장 頻數가 많은 答으로 6寸~8寸까지 라는 答과 4寸까지 라는 答을 家族의 立場別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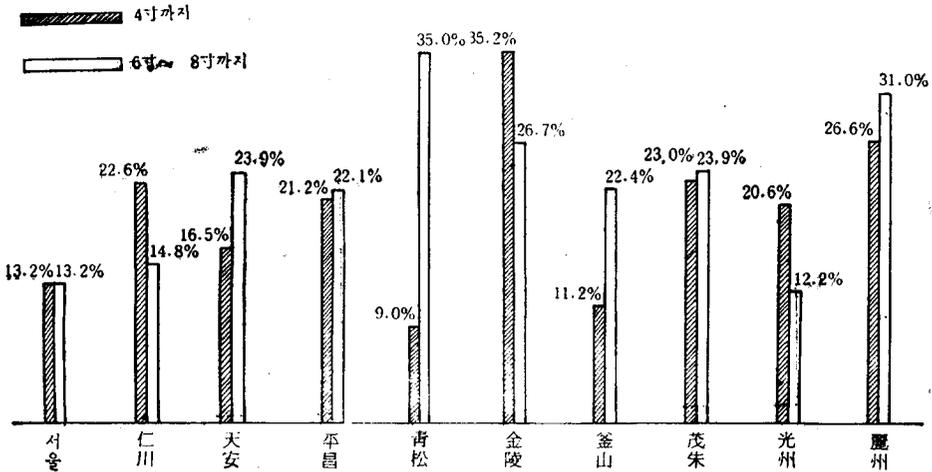
즉 戶主에 있어서는 6寸~8寸까지 라는 答이 4寸까지 라는 答보다 壓倒的으로 많음에 反하여, 戶主의 妻, 戶主의 長男, 其他家族에 있어서는, 4寸까지 라는 答이 도리어 더 많 다.

(다) 地 域 別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直系家族 %	7 (6.6)	18 (15.7)	6 (5.5)	8 (7.1)	4 (4.0)	4 (3.8)	9 (8.4)	5 (4.4)	9 (8.4)	6 (5.3)	76
直系家族 및 兄弟 姊妹 %	25 (23.6)	12 (10.4)	8 (7.3)	6 (5.3)	1 (1.0)	13 (12.4)	9 (8.4)	9 (8.0)	16 (14.9)	5 (4.4)	104
同一戶籍內의 家族全部 %	4 (3.8)	4 (3.5)	4 (3.7)	4 (3.5)	3 (3.0)	1 (0.9)	5 (4.7)	8 (7.1)	6 (5.6)	4 (3.5)	43
3寸까지 %	7 (6.6)	4 (3.5)	3 (2.8)	8 (7.1)	11 (11.0)	5 (4.8)	6 (5.6)	5 (4.4)	7 (6.5)	8 (7.1)	64
4寸까지 %	14 (13.2)	26 (22.6)	18 (16.5)	24 (21.2)	9 (9.0)	37 (35.2)	12 (11.2)	26 (23.0)	22 (20.6)	30 (26.6)	228
5寸까지 %	9 (8.5)	11 (9.6)	6 (5.5)	17 (15.1)	13 (13.0)	6 (5.7)	18 (16.9)	14 (12.4)	8 (7.5)	12 (10.6)	114
6寸~8寸까지 %	14 (13.2)	17 (14.8)	26 (23.9)	25 (22.1)	35 (35.0)	28 (26.7)	24 (22.4)	27 (23.9)	13 (12.2)	35 (31.0)	244
9寸~10寸까지 %	8 (7.5)	5 (4.3)	20 (18.4)	11 (9.7)	7 (7.0)	5 (4.8)	6 (5.6)	10 (8.8)	5 (4.7)	8 (7.1)	85
그 以 上 %	12 (11.3)	8 (6.9)	7 (6.4)	2 (1.8)	1 (1.0)	1 (0.9)	3 (2.8)	2 (1.8)	5 (4.7)	1 (0.9)	42
其 他 %	6 (5.7)	10 (8.7)	11 (10.0)	8 (7.1)	16 (16.0)	5 (4.8)	15 (14.0)	7 (6.2)	16 (14.9)	4 (3.5)	98
計	106	115	109	113	100	105	107	113	107	113	1098

資 料

위에서와 같이 4寸까지 라는 답과 6寸~8寸까지 라는 답을 그래프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6寸~8寸까지 라는 답이 가장 많은 곳은 靑松(35.0%)이고, 그 다음은 麗川(31.0%), 金陵(26.7%), 茂朱와 天安(모두 23.9%), 釜山(22.4%), 平昌(22.1%)의 順序이다. 즉 釜山을 除外하고는 都市에서는 6寸~8寸까지 라는 답은 매우 적고, 農村에 이 답이 많다. 그러나 6寸~8寸까지 라는 답과 4寸까지 라는 답은 반드시 反比例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靑松에서는 6寸~8寸까지라는 답이 많은 편으로 第1位를 차지하고 있는 反面에 4寸까지 라는 답은 적은 편으로 第1位를 차지하고 있지만, 金陵, 麗川, 茂朱, 平昌에서는 4寸~8寸까지 라는 답도 많으면서 4寸까지 라는 답도 相當히 많다. 4寸까지 라는 답이 6寸~8寸까지 라는 답보다 顯著히 많은 곳은 金陵, 仁川, 光州이다. 서울에서 4寸까지 라는 답과 6寸~8寸까지 라는 답이 모두 低率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만이 라는 답이 高率(23.6%)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만이 라는 답은 서울 以外의 地域에서는 大體로 低率(光州의 14.9%, 金陵의 12.4%, 仁川의 10.4%를 除外하고는 모두 10%以下)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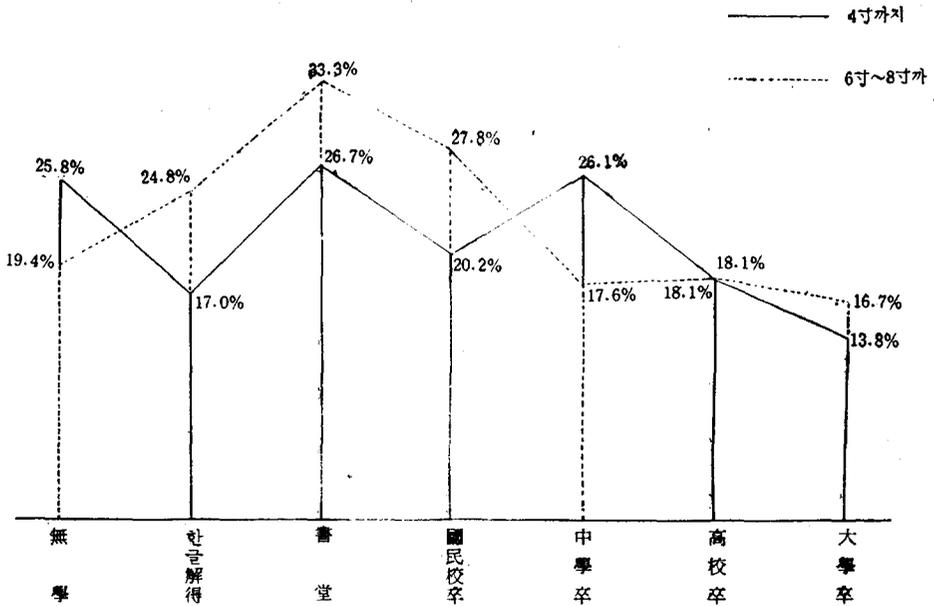
(라) 學歷別

	無學	한글解得	書堂	國民校卒	中校卒	高校卒	大學卒	그以上	不明
直系家族 %	7 (5.6)	8 (5.7)	1 (3.3)	20 (6.0)	7 (4.9)	19 (11.4)	13 (9.4)	1 (12.5)	0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	10 (8.1)	7 (4.9)	2 (6.7)	17 (5.1)	15 (10.6)	27 (17.5)	20 (14.5)	2 (25.0)	4 (22.2)
同一戶籍內의 家族全部 %	7 (5.6)	3 (2.1)	0	10 (3.0)	6 (4.2)	7 (4.2)	10 (7.2)	0	0
3寸까지 %	7 (5.6)	11 (7.8)	0	20 (6.0)	6 (4.2)	9 (5.4)	8 (5.8)	1 (12.5)	2 (11.1)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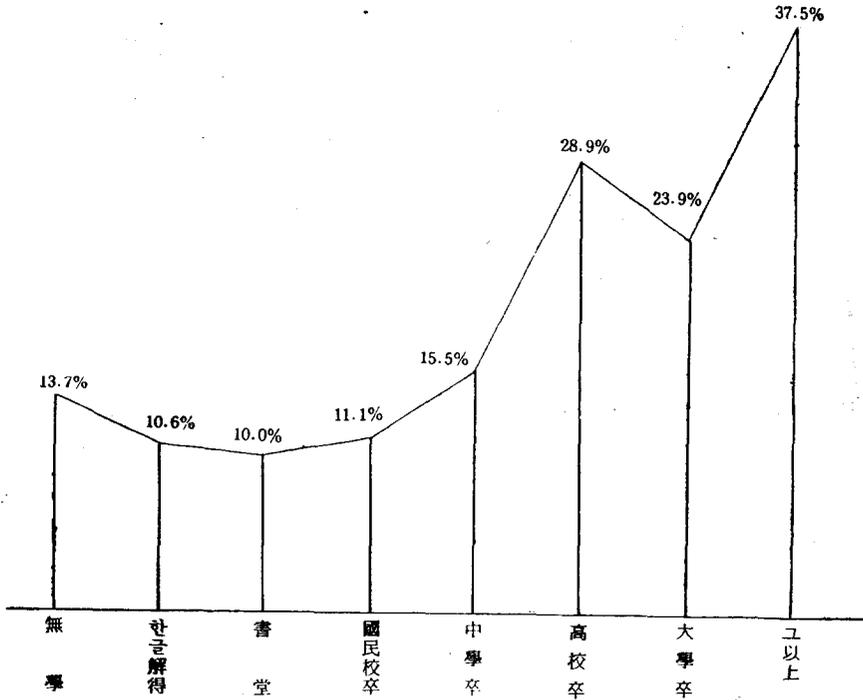
4寸까지	32 (25.8)	24 (17.0)	8 (26.7)	67 (20.2)	37 (26.1)	35 (18.1)	19 (13.8)	0	6 (33.3)
5寸까지	13 (10.5)	19 (13.5)	1 (3.3)	35 (10.6)	19 (13.4)	9 (5.4)	15 (10.9)	1 (12.5)	2 (11.1)
6寸~8寸까지	24 (19.4)	35 (24.8)	10 (33.3)	92 (27.8)	25 (17.6)	30 (18.1)	23 (16.7)	3 (37.5)	2 (11.1)
9寸~10寸까지	7 (5.6)	16 (11.4)	6 (20.0)	32 (9.7)	10 (7.0)	10 (7.1)	4 (2.9)	0	0
그이上	2 (1.6)	3 (2.1)	2 (6.7)	11 (3.1)	4 (2.8)	6 (3.6)	14 (10.1)	0	0
其他	15 (12.0)	15 (10.7)	0	27 (8.2)	13 (9.2)	14 (8.5)	12 (8.7)	0	2 (11.1)
計	124	141	30	331	142	166	138	8	18

4寸까지 라는 답과 6寸~8寸까지 라는 답을 그래프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寸~8寸까지 라는 意見이 壓倒적으로 많은 것은 書堂과 國民校卒에 있어서이다. 4寸까지 라는 意見은 起伏이 많은 曲線을 보이고 있어서 學歷程度의 高下에 따른 一定한 傾向을 엿볼 수 없다. 이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의 數字를 보건대, 直系乃至直系와 兄弟姊妹에 限한다는 答은 大體로 學歷程度가 높음에 따라서 遞增하는 傾向에 있다. 지금 直系家族이라는 答과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答을 合한 數字의 百分率을 그래프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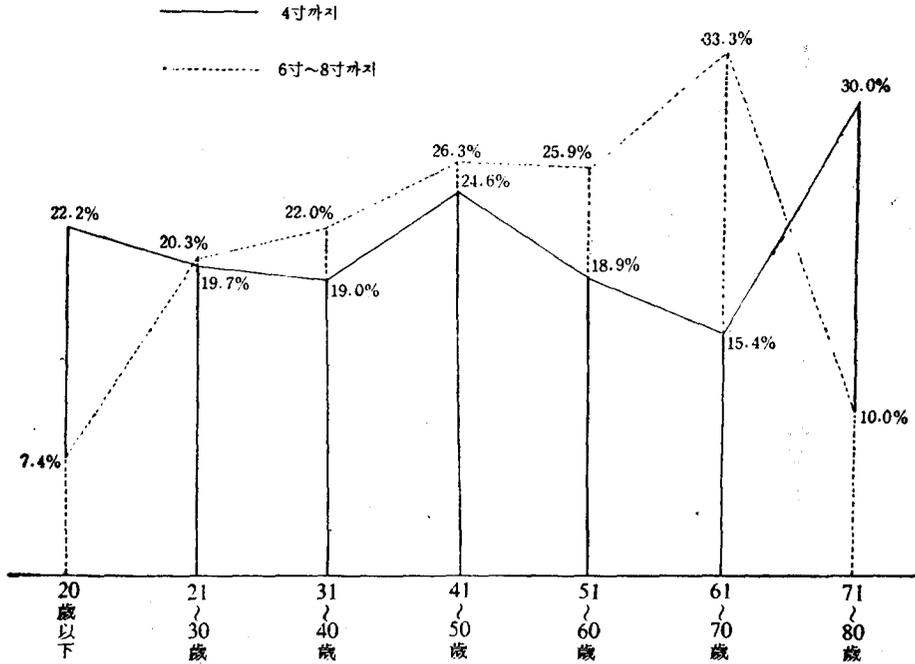
(마) 年 齡 別

	20以下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以上	不明	其他
直系家族 %	7 (13.0)	20 (6.3)	25 (7.8)	17 (7.5)	5 (4.3)	1 (2.6)	1 (10.0)	0	0	0
直系家族 및 兄弟 姊妹 %	5 (9.3)	29 (9.1)	30 (9.3)	22 (9.6)	11 (9.5)	4 (10.2)	0	1 (33.3)	2 (20.0)	0
同一戶籍內의 家族全部 %	2 (3.7)	15 (4.7)	14 (4.3)	7 (3.1)	3 (2.6)	1 (2.6)	1 (10.0)	0	0	
3 寸 까 지 %	6 (11.1)	19 (6.0)	17 (5.3)	16 (7.0)	6 (5.2)	0	0	0	0	0
4 寸 까 지 %	12 (22.2)	62 (19.7)	61 (19.0)	56 (24.6)	22 (18.9)	6 (15.4)	3 (30.0)	2 (66.7)	4 (40.0)	0
5 寸 까 지 %	4 (7.4)	32 (10.5)	38 (11.8)	12 (5.3)	19 (16.4)	4 (10.2)	3 (30.0)	0	2 (20.0)	0
6寸~8寸 까 지 %	4 (7.4)	64 (20.3)	71 (22.0)	60 (26.3)	30 (25.9)	13 (33.3)	1 (10.0)	0	1 (10.0)	0
9寸~10寸 까 지 %	3 (5.6)	17 (5.3)	23 (7.1)	22 (9.6)	12 (10.3)	6 (15.4)	1 (10.0)	0	0	1 (100)
그 以 上 %	4 (7.4)	13 (4.2)	11 (3.4)	10 (4.4)	3 (2.6)	1 (2.6)	0	0	0	0
其 他 %	7 (13.0)	44 (14.9)	32 (10.0)	6 (2.6)	5 (4.3)	3 (7.7)	0	0	1 (10.0)	0
計	54	315	322	228	116	39	10	3	10	1

위에서와 같은 要領으로 4寸까지라는 意見과 6寸~8寸까지 라는 意見을 그라프로 比較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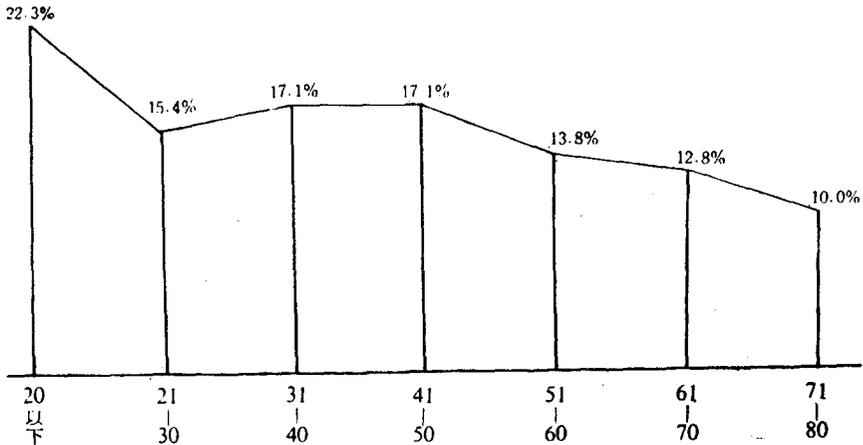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보면 다음과 같다.



6寸~8寸까지 라는 답이 大體로 年齡이 많을 수록 高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學歷程度가 낮을 수록 6寸~8寸까지 라는 답이 많았던 것과 對應한다. 4寸까지 라는 답이 起伏이 많은 曲線을 나타내고 있어서 年齡의 高下에 따른 一定한 傾向을 보이지 않는 것은, 學歷의 高下에 따른 一定한 傾向을 볼 수 없는 것과 對比된다.

다음에 直系家族이라는 답과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답을 합한 것의 百分率을 圖表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資 料

즉, 大體로 말해서 年齡이 적을 수록 直系乃至直系와 兄弟姊妹에 局限한다는 筈이 많다.

(바) 職業別

	農 業	主 婦	商 業	서비스業	公務員	學 生	勞 動	無 職	其 他
直系家族	17	2	13	7	3	7	1	22	4
%	(4.2)	(20.0)	(10.2)	(9.9)	(5.1)	(13.7)	(8.3)	(7.4)	(6.3)
直系家族및兄弟姊妹	17	1	16	13	11	6	1	32	7
%	(4.2)	(10.0)	(12.5)	(18.3)	(18.6)	(11.8)	(8.3)	(10.8)	(10.9)
同一戶籍內의家族全部	13	0	4	1	6	6	0	11	2
%	(3.2)		(3.1)	(1.4)	(10.2)	(11.8)		(3.7)	(3.1)
3寸까지	25	0	5	5	4	2	3	15	5
%	(6.1)		(3.9)	(7.0)	(6.8)	(3.9)	(25.0)	(5.1)	(7.9)
4寸까지	94	2	22	9	11	12	2	65	11
%	(23.1)	(20.0)	(17.2)	(12.7)	(18.6)	(23.5)	(16.7)	(22.0)	(17.1)
5寸까지	38	3	13	7	8	2	1	34	8
%	(9.3)	(30.0)	(10.2)	(9.9)	(13.6)	(3.9)	(8.3)	(11.5)	(12.5)
6寸~8寸까지	126	0	25	17	11	2	1	54	8
%	(31.0)		(19.5)	(23.9)	(18.6)	(3.9)	(8.3)	(18.2)	(12.5)
9寸~10寸까지	38	1	10	3	2	1	0	24	6
%	(9.3)	(10.0)	(7.8)	(4.2)	(3.4)	(2.0)		(8.1)	(9.4)
그 以 上	9	0	6	2	2	4	1	14	4
%	(2.2)		(4.7)	(2.8)	(3.4)	(7.9)	(8.3)	(4.7)	(6.3)
其 他	30	1	14	7	1	9	2	25	9
%	(7.4)	(10.0)	(10.9)	(9.9)	(1.7)	(17.6)	(16.7)	(8.5)	(14.1)
計	407	10	128	71	59	51	12	296	64

農業과 商業에 있어서는, 6寸~8寸까지 라는 筈이 最高, 4寸까지 라는 筈이 次位를 차지하고 있는 點에 있어서 共通하고, 서비스業에 있어서는 6寸~8寸까지 라는 筈이 最高라는 點은 農業, 商業에 있어서와 같지만, 次位는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筈이고, 4寸이라는 筈은 第三位이다. 無職에 있어서는 이와 反對로 4寸까지라는 筈이 最高이고, 6寸~8寸까지 라는 筈이 次位이다. 公務員에 있어서는 6寸~8寸까지 라는 筈과, 4寸까지 라는 筈과,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筈이 同數로 되어 있다. 學生에 있어서는 4寸까지 라는 筈이 最高, 直系家族이라는 筈이 次位, 그 다음은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라는 筈과 同一戶籍內의 家族全部라는 筈이 同數이며, 6寸~8寸까지 라는 筈은 겨우 3.9%로서, 다른 職業에 있어서와는 顯著하게 特異한 數字를 나타내고 있다.

(사) 生活程度別

	直系 家族	直系家 族및兄 弟姊妹	同一戶籍 內의家族 全部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 寸까지	9寸~10 寸까지	그 以 上	其 他	計
上	2	3	0	3	2	5	15	4	1	2	37
%	(5.4)	(8.1)		(8.1)	(5.4)	(13.5)	(40.5)	(10.8)	(2.7)	(5.5)	
中	41	71	24	31	143	69	126	39	23	43	610
%	(6.7)	(11.6)	(3.9)	(5.1)	(23.4)	(11.3)	(20.7)	(6.4)	(3.8)	(7.1)	
下	30	29	19	30	78	37	101	40	18	51	433
%	(6.9)	(6.7)	(4.4)	(6.9)	(18.0)	(8.5)	(23.4)	(9.2)	(4.2)	(11.8)	
不明	3	1	0	0	5	3	2	2	0	2	18
%	(16.7)	(5.6)			(27.8)	(16.6)	(11.1)	(11.1)		(11.1)	

上流에 있어서는 6寸~8寸까지 라는 答이 壓倒的으로 많음에 反하여, 中流에 있어서는 4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이고 6寸~8寸까지 라는 答이 次位, 下流에 있어서는 反對로 6寸~8寸까지 라는 答이 最高이고 4寸까지 라는 答이 次位로 되어 있다.

第 4 章 家系繼承과 序列尊重

祖上奉祀와 關聯하여 家族制度의 또 하나의 重要한 要素는 家系繼承의 思想이다. 즉 家를 代代로 永久히 繼續해 나가는 하나의 抽象的團體로 생각하고, 이 家를 永久히 存續시키기 爲하여 家系를 繼承할 者가 없는 때에는 養子를 해서라도 家를 繼承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家는 家長의 統率下에 結束되는 것이고, 따라서 家族團體에 있어서는 그 團體의 秩序의 根幹인 序列이 尊重된다.

그러면 家가 繼承되어야 한다는 思想과, 家族團體 乃至 親族團體內에서 序列을 尊重하는 思想이 現今의 우리 社會에서 어느 程度로 強하게 남아 있는가? 이 調査에서는 먼저 戶主相續者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를 묻고, 다음에 어떤 事由로, 몇 살 때에 戶主가 되었으며, 그 當時에 果然 戶主로서의 任務를 堪當할 만한 生活能力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與否를 알아 보았다. 序列尊重에 관하여는, 먼저 一個의 家族團體 乃至 親族團體에 全體의 統率者로서의 長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묻고, 다음에 行列을 어느 程度로 尊重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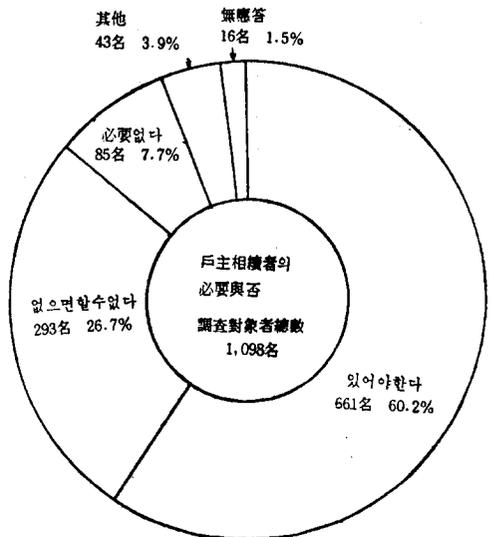
一. 家系繼承

(1) 戶主相續者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9問)

(가) 總括

이 물음에 대한 答의 總括的集計는 右表와 같다.

여기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質疑書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 子息이 없으면 養子라도 해야 한다」는 答이며,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質疑書에 「있는 것이 좋지만 없으면 할 수 없다」는 答이다. 그러므로 「있어야 한다」와 「없으면 할 수 없다」를 合한 것이 肯定的인 答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 合計는 954名, 86.9%가 된다. 즉 壓倒的多數가 戶主相續者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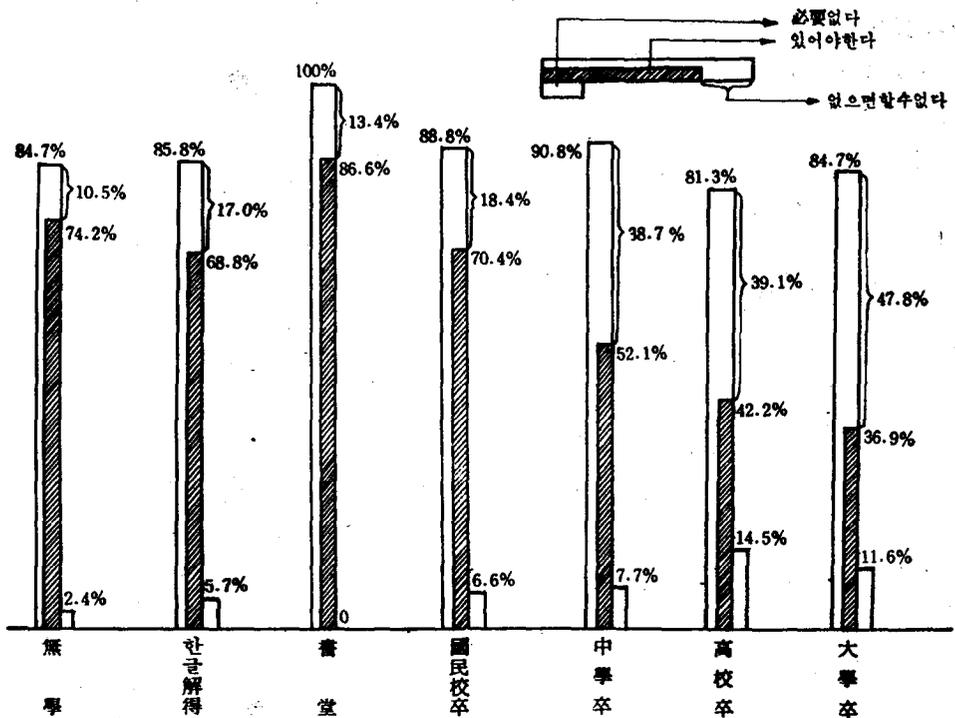
資 料

(나) 家族의 立場別

	있어야 한다	없으면 할 수 없다	必要없다	其他	無應答	計
戶主 %	226 (67.3)	81 (24.0)	15 (4.5)	10 (3.0)	4 (1.2)	336
戶主의 妻 %	167 (64.5)	63 (24.3)	16 (3.9)	15 (5.8)	4 (1.5)	265
戶主의 長男 %	130 (56.5)	65 (28.3)	30 (13.1)	4 (1.7)	1 (0.4)	230
其他 %	138 (52.1)	82 (30.9)	24 (9.1)	14 (5.3)	7 (2.6)	265
不明 %	0	2 (100)	0	0	0	2

「있어야 한다」는 答이 가장 많은 것은 戶主이고, 다음은 戶主의 妻, 長男, 其他家族의 順序이다. 「없으면 할 수 없다」는 意見은 戶主의 長男과 其他家族에 있어서 戶主나 戶主의 妻보다 若干 많은 數字를 보이고 있다. 「必要없다」는 意見은 戶主의 長男에 있어서 가장 많고 다음이 其他家族이며, 戶主와 戶主의 妻에 있어서는 매우 적다.

(다) 學歷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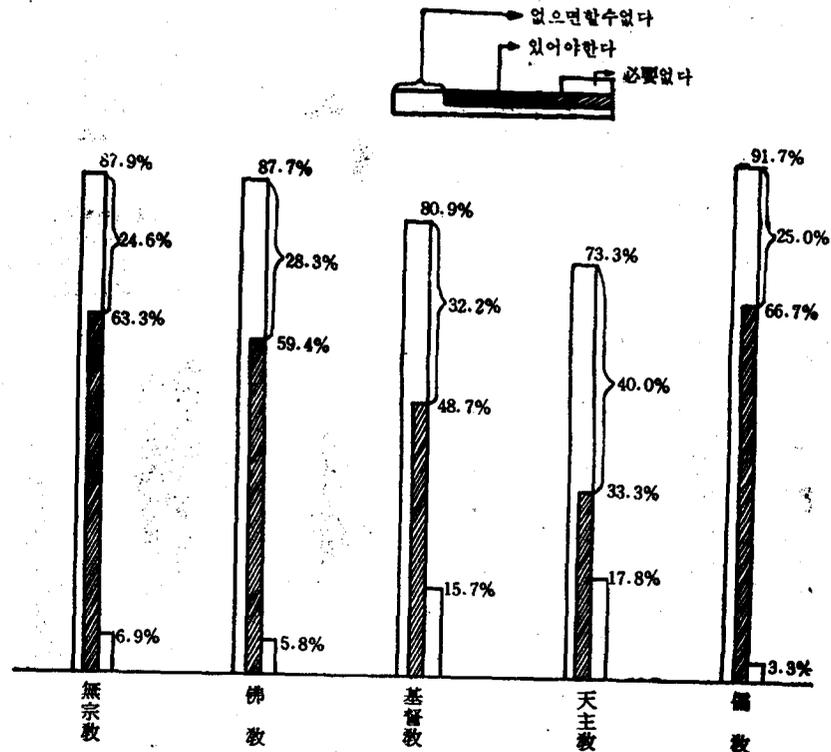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無學	한글 解得	書堂	國民校 卒	中校 卒	高校 卒	大學 卒	그以上	不明	計
있어야 한다 %	92 (74.2)	97 (68.8)	26 (86.6)	233 (70.4)	74 (52.1)	70 (42.2)	51 (36.9)	3 (37.5)	15 (88.3)	661
없으면 할 수 없다 %	13 (10.5)	24 (17.0)	4 (13.4)	61 (18.4)	55 (38.7)	65 (39.1)	66 (47.8)	3 (37.5)	2 (11.1)	293
必要 없다 %	3 (2.4)	8 (5.7)	0	22 (6.6)	11 (7.7)	24 (14.5)	16 (11.6)	1 (12.5)	0	85
其他 %	15 (12.1)	11 (7.8)	0	11 (3.3)	0	4 (2.4)	2 (1.4)	0	0	43
無應答 %	1 (0.8)	1 (0.7)	0	4 (1.2)	2 (1.4)	3 (1.8)	3 (2.1)	1 (12.5)	1 (5.5)	16
計	124	141	30	331	142	166	138	8	18	1098

「있어야 한다」는 答은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顯著히 低下하고, 反對로 「없으면 할 수 없다」는 答과 「必要없다」는 答은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많아진다.

(라) 宗教別



	無	佛 教	基 督 教	天 主 教	儒 教	天 道 教	其 他	不 明
있어야 한다 %	448 (63.3)	82 (59.4)	56 (48.7)	15 (33.3)	40 (66.7)	1 (100)	8 (44.4)	11 (84.6)
없으면 할 수 없다 %	174 (24.6)	39 (28.3)	37 (32.2)	18 (40.0)	15 (25.0)	0	8 (44.4)	2 (15.4)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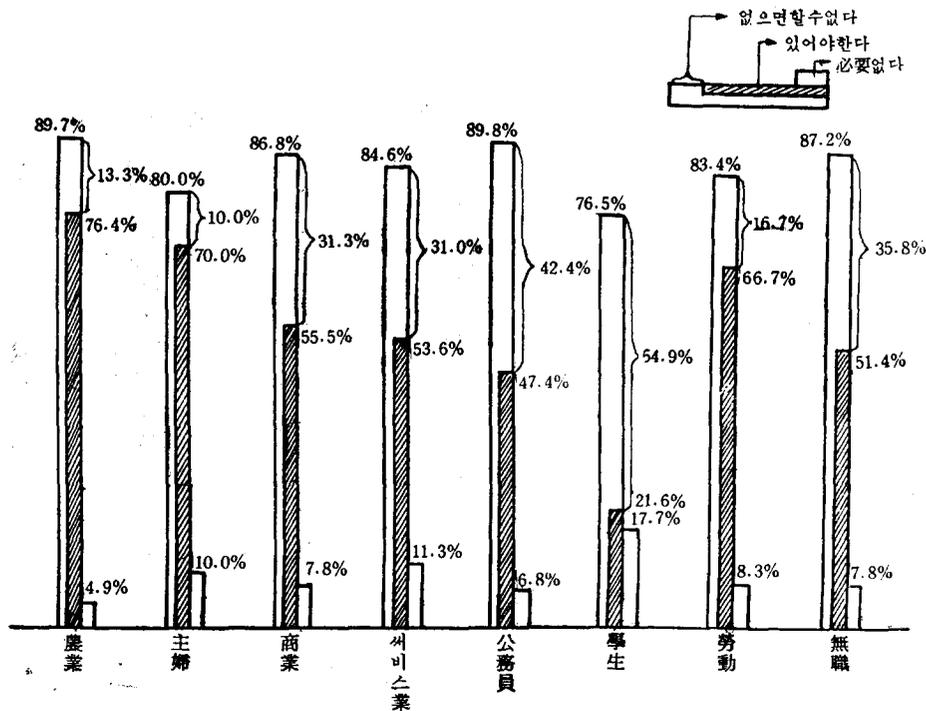
必 要 없 다	49	8	18	8	2	0	0	0
%	(6.9)	(5.8)	(15.7)	(17.8)	(3.3)			
其 他	28	6	2	3	2	0	2	0
%	(4.0)	(4.3)	(1.7)	(6.7)	(3.3)		(11.1)	
無 應 答	9	3	2	1	1	0	0	0
%	(1.3)	(2.2)	(1.7)	(2.2)	(1.6)			
計	708	138	115	45	60	1	18	13

「있어야 한다」는 答은 儒敎에 가장 많고, 다음은 無宗敎, 佛敎, 基督敎, 天主敎의 順位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順位는 大體로 「없으면 할 수 없다」와 「必要없다」의 答이 많아지는 順位이기도 하다.

(마) 職業別

	農 業	主 婦	商 業	서비스業	公 務 員	學 生	勞 動	無 職	其 他	計
있 어 야 한 다	311	7	71	38	28	11	8	152	35	661
%	(76.4)	(70.0)	(55.5)	(53.6)	(47.4)	(21.6)	(66.7)	(51.4)	(54.7)	
없 으 면 할 수 없 다	54	1	40	22	25	28	2	106	15	293
%	(13.3)	(10.0)	(31.3)	(31.0)	(42.4)	(54.9)	(16.7)	(35.8)	(23.4)	
必 要 없 다	20	1	10	8	4	9	1	23	9	85
%	(4.9)	(10.0)	(7.8)	(11.3)	(6.8)	(17.7)	(8.3)	(7.8)	(14.1)	
其 他	19	1	5	1	2	1	1	10	3	43
%	(4.7)	(10.0)	(3.9)	(1.3)	(3.4)	(1.9)	(8.3)	(3.4)	(4.7)	
無 應 答	3	0	2	2	0	2	0	5	2	16
%	(0.7)		(1.5)	(2.8)		(3.9)		(1.6)	(3.1)	
計	407	10	128	71	59	51	12	296	64	1098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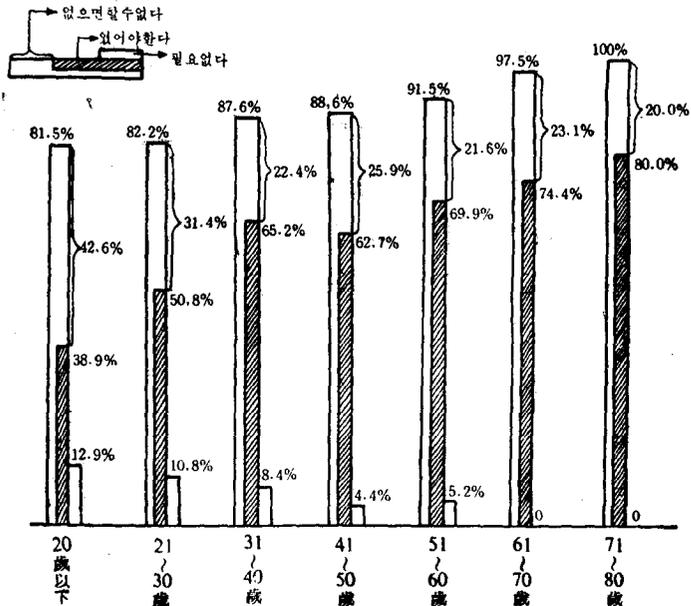
「있어야 한다」는 答가 가장 많은 것은 農業이며, 다음은 主婦, 勞動, 商業, 서비스業, 無職의 順位이며, 公務員에 있어서는 「있어야 한다」는 答이 半에 未達하며, 特히 學生에 있어서는 21.6%에 不過하다.

反對로 「없으면 할 수 없다」는 答과 「必要없다」는 答의 合計를 가지고 보면 學生이 72.6%(없으면 할 수 없다 54.9%, 必要없다 17.7%)로서 最高이고, 다음은 公務員(49.2%), 無職(43.6%), 서비스業(42.3%)의 順序이다. 反對로 農業에 있어서는 「없으면 할 수 없다」와 「必要없다」를 合하더라도 18.2%에 不過하다.

(바) 年齡別

	20以下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以上	不明	其他	計
있어야 한다 %	21 (38.9)	160 (50.8)	210 (65.2)	143 (62.7)	81 (69.9)	29 (74.4)	8 (80.0)	1 (33.3)	8 (80.0)	0	661
없으면 할 수 없다 %	23 (42.6)	99 (31.4)	72 (22.4)	59 (25.9)	25 (21.6)	9 (23.1)	2 (20.0)	2 (66.7)	2 (20.0)	0	293
必要없다 %	7 (12.9)	34 (10.8)	27 (8.4)	10 (4.4)	6 (5.2)	0	0	0	0	1 (100)	85
其他 %	1 (1.9)	18 (5.8)	10 (3.1)	11 (4.8)	2 (1.7)	1 (2.5)	0	0	0	0	43
無應答 %	2 (3.7)	4 (1.2)	3 (0.9)	5 (2.2)	2 (1.7)	0	0	0	0	0	16
計	54	315	322	228	116	39	10	3	10	1	1098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말해서 「있어야 한다」의 答과 「있어야 한다」와 「없으면 할 수 없다」를 合한 數字

資 料

即 肯定的인 答은 年齡이 많음에 따라 增加하고, 「必要없다」는 答은 年齡이 많음에 따라서 減少한다.

(사) 性 別

	있어야 한다	없으면 할수없다	必要없다	其他	無應答	計
男	404	169	52	14	6	645
%	(62.7)	(26.2)	(8.0)	(2.2)	(0.9)	
女	249	123	33	29	10	444
%	(56.1)	(27.7)	(7.4)	(6.5)	(2.3)	
不 明	8	1	0	0	0	9
%	(88.9)	(1.1)				

「있어야 한다」는 答이 男子의 경우에 女子보다 若干 많고, 「없으면 할수 없다」는 答은 女子편이 若干 더 많다.

(아) 生活程度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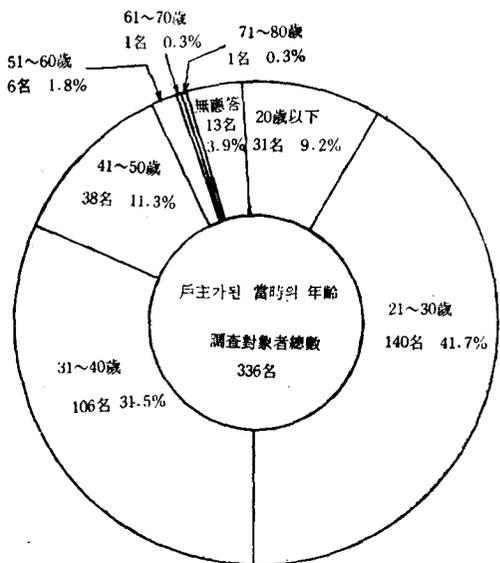
	있어야 한다	없으면 할수없다	必要없다	其他	無應答	計
上	6	10	1	19	1	37
%	(16.2)	(27.0)	(2.7)	(51.4)	(2.7)	
中	332	185	59	24	10	610
%	(54.4)	(30.3)	(9.7)	(3.9)	(1.7)	
下	309	94	25	0	5	433
%	(71.4)	(21.7)	(5.8)		(1.1)	
不 明	14	4	0	0	0	18
%	(77.8)	(22.2)				

「있어야 한다」는 答이 下流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顯著하다. 그리고 여기서 特異한 事實은 上流에 있어서, 「있어야 한다」는 答이 적어지는만큼 「없으면 할 수 없다」와 「必要없다」의 答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其他」의 答이 대단히 많은 數字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其他」의 答의 內容은 밝혀서 統計를 잡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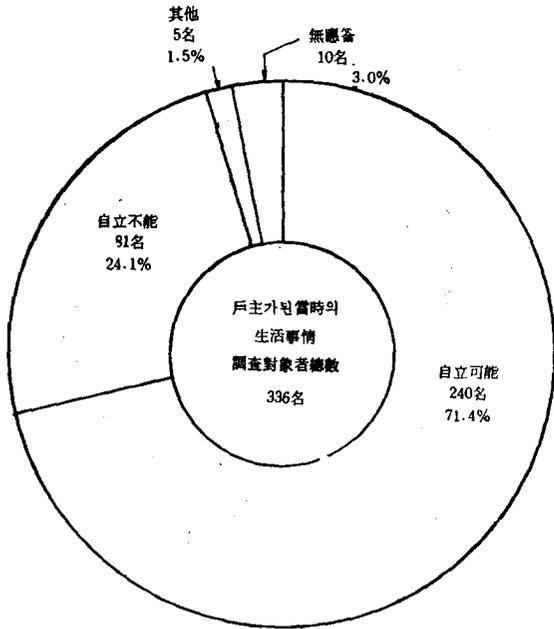
(2) 戶主가 된 當時의 年齡—언제 戶主가 되었습니까? (第6問)

이 물음에 대한 答의 總括的集計는 右表와 같다.

즉 20歲以下가 9.2%, 21歲로부터 50歲까지가 84.5%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3) 戶主가 된 當時의 生活事情—
戶主가 되었던 當時의 生活事情은 어
떠하였습니까? (第8問)

이 물음에 대한 答의 總括的集計는 左
表와 같다.

즉 71.4%는 自立할 수 있었고, 自立
할 수 없었다는 答은 24.1%이다.

이 答을 出生地別로 보면 다음과 같
다.

出 生 地	自 立 할 수 있 었 다	自 立 할 수 없 었 다	其 他	無 應 答	計
道 內	134 (69.8)	48 (25.0)	3 (11.6)	7 (3.6)	192
道 南	60 (70.6)	23 (27.0)	1 (1.2)	1 (1.2)	85
道 北	23 (67.5)	9 (26.5)	1 (3.0)	1 (3.0)	34
其 他	21 (95.5)	0	0	1 (4.5)	22
不 明	1 (100)	0	0	0	1
	1 (50.0)	1 (50.0)	0	0	2

2. 序列尊重

(1) 家族中에 윗어른이 한분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28問)

(가) 總 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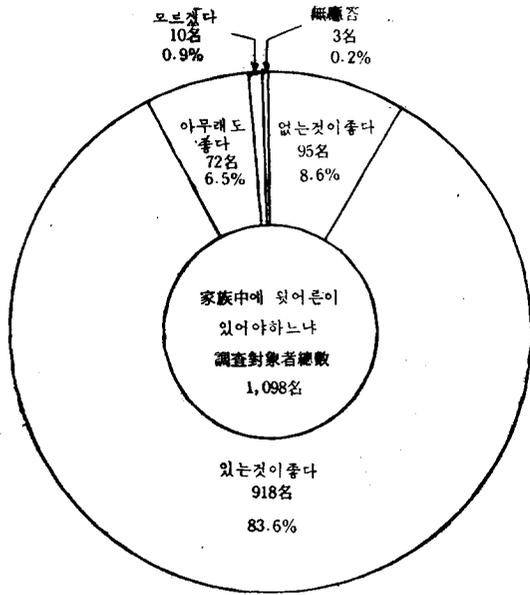
이 물름에 대한 總括的集計는 다음 페—지의 圖表와 같다.

즉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83.6%로 絕對的多數이며, 祭祀를 차려야 한다는 意見
(72.2%) 보다 더 많다.

이 答을 「祭祀는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答과 關聯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祭 祀	윗어른 없 는 것이 좋 다	있 는 것이 좋 다	아 무 래 도 좋 다	모 르 겠 다	無 應 答	計
차 려 야 한 다	64 (8.1)	681 (85.9)	38 (4.7)	8 (1.0)	2 (0.2)	793
아 니 다	15 (10.3)	116 (80.0)	14 (9.6)	0	0	145

	費		料			
아무래도 좋다 %	12 (9.3)	98 (76.5)	18 (14.0)	0	0	128
모르겠다 %	2 (8.3)	18 (75.0)	1 (4.1)	2 (8.3)	1 (4.1)	24
無應答 %	2 (25.0)	5 (62.5)	1 (12.5)	0	0	8
計	95	918	72	10	3	1098



「있는 것이 좋다」는 답은 祭祀는 차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많고, 「없는 것이 좋다」는 답은 祭祀의 必要性을 否定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많고, 「아무래도 좋다」는 답은 祭祀에 관하여 同一한 답을 한 사람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은 事實이지만, 兩者가 大體로 符合(祭祀에 관한 답에서 肯定이면 本問에서도 肯定이라는 式으로)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오히려 本問에 대한 답은 祭祀에 관한 답과는 거의 無關係하게 — 換言하면 祭祀에 관한 답이 무엇이었느냐를 不問하고 本問에 대한 답은 大體로 비슷한 比率로 — 나타나고 있다.

(나) 家族의 立場別

	없는데 좋다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戶主	41 (12.2)	274 (81.5)	18 (5.4)	3 (0.9)	0	336
戶主의 妻	19 (7.2)	226 (85.3)	15 (5.7)	4 (1.4)	1 (0.4)	265
戶主의 長男	21 (9.1)	191 (83.0)	17 (7.5)	0	1 (0.4)	230
其他	13 (5.0)	226 (85.3)	22 (8.3)	3 (1.1)	1 (0.4)	265
不明	1 (50.0)	1 (50.0)	0	0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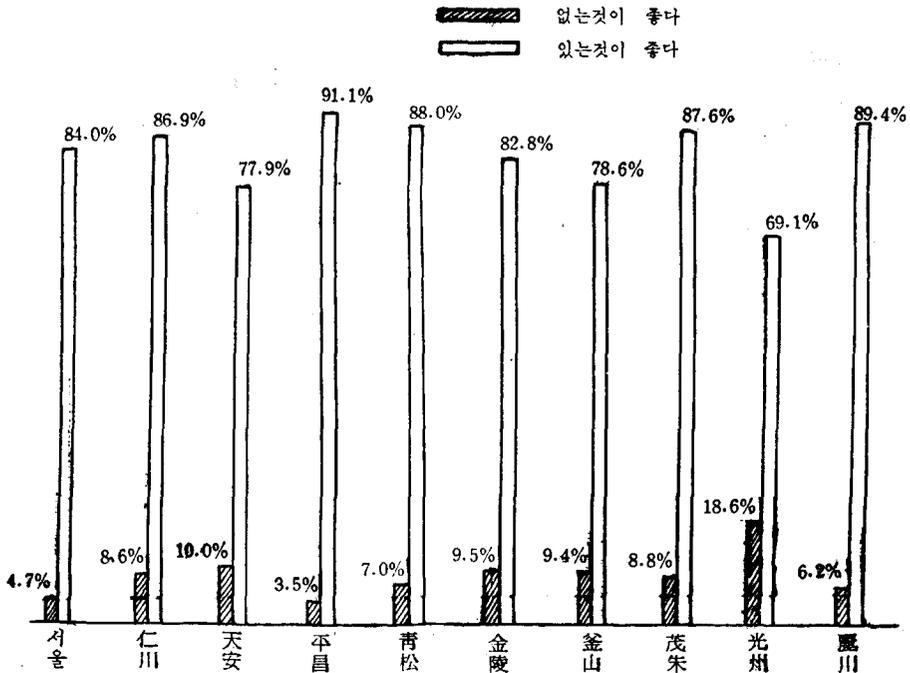
戶主に 있어서 「있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가장 적고, 「없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가장 많은 것은 注目할만 한 일이다.

(다) 地域別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없는것이 좋다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서울	%	5 (4.7)	89 (84.0)	12 (11.3)	0	0	106
仁川	%	10 (8.6)	100 (86.9)	5 (4.3)	0	0	115
天安	%	11 (10.0)	85 (77.9)	11 (10.0)	1 (0.9)	1 (0.9)	109
平昌	%	4 (3.5)	103 (91.1)	5 (4.4)	1 (0.9)	0	113
靑松	%	7 (7.0)	88 (88.0)	3 (3.0)	2 (2.0)	0	100
金陵	%	10 (9.5)	87 (82.8)	7 (6.6)	1 (0.9)	0	105
釜山	%	11 (9.4)	92 (78.6)	12 (10.2)	1 (0.8)	1 (0.8)	117
茂朱	%	10 (8.8)	99 (87.6)	2 (1.7)	2 (1.7)	0	113
光州	%	20 (18.6)	74 (69.1)	12 (11.2)	1 (0.9)	0	107
麗川	%	7 (6.2)	101 (89.4)	3 (2.6)	1 (0.9)	1 (0.9)	113

「없는 것이 좋다」와 「있는 것이 좋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平昌이고, 다음은 麗川, 靑松, 茂朱, 仁川의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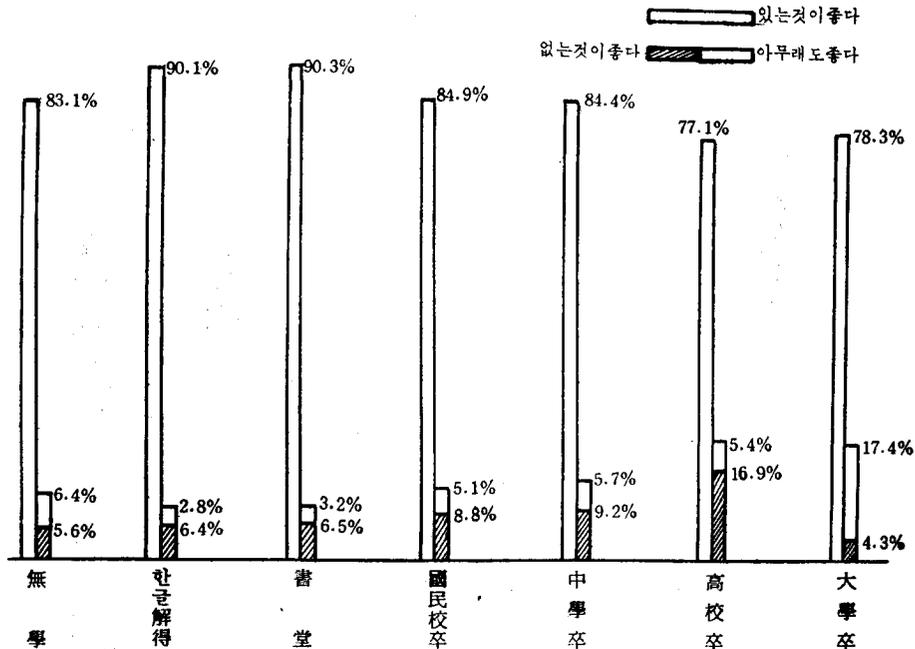
資 料

序이다. 이 쪽이 가장 적은 것은 光州이고 다음은 天安이다. 그리고 「있는 것이 좋다」는 쪽이 적은 곳일수록 「없는 것이 좋다」는 쪽이 많다. 이것으로 보건대, 이 數字의 多寡는 반드시 都市와 農村에 따라서 어떤 一定한 傾向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學歷別

	없는 것이 좋다	있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無	7 (5.6)	103 (83.1)	8 (0.4)	6 (4.8)	0	124
한글 解得 %	9 (6.4)	127 (90.1)	4 (2.8)	1 (0.7)	0	141
書堂 %	2 (6.5)	28 (90.3)	1 (3.2)	0	0	31
國民校卒 %	29 (8.8)	281 (84.9)	17 (5.1)	2 (0.6)	2 (0.6)	331
中校卒 %	13 (9.2)	119 (84.4)	8 (5.7)	1 (0.7)	0	141
高校卒 %	28 (16.9)	128 (77.1)	9 (5.4)	0	1 (0.6)	166
大學卒 %	6 (4.3)	108 (78.3)	24 (17.4)	0	0	138
그 以上 %	0	8 (100)	0	0	0	8
其他 %	1 (5.5)	16 (88.9)	1 (5.5)	0	0	18

처음의 세 가지 쪽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있는 것이 좋다」는 쪽은 한글 解得者와 書堂出身者에 가장 많고, 國民校卒과 中校卒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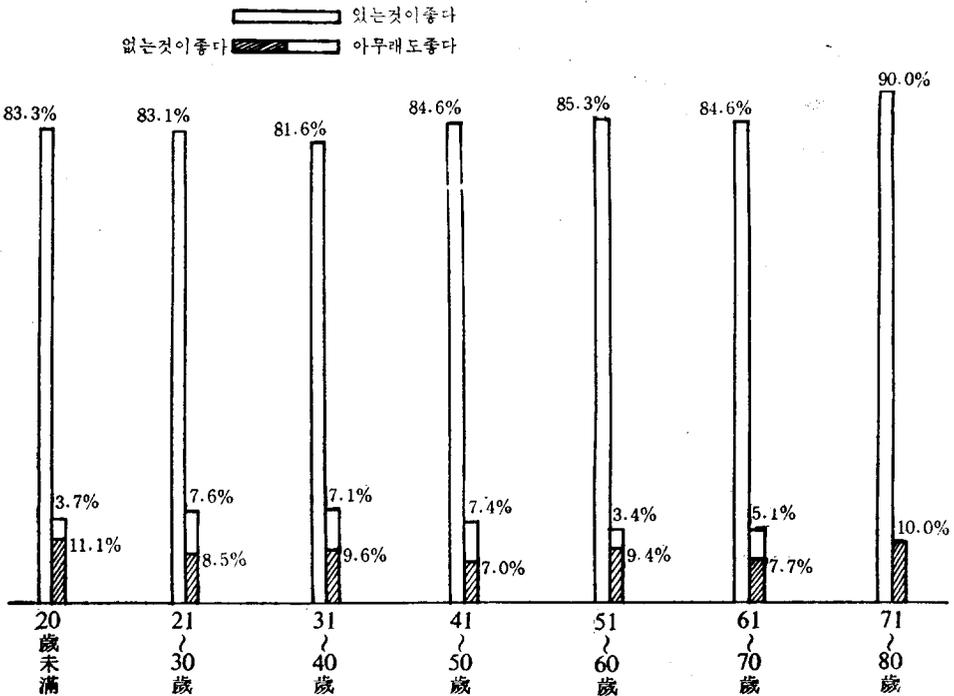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에 다음가며, 高校卒과 大學卒에 있어서는 이보다 減少된다. 이와 反對로 「없는 것이 좋다」는 答은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漸次로 많아지는데, 다만 大學卒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 좋다」는 많지 않으나 「아무래도 좋다」는 答이 越等하게 많다.

(마) 年齡別

	없는것이 좋다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20未滿 %	6 (11.1)	45 (83.3)	2 (3.7)	1 (1.8)	0	54
21~30 %	27 (8.5)	262 (83.1)	24 (7.6)	1 (0.3)	1 (0.3)	315
31~40 %	31 (9.6)	263 (81.6)	23 (7.1)	4 (1.2)	1 (0.3)	322
41~50 %	16 (7.0)	193 (84.6)	17 (7.4)	1 (0.4)	1 (0.4)	228
51~60 %	11 (9.4)	99 (85.3)	4 (3.4)	2 (1.7)	0	116
61~70 %	3 (7.7)	33 (84.6)	2 (5.1)	1 (2.6)	0	39
71~80 %	1 (10.0)	9 (90.0)	0	0	0	10
80以上 %	0	3 (100)	0	0	0	3
不明 %	0	11 (100)	0	0	0	11

처음의 세 가지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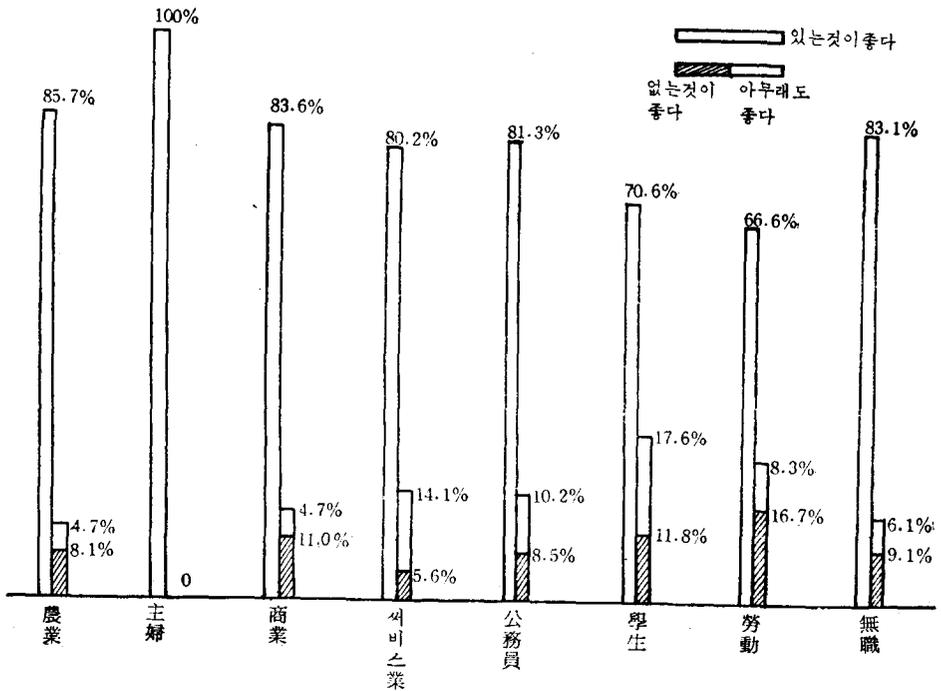
資 料

大體로 말해서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은 年齡이 많음에 따라 若干 많아진다. 「없는 것이 좋다」와 「아무래도 좋다」는 年齡에 따라서 一定한 傾向을 나타내는 것이 別로 없다.

(바) 職業別

	없는것이 좋다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農 業	33 (8.1)	349 (85.7)	19 (4.7)	4 (1.0)	2 (0.5)	407
主 婦	0	10 (100)	0	0	0	10
商 業	14 (11.0)	107 (83.6)	6 (4.7)	1 (0.7)	0	128
서비스業	4 (5.6)	57 (80.2)	10 (14.1)	0	0	71
公務員	5 (8.5)	48 (81.3)	6 (10.2)	0	0	59
學 生	6 (11.8)	36 (70.6)	9 (17.6)	0	0	51
勞 動	2 (16.7)	8 (66.6)	1 (8.3)	1 (8.3)	0	12
無 職	27 (9.1)	246 (83.1)	18 (6.1)	4 (1.3)	1 (0.3)	296
其 他	4 (6.2)	57 (89.0)	3 (4.7)	0	0	64

처음의 세 가지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主婦는 全部가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고,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가장 적은것은 勞動, 다음이 學生이며, 勞動과 學生에 있어서는 「없는 것이 좋다」는 答이 다른 職業에 있어서 보다 많다.

(사) 性別

	없는것이 좋다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男	67	528	47	2	1	645
%	(10.4)	(81.8)	(7.3)	(0.3)	(0.2)	
女	28	381	25	8	2	444
%	(6.3)	(85.8)	(5.6)	(1.8)	(0.4)	
不明	0	9	0	0	0	9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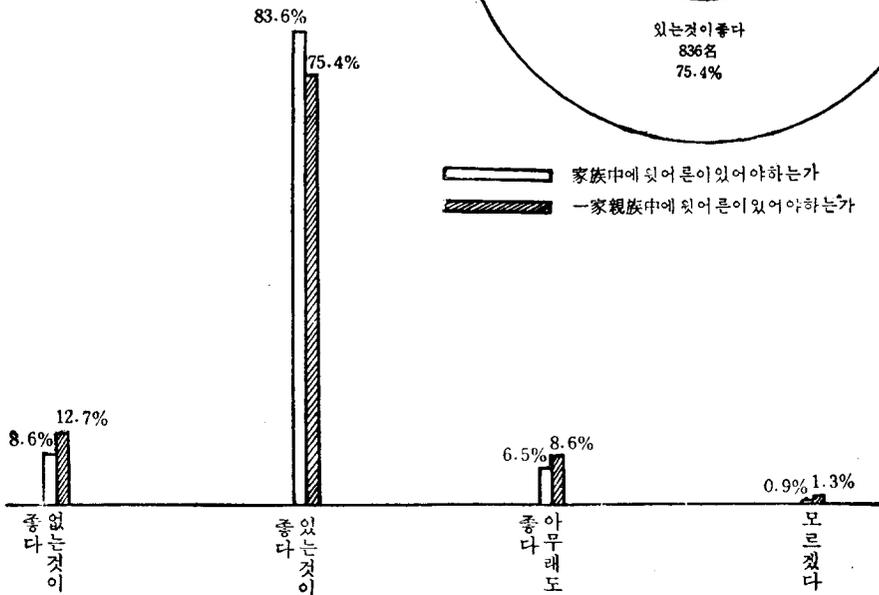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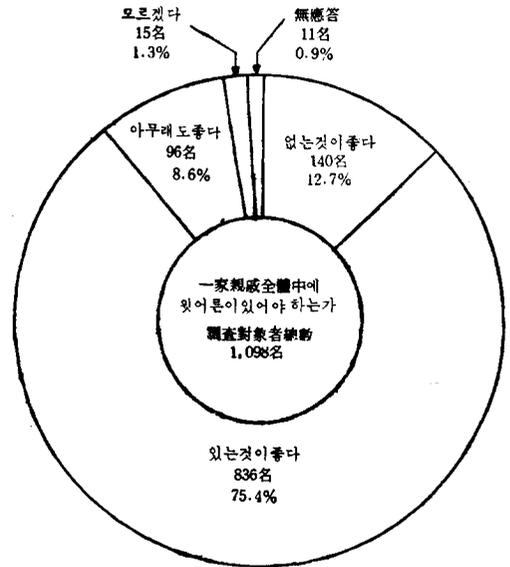
女子에 있어서는 男子보다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더욱 많고, 「없는 것이 좋다」와 「아무래도 좋다」는 答은 男子보다 적다.

(2) 一家 親戚 全體 中에서 윗어른이 한 분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29問)

(가) 總括

右의 그래프와 같다.

이 答을 前問에 대한 答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資 料

「있는 것이 좋다」는 답은 前問에 있어서보다 적고, 反對로 「없는 것이 좋다」와 「아무래도 좋다」는 前問에 있어서 보다 많다. 卽 一家 親戚 全體의 統率者의 必要性을 느끼는 程度는 一家族의 경우보다 弱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그래도 75.4%가 「있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은 一家 親族 全體를 하나의 團體로 생각하는 思想이 아직도 相當히 强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祭祀는 차려야 하느냐」에 대한 답과 關聯시켜서 보면 다음과 같은데, 兩問에 대한 답 相互間의 關係는, 上問에서 말한 바와 같다.

있어 祭祀	없는것이 좋다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차려야 한다 %	88 (11.1)	635 (80.1)	54 (6.8)	9 (11.3)	7 (8.8)	793
아니다 %	27 (18.6)	98 (67.5)	20 (13.8)	0	0	145
아무래도 좋다 %	23 (17.9)	79 (61.7)	21 (16.4)	3 (2.3)	2 (1.5)	128
모르겠다 %	2 (8.3)	17 (7.0)	1 (4.2)	3 (12.5)	1 (4.2)	24
無應答 %	0	7 (87.5)	0	0	1 (12.5)	8

(나) 地域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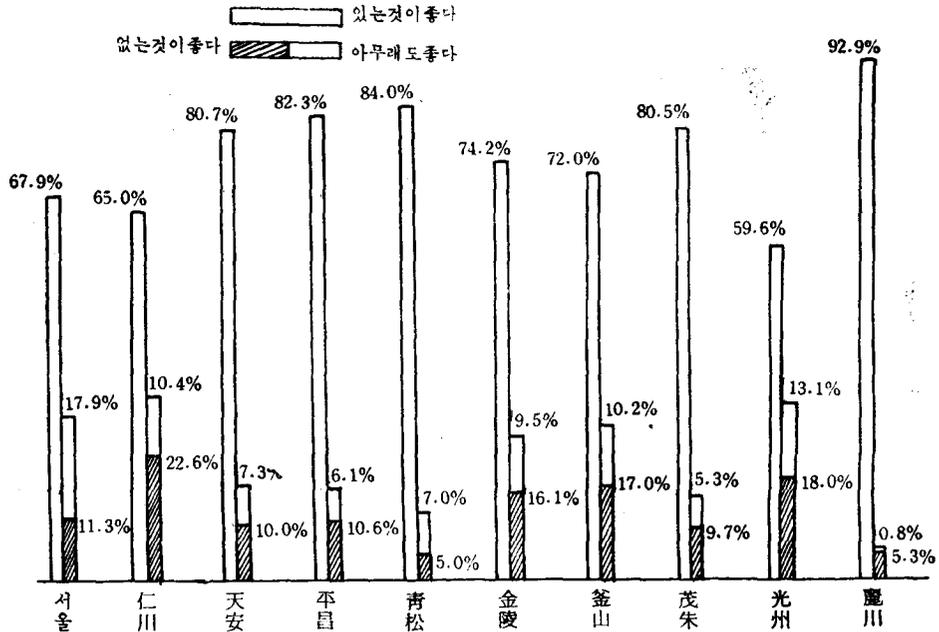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없는것이 좋다 %	12 (11.3)	26 (22.6)	11 (10.0)	12 (10.6)	5 (5.0)	17 (16.1)	20 (17.0)	11 (9.7)	20 (18.0)	6 (5.3)	140
있는것이 좋다 %	72 (67.9)	75 (65.0)	88 (80.7)	93 (82.3)	84 (84.0)	78 (74.2)	84 (72.0)	91 (80.5)	66 (59.6)	105 (92.9)	836
아무래도 좋다 %	19 (17.9)	12 (10.4)	8 (7.3)	7 (6.1)	7 (7.0)	10 (9.5)	12 (10.2)	6 (5.3)	14 (13.1)	1 (0.8)	96
모르 겠다 %	0	1 (0.8)	1 (0.9)	0	4 (4.0)	0	0	4 (3.5)	4 (3.7)	1 (0.8)	15
無應 答 %	3 (2.8)	1 (0.8)	1 (0.9)	1 (0.8)	0	0	1 (0.8)	1 (0.8)	3 (2.8)	0	11
計	106	115	109	113	100	105	117	113	107	113	1098

처음의 세가지 답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있는 것이 좋다」는 답이 가장 많은 곳은 麗川이며, 다음은 靑松, 平昌, 天安, 茂朱의 順序이다. 反對로 「있는 것이 좋다」는 답이 가장 적은 것은 光州이며, 다음은 仁川, 서울의 順序이다. 卽 大體로 말해서 都市에서는 「있는 것이 좋다」는 답이 적다.

「없는 것이 좋다」는 답은 大體로는 「있는 것이 좋다」는 답에 反比例한다. 「없는 것이 좋다」는 답이 가장 많은 곳은 仁川이며, 다음은 光州, 釜山, 金陵의 順序이다. 이 답이 가장 적은 곳은 靑松과 麗川이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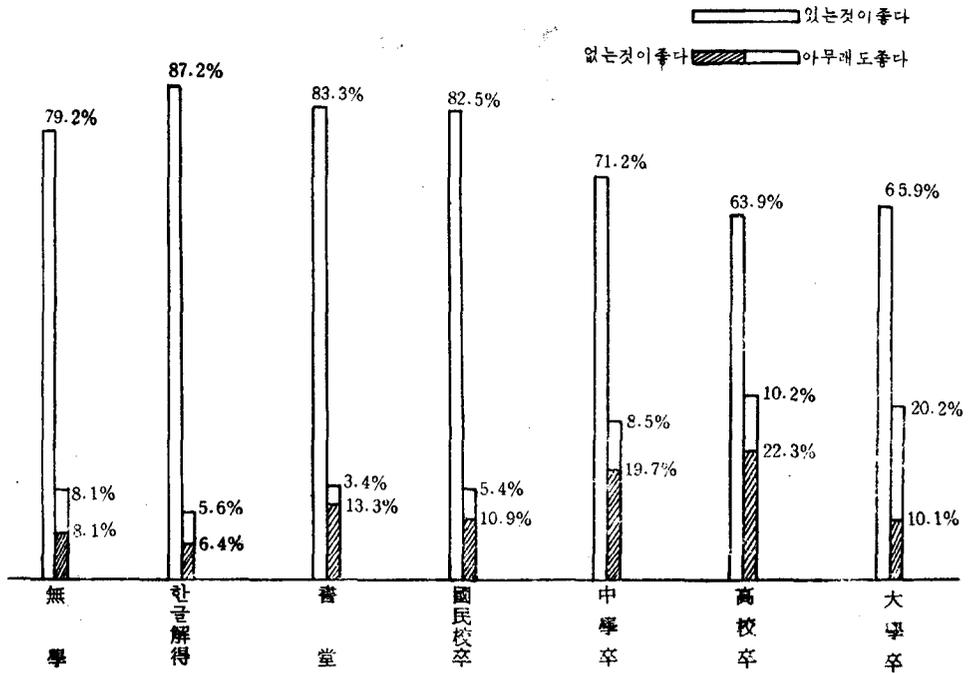
(다) 學歷別

	無學	한글解得	書堂	國民校卒	中校卒	高校卒	大學卒	그以上	不明
있는 것이 좋다	10	9	4	36	28	37	14	0	2
%	(8.1)	(6.4)	(13.3)	(10.9)	(19.7)	(22.3)	(10.1)		(11.1)
있는 것이 좋다	98	123	25	273	101	106	91	7	12
%	(79.2)	(87.2)	(83.3)	(82.5)	(71.2)	(63.9)	(65.9)	(87.5)	(66.6)
아무래도 좋다	10	8	1	18	12	17	28	1	1
%	(8.1)	(5.6)	(3.4)	(5.4)	(8.5)	(10.2)	(20.2)	(12.5)	(5.5)
모 르 겠 다	6	1	0	2	1	1	3	0	1
%	(4.8)	(0.7)		(0.6)	(0.7)	(0.6)	(2.2)		(5.5)
無 應 答	0	0	0	2	0	5	2	0	2
%				(0.6)		(3.0)	(1.4)		(11.1)
計	124	141	30	331	142	166	138	8	18

처음의 세 가지 답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大體로 말해서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은 적어지고 「없는 것이 좋다」는 答이 많아진다.

資 料



(라) 年齡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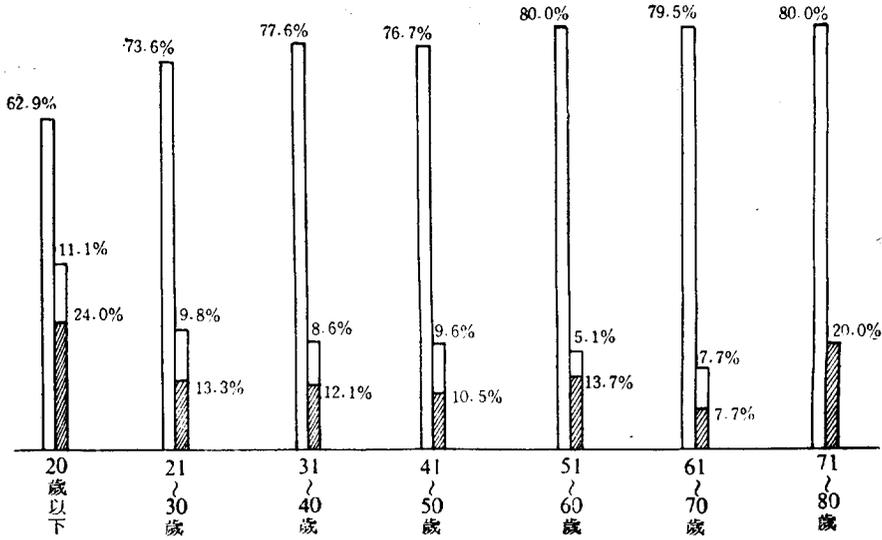
	있는것이 좋다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20歲未滿 %	13 (24.0)	24 (62.9)	6 (11.1)	1 (1.8)	0	54
21~30 %	42 (13.3)	232 (73.6)	31 (9.8)	5 (1.5)	5 (1.5)	315
31~40 %	39 (12.1)	250 (77.6)	28 (8.6)	4 (1.2)	1 (0.3)	322
41~50 %	24 (10.5)	175 (76.7)	22 (9.6)	3 (1.3)	4 (1.7)	228
51~60 %	16 (13.7)	93 (80.0)	6 (5.1)	1 (0.8)	0	116
61~70 %	3 (7.7)	31 (79.5)	3 (7.7)	1 (2.5)	1 (2.5)	39
71~80 %	2 (20.0)	8 (80.0)	0	0	0	10
81以上 %	0	3 (100)	0	0	0	3
不 明 %	1 (9.1)	10 (90.9)	0	0	0	11

처음의 세 가지 답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年齡이 적을 수록 「있는 것이 좋다」는 답이 若干 줄고, 「없는 것이 좋다」는 답이 많아진다. 다만 71~80歲에 있어서 없는 것이 좋다는 답이 相當히 많은 것은 좀 特異하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있는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없는것이 좋다



(마) 職業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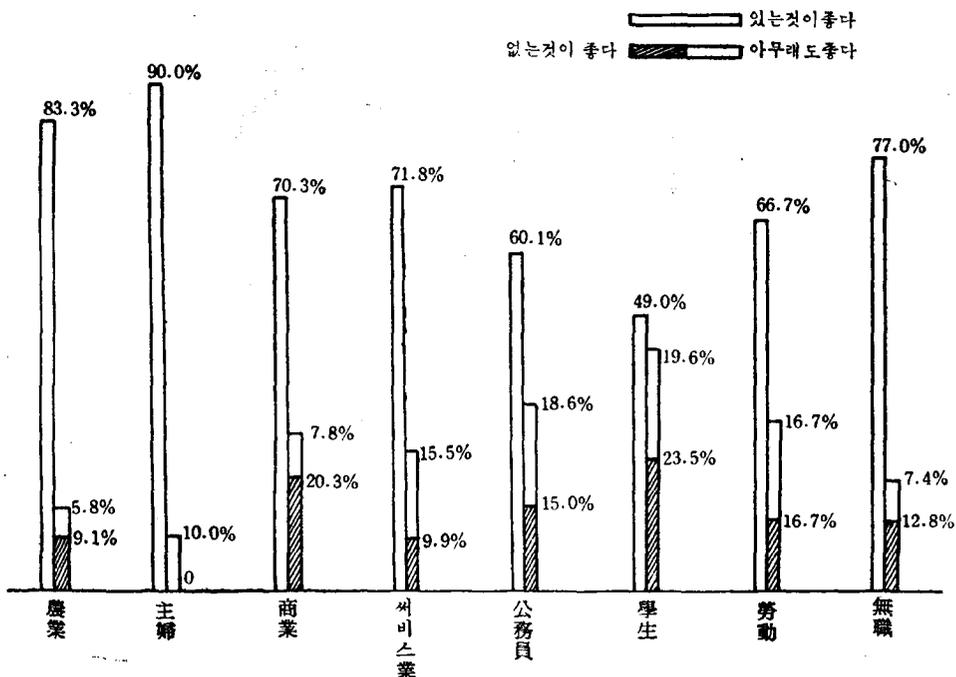
職業	없는것이 좋다 (%)	있는것이 좋다 (%)	아무래도 좋다 (%)	모르겠다	無應答	計
農 業 %	37 (9.1)	339 (83.3)	24 (5.8)	6 (1.4)	1 (0.2)	407
主 婦 %	0	9 (90.0)	1 (10.0)	0	0	10
商 業 %	26 (20.3)	90 (70.3)	10 (7.8)	1 (0.8)	1 (0.8)	128
서비스 業 %	7 (9.9)	51 (71.8)	11 (15.5)	1 (1.4)	1 (1.4)	71
公 務 員 %	9 (15.0)	36 (60.1)	11 (18.6)	2 (3.3)	1 (1.6)	59
學 生 %	12 (23.5)	25 (49.0)	10 (19.6)	2 (3.9)	2 (3.9)	51
勞 動 %	2 (16.7)	8 (66.7)	2 (16.7)	0	0	12
無 職 %	38 (12.8)	228 (77.0)	22 (7.4)	3 (1.0)	5 (1.7)	296
其 他 %	9 (14.1)	50 (78.1)	5 (7.8)	0	0	64

처음의 세 가지 답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과 같다.

職業別로 본 答의 傾向도 大體로 前問에 있어서와 같다. 즉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最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主婦이고, 다음이 農業이다. 反對로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가장 적은 것은 學生이고, 다음이 公務員, 勞動의 順序이다.

「없는 것이 좋다」는 答은 大體로 「있는 것이 좋다」는 答에 反比例하지만, 商業에 있어서 는 그 以上으로 「없는 것이 좋다」는 答이 많다. 즉 「없는 것이 좋다」는 答은 學生에 가장

資 料



많고, 그 다음이 商業으로 되어 있다.

(바) 性別

	있는 것이 좋다	있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男	89	467	66	7	7	645
%	(13.8)	(73.8)	(10.2)	(1.1)	(1.1)	
女	50	352	30	8	4	444
%	(11.2)	(79.3)	(6.7)	(1.8)	(0.9)	
不明	1	8	0	0	0	9
%	(11.1)	(88.9)				

女子의 경우에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男子보다 많고, 反對로 「없는 것이 좋다」와 「아무래도 좋다」는 答이 男子보다 적은 것은 前問에 있어서와 같다.

(3) 行列(항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까?(第35問)

이 물음에 대한 答의 總括的集計는 다음 페이지 오른편 그래프와 같다.

즉 過半數가 行列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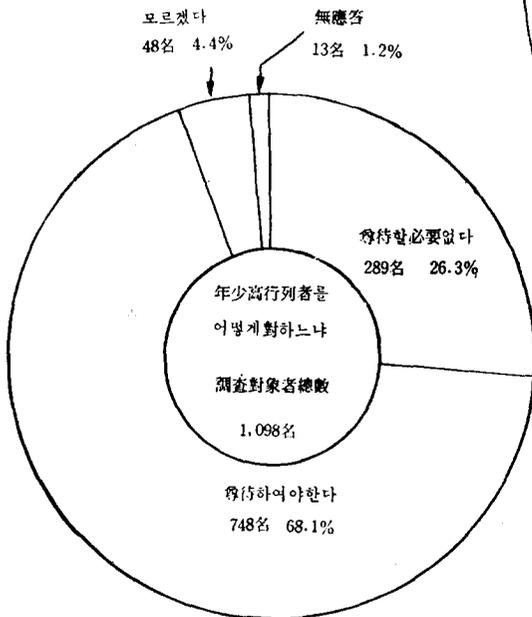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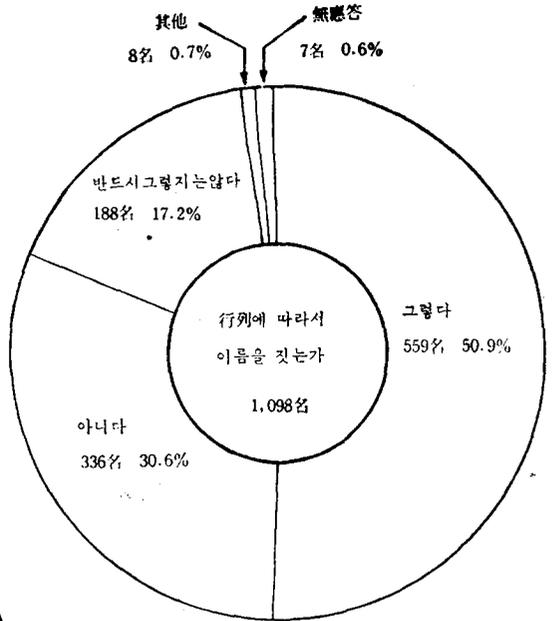
이것을 生出地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出 生 地	그 령 다	아 니 다	반 드 시 그 령 지 는 않 다	其 他	無 應 答	計
調 查 地 域 內	209	158	141	7	7	522
%	(40.0)	(30.3)	(27.1)	(1.3)	(1.3)	
道 內	172	136	33	0	0	341
%	(50.4)	(39.9)	(9.7)			
以 南	109	29	7	0	0	145
%	(75.2)	(20.0)	(4.8)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以	北	57	7	4	0	0	68
%		(83.8)	(10.3)	(5.9)			
其	他	10	5	3	1	0	19
%		(52.6)	(26.3)	(15.8)	(5.3)		
不	明	2	1	0	0	0	3
%		(66.7)	(33.3)				

調査地와 그 調査地가 屬하는 道는 各 各 다르므로 그 集計는 別로 큰 意味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겠다. 다만 以南 出身과 以北 出身을 比較할 때 以北 出身者의 경우에 「그렇다」의 答이 顯著히 많은 것은 注目할만 하다.



(4) 나이가 同輩 또는 손아래이면서 行列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36問)

(가) 總括

이 물음에 대한 總括的 集計는 左表와 같다.

(나) 家族의 立場別

	尊待할 必要없다	尊待해야 한다	모르겠다	無應答	計
戶主	93 (28.0)	227 (67.2)	12 (3.6)	4 (1.2)	336
戶主의 妻	49 (19.0)	200 (75.0)	10 (3.8)	6 (2.2)	265
戶主의 長男	64 (27.8)	155 (67.7)	10 (4.5)	1 (0.5)	230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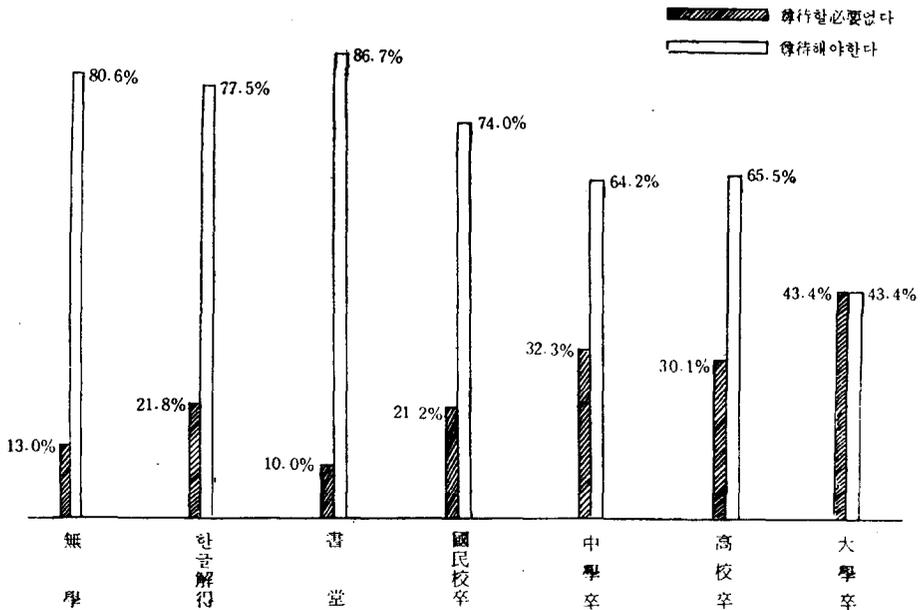
其他家族	82	166	15	2	265
%	(31.0)	(62.8)	(5.5)	(0.7)	
不明	1	0	1	0	2
%	(50.0)		(50.0)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戶主의 妻에 있어서 가장 많고, 其他家族에 있어서 가장 적으며, 戶主와 戶主의 長男은 거의 같다.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은 이와 正反對로 其他家族에 있어서 가장 많고, 戶主의 妻에 있어서 가장 적으며, 戶主와 戶主의 長男은 亦是 거의 같다.

(다) 學歷別

	無學	한글解得	書堂	國民校卒	中校卒	高校卒	大學卒	그以上	不明
尊待할 必要없다	16	31	3	70	46	51	60	5	7
%	(13.0)	(21.8)	(10.0)	(21.2)	(32.3)	(30.1)	(43.4)	(62.5)	(39.0)
尊待해야 한다	100	109	26	245	91	106	60	3	8
%	(80.6)	(77.5)	(86.7)	(74.0)	(64.2)	(65.5)	(43.4)	(27.5)	(44.5)
모르겠다	7	1	0	14	5	7	13	0	1
%	(5.6)	(0.7)		(4.2)	(3.5)	(4.3)	(9.5)		(5.5)
無應答	1	0	1	2	0	2	5	0	2
%	(0.8)		(3.3)	(0.6)		(0.1)	(2.7)		(11.0)
計	124	141	30	331	142	166	138	8	18

이 中 「尊待할 必要없다」와 「尊待해야 한다」를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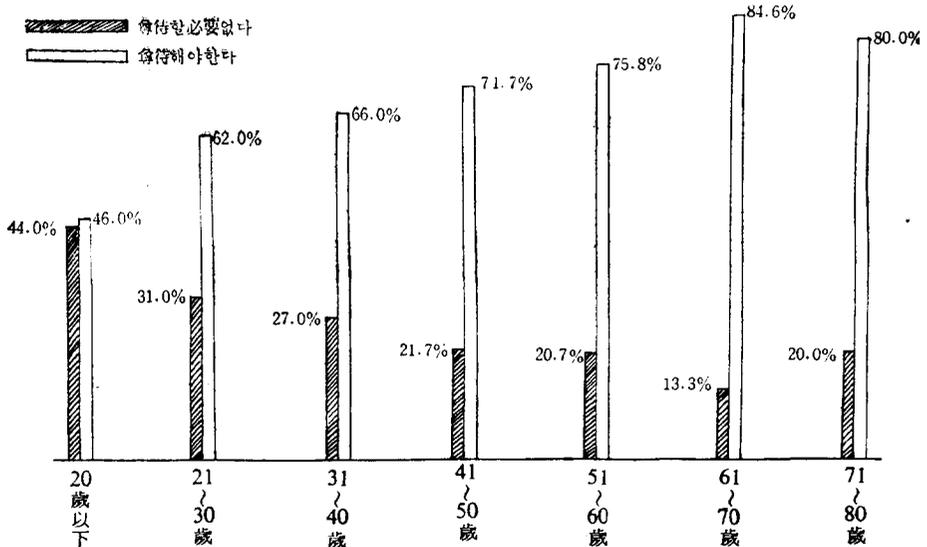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顯著히 減少되고, 反對로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이 增加하여 大學出身者에 있어서는 두 答이 꼭 同數이고, 그 以上에 있어서는 거꾸로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이 많아진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라) 年齡別

	20歲以下	21~30歲	31~40歲	41~50歲	51~60歲	61~70歲	71~80歲	81歲以上	不明
尊待할必要없다 %	24 (44.0)	100 (31.0)	88 (27.0)	46 (21.7)	23 (20.7)	4 (13.3)	2 (20.0)	0	2 (18.2)
尊待해야 한다 %	25 (46.0)	197 (62.0)	215 (66.0)	171 (71.7)	89 (75.8)	33 (84.6)	8 (80.0)	3 (100)	7 (63.6)
모르겠다 %	4 (7.0)	16 (5.0)	16 (5.0)	7 (3.2)	4 (3.5)	1 (3.0)	0	0	0
無應答 %	1 (3.0)	2 (2.0)	3 (2.0)	4 (1.8)	0	1 (3.0)	0	0	2 (18.2)
計	54	315	322	228	116	39	10	3	11

「尊待할 必要없다」와 「尊待해야 한다」는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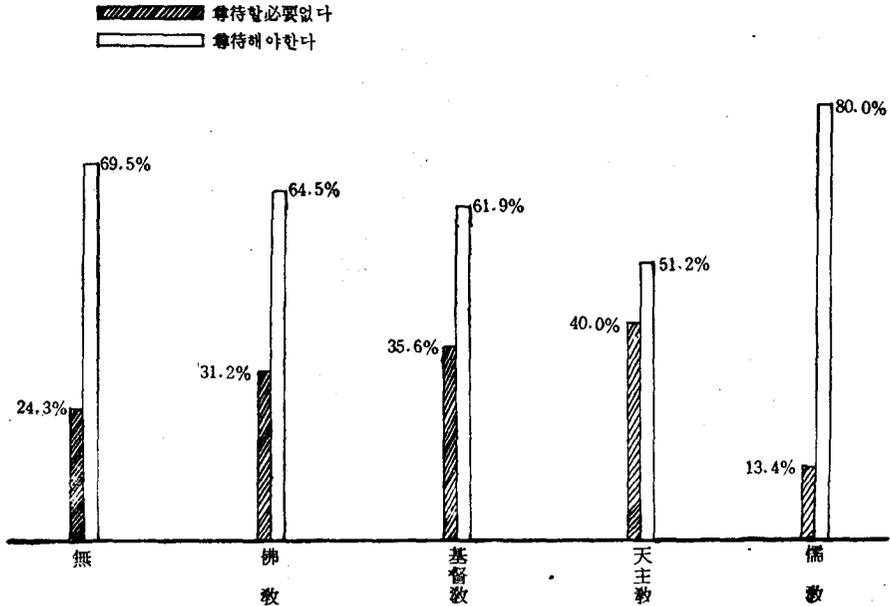
70代에서 若干의 變則의 數字를 나타내고 있지만, 大體로 말해서, 年齡이 적을 수록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減少하고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이 增加한다.

(마) 宗教別

	無	佛 教	基 督 教	天 主 教	儒 教	天 道 教	其 他	不 明
尊待할必要없다 %	172 (24.3)	43 (31.2)	41 (35.6)	18 (40.0)	8 (13.4)	0	5 (27.7)	2 (15.4)
尊待해야 한다 %	495 (69.5)	89 (64.5)	71 (61.9)	23 (51.2)	48 (80.0)	0	12 (66.6)	10 (77.0)
모르겠다 %	32 (4.5)	6 (4.3)	3 (2.5)	3 (6.6)	3 (5.0)	0	1 (5.7)	0
無應答 %	9 (1.7)	0	0	1 (2.2)	1 (1.6)	1 (100)	0	1 (7.6)
計	708	138	115	45	60	1	18	13

資 料

「尊待할 必要없다」와 「尊待해야 한다」는 答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가장 많고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이 가장 적은 것은 儒敎이고, 反對로 前者의 答이 가장 적고 後者의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天主教, 그 다음이 基督教이다. 다른 물음에 있어서는 儒敎와 佛敎는 그다지 큰 差異를 보이지 않았으나 本問에 있어서는 差異가 比較的 크다.

(바) 性 別

	尊待할 必要없다	尊待해야 한다	모 르 겠 다	無 應 答	計
男	186	430	25	4	645
%	(28.7)	(65.6)	(3.9)	(1.8)	
女	101	312	25	8	444
%	(22.6)	(70.3)	(5.2)	(1.8)	
不 明	2	6	0	1	9
%	(22.3)	(66.7)		(11.0)	

「尊待해야 한다」는 答은 女子에 많고,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은 女子에 적다. 위의 두 물음에 있어서와 같이, 女子가 男子보다 過去의 傳統을 尊重하는 傾向이 若干 더 강한 것 같다.

(사) 生活程度

	尊待할 必要없다	尊待해야 한다	모 르 겠 다	無 應 答	計
上	10	26	1	0	37
%	(25.5)	(71.5)	(3.0)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中	179	398	25	3	610
%	(28.1)	(66.3)	(4.3)	(1.3)	
下	96	311	22	4	433
%	(22.1)	(72.1)	(4.1)	(1.7)	
不	4	13	0	1	18
% 明	(22.5)	(72.6)		(4.9)	

中流에 있어서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가장 적고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이 가장 많다.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가장 많고 「尊待할 必要없다」는 答이 가장 적은 것은 下流에 있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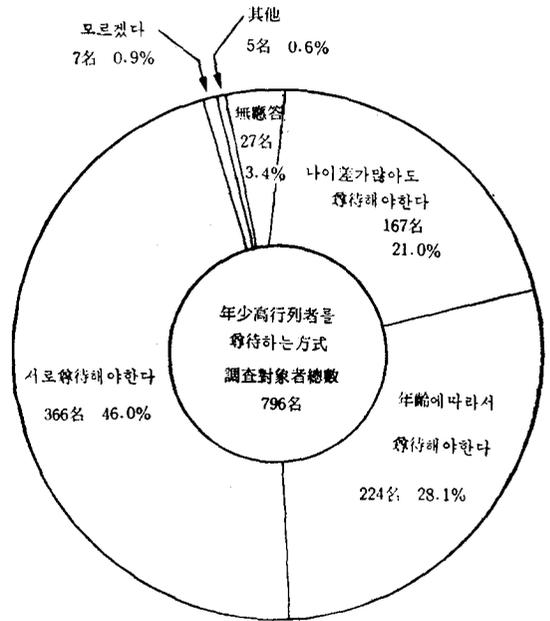
(5) 同輩 또는 손아래이면서 行列이 높은 사람을 尊待해야 한다면, 어떻게 尊待해야 하는가? (第37問)

이 물음은 上問에서 「尊待해야 한다」는 答을 한 사람에게만 물은 것이다. 그러나 그 應答者數는 上問에 있어서 「尊待해야 한다」고 答한 사람의 數보다 若干 많아졌다. 調査者에 따라서 本來의 豫定對象者以外에 對하여도 물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가) 總括

이 물음에 對한 答의 總括의 集計는 右表와 같다.

즉 「서로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가장 많다. 다만 本問에 있어서의 세 가지 答은 반드시 서로 排斥하는 內容인 것은 아님을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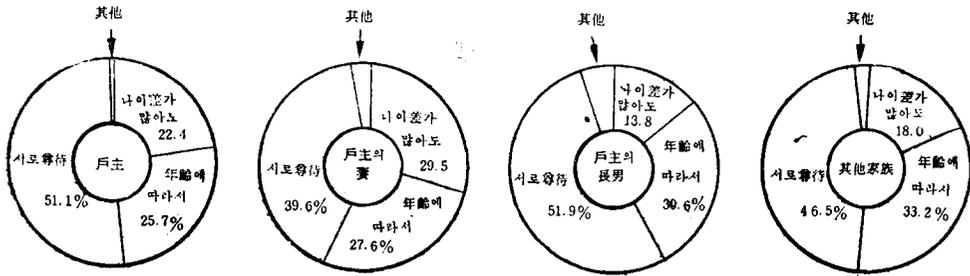


(나) 家族의 立場別

	나이차가 많아도	年齡에 따라서	서로尊待	모르겠다	其 他	無應答	計
戶 主	53	61	121	0	1	1	237
%	(22.4)	(25.7)	(51.1)		(0.4)	(0.4)	
戶 主의 妻	61	57	82	5	1	1	207
%	(29.5)	(27.6)	(39.6)	(2.3)	(0.5)	(0.5)	
戶 主의 長男	22	49	83	1	1	4	160
%	(13.8)	(30.6)	(51.9)	(0.6)	(0.6)	(2.5)	
其他 家族	31	57	80	1	2	1	171
%	(18.0)	(33.2)	(46.5)	(0.6)	(1.1)	(0.6)	
不 明	0	0	0	0	0	20	20
						(100)	

資 料

처음의 세 가지 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나이 차이가 많아도 尊待해야 한다」는 쟁이 가장 많은 것은 戶主의 妻에 있어서이다.

(다) 年齡別

	나이 차이가 많아도 尊待	年齡에 따라서	서로 尊待	모르겠다	其 他	無 應 答	計
20歲以下 %	4 (16.0)	10 (40.0)	11 (44.0)	0	0	0	25
21~30歲 %	29 (14.0)	83 (40.0)	86 (41.3)	2 (0.9)	3 (1.4)	5 (2.4)	208
31~40歲 %	47 (21.3)	47 (21.3)	122 (55.2)	2 (0.9)	1 (0.5)	1 (0.5)	220
41~50歲 %	42 (23.8)	52 (29.4)	78 (44.0)	3 (1.8)	1 (0.5)	1 (0.5)	177
51~60歲 %	32 (34.0)	23 (24.5)	39 (41.5)	0	0	0	94
61~70歲 %	11 (33.3)	5 (15.2)	17 (51.5)	0	0	0	33
71~80歲 %	1 (12.5)	1 (12.5)	6 (75.0)	0	0	0	8
81歲以上 %	0	2 (66.7)	1 (33.3)	0	0	0	3
不 明	1	1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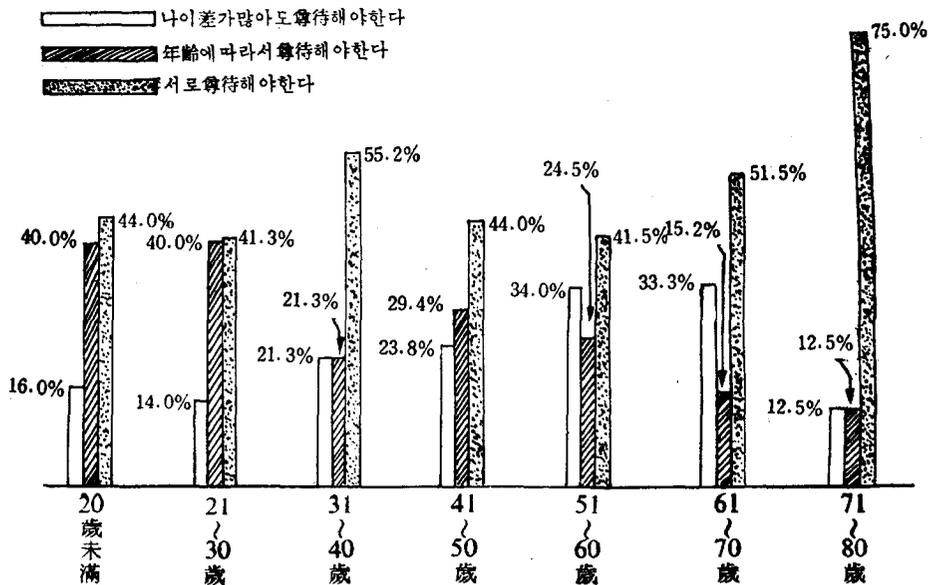
처음의 세 가지 쟁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 페이지의 圖表와 같다.

大體로 말해서 「나이 차이가 많아도 尊待해야 한다」는 쟁은 年齡이 많음에 따라서 많아지고 (70代만이 例外), 「年齡에 따라서 尊待해야 한다」는 쟁은 年齡이 많음에 따라서 減少된다 (30代만이 例外). 「서로 尊待해야 한다」는 쟁은 別로 一定한 傾向을 나타내지 않는다.

(라) 宗教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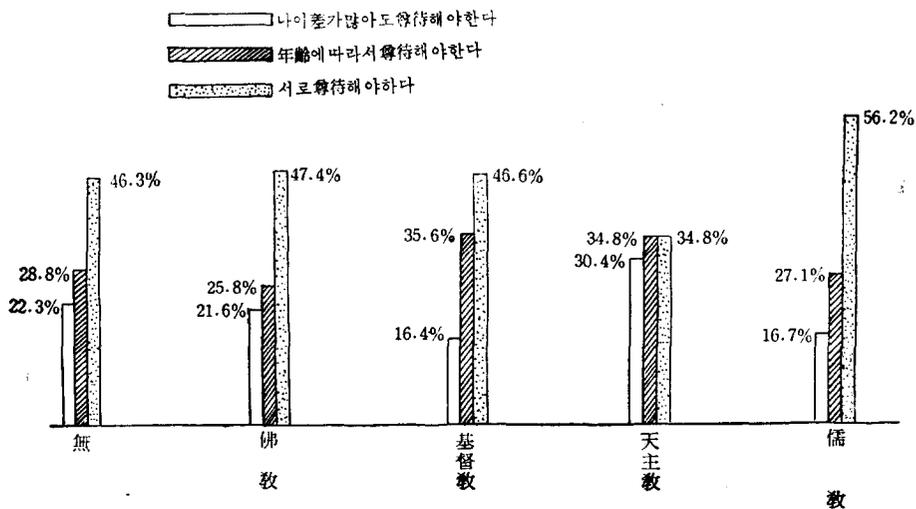
	無	佛 教	基 督 教	天 主 教	儒 教	天 道 教	其 他	不 明
나이 차이가 많아도 %	114 (22.3)	21 (21.6)	12 (16.4)	7 (30.4)	8 (16.7)	0	2 (14.3)	3 (30.0)
年齡에 따라서 %	147 (28.8)	25 (25.8)	26 (35.6)	8 (34.8)	13 (27.1)	0	4 (28.6)	1 (10.0)
서로 尊待 %	237 (46.3)	46 (47.4)	34 (46.6)	8 (34.8)	27 (56.2)	0	8 (57.1)	6 (60.0)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모 르 겠 다	6	1	0	0	0	0	0
%	(1.2)	(1.0)					
其 他	4	1	0	0	0	0	0
%	(0.8)	(1.0)					
無 應 答	3	3	1	0	0	0	0
%	(0.6)	(3.2)	(1.4)				
計	511	97	73	23	48	0	14

처음의 세 가지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나이 차이가 많아도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天主教에 있어서 가장 많고, 無宗教와 佛敎가

資 料

이에 다음가며, 儒敎에 있어서는 매우 적다. 儒敎에 있어서는 「서로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가장 많으며, 「年齡에 따라서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基督教에 있어서이다.

(마) 性 別

	나이차가 많아도	年齡에 따라서	서로尊待	모르겠다	其 他	無應答	計
男	79	127	231	1	3	5	446
%	(17.7)	(28.5)	(51.8)	(0.2)	(0.7)	(1.1)	
女	86	96	132	6	2	2	324
%	(26.5)	(29.6)	(40.8)	(1.9)	(0.6)	(0.6)	
不 明	2	1	3	0	0	0	6
%	(33.3)	(16.7)	(50.0)				

「나이 차이가 많아도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女子에 있어서 男子보다 많다. 「서로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가장 많다는 點은 男女에 共通하지만, 男子에 있어서는 이 答이 特히 많다.

第五章 分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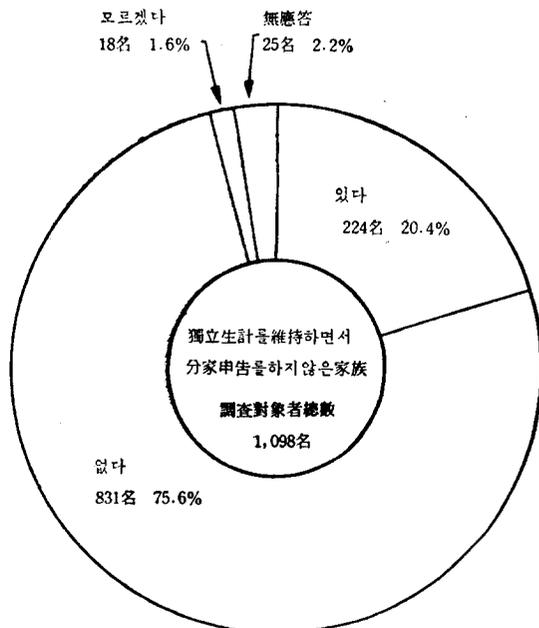
家族의 크기가 戶籍上으로나 實際의 共同生活에 있어서나 5~6人이라는 最頻數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그 크기가 別로 크지 않다 함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인데, 그러면 戶籍과 實際와의 齟齬의 一面으로, 事實上 獨立한 世帶를 가지고 있으면서 戶籍上 分家가 안되고 있는 例가 얼마나 있나를 알아 보기로 한다.

(1) 貴下의 家族中 事實上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면서 分家申告를 하지 않은 家族이 있습니까? (第15問)

(가) 總 括

右의 圖表와 같다.

「없다」는 答이 75.6%에 達하고, 「있다」는 答은 20.4%에 不過하다. 이것으로 보건대, 別個 世帶를 가지고 있으면서 戶籍上 獨立되어 있지 않은 例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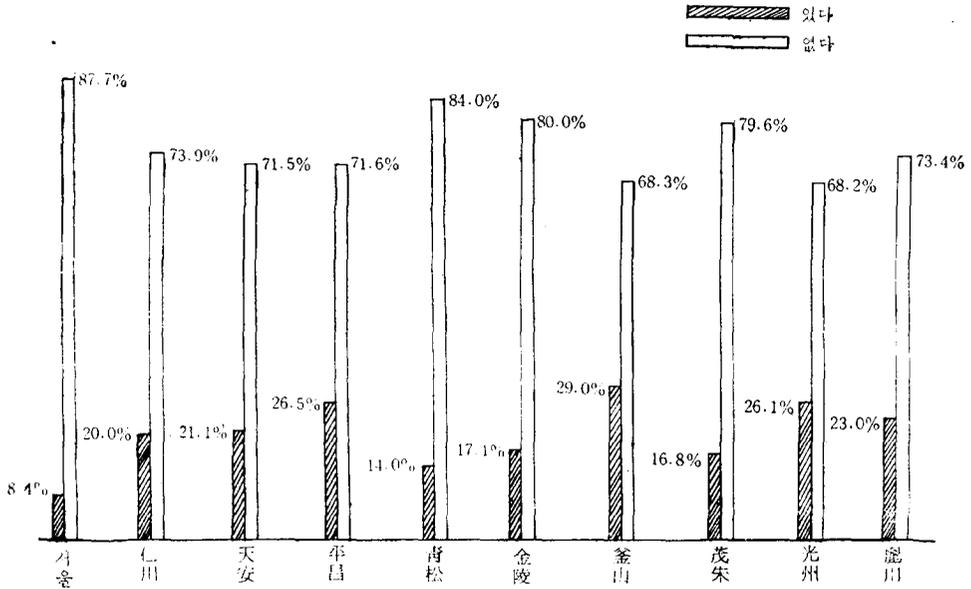
(나) 地域別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있	9	23	23	30	14	18	34	19	28	26	224
%	(8.4)	(20.0)	(21.1)	(26.5)	(14.0)	(17.1)	(29.0)	(16.8)	(26.1)	(23.0)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없	다	93	85	78	81	84	84	80	90	73	83	831
%		(87.7)	(73.9)	(71.5)	(71.6)	(84.0)	(80.0)	(68.3)	(79.6)	(68.2)	(73.4)	
모	르	2	0	5	0	2	1	3	1	3	1	18
%	겠	(1.8)	(4.5)	(2.0)	(0.9)	(2.5)	(0.8)	(2.7)	(0.8)	(2.6)	(0.8)	
無	應	2	7	3	2	0	2	0	3	3	3	25
%	答	(1.8)	(6.0)	(2.6)	(1.7)	(1.9)	(2.6)	(2.7)	(2.6)	(2.6)	(2.6)	
計		106	115	109	113	100	105	117	113	107	116	1098

「있다」와 「없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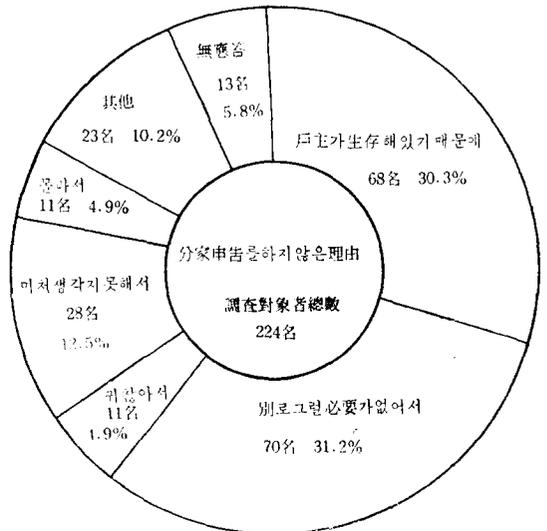
「없다」는 答이 가장 많고 「있다」는 答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이며, 다음은 靑松, 金陵, 茂朱의 順序이다. 反對로 「없다」의 答이 가장 적고 「있다」의 答이 가장 많은 곳은 光州와 釜山이다. 이것으로 보건대, 都市와 農村에 따라서 一定한 傾向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2)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면서 分家 申告를 하지 않은 理由(第 16 問)

(가) 總 括

右의 圖表와 같다.

이것으로 보건대, 戶主가 生存하여 있기 때문에라는 것은 30.3%에 不過하고, 그 나머지는 分家를 해서 안된다든가 또는 分家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觀念에 基因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資 料

(나) 地域別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戶主生存%	3 (33.3)	10 (41.6)	10 (41.6)	4 (13.3)	1 (7.1)	1 (5.5)	13 (39.3)	9 (47.3)	5 (18.5)	12 (46.1)	68
必要없어서%	3 (33.3)	5 (20.8)	3 (12.5)	15 (50.0)	5 (35.7)	9 (50.0)	9 (27.2)	4 (21.0)	13 (48.1)	4 (15.3)	70
귀찮아서%	2 (22.2)	0	0	0	0	2 (11.1)	3 (9.0)	0	2 (7.4)	2 (7.6)	11
생각지못해서%	0	3 (12.5)	5 (20.8)	1 (3.3)	4 (28.6)	4 (22.2)	4 (12.1)	1 (5.2)	2 (7.4)	4 (15.3)	28
몰라서%	1 (11.1)	1 (4.1)	1 (4.1)	5 (16.6)	1 (7.1)	0	1 (3.0)	0	0	1 (3.8)	11
其他%	0	1 (4.1)	3 (12.5)	3 (10.0)	2 (14.2)	0	3 (9.0)	4 (21.0)	4 (14.8)	3 (11.4)	23
無應答%	0	4 (16.6)	2 (8.3)	2 (6.6)	1 (7.1)	2 (11.1)	0	1 (5.2)	1 (3.7)	0	13
計	9	24	24	30	14	18	33	19	27	26	224

「戶主가 生存해 있기 때문에」라는 答이 가장 많은 處이 茂朱이고, 다음은 麗川이며, 그 다음은 天安과 仁川이다. 위의 統計에서 가장 分家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釜山, 平昌, 光州에 있어서의 理由를 보건대, 釜山에서는 「戶主가 生存해 있기 때문에」가 가장 많고, 平昌에서는 「必要없어서」가 가장 많은 同時에 「몰라서」라는 答도 다른 地域에 比하면 가장 많고 光州에서는 「必要없어서」라는 答이 가장 많다.

(다) 學歷別

	無學	한글解得	書堂	國民校卒	中校卒	高校卒	大學卒	그以上	不明
戶主生存%	5 (21.7)	6 (24.0)	6 (75.0)	15 (21.7)	16 (42.1)	8 (25.8)	10 (37.0)	0	2 (100)
必要없어서%	4 (17.3)	10 (40.0)	2 (25.0)	22 (31.8)	11 (28.9)	11 (35.4)	10 (37.0)	0	0
귀찮아서%	2 (8.6)	0	0	0	2 (5.2)	4 (12.9)	2 (7.4)	1 (100)	0
생각지못해서%	5 (21.7)	5 (20.0)	0	11 (15.9)	4 (10.5)	3 (9.6)	0	0	0
몰라서%	2 (8.6)	2 (8.0)	0	5 (7.2)	0	2 (6.4)	0	0	0
其他%	5 (21.7)	0	0	10 (14.4)	3 (7.9)	2 (6.4)	3 (11.1)	0	0
無應答%	0	2 (8.0)	0	6 (8.7)	2 (5.2)	1 (3.2)	2 (7.4)	0	0
計	23	25	8	69	38	31	27	1	2

(라) 年齡別

	20歲未滿	21~30歲	31~40歲	41~50歲	51~60歲	61~70歲	71~80歲	81歲以上
戶主生存%	4 (50.0)	14 (25.9)	24 (30.7)	11 (27.4)	8 (32.0)	6 (42.8)	1 (33.3)	0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必要 없 어 서 %	0	19	24	15	8	2	1	1
		(35.1)	(30.7)	(37.5)	(32.0)	(14.2)	(33.3)	(50.0)
귀 찰 아 서 %	1	2	5	2	0	1	0	0
	(12.5)	(3.7)	(6.4)	(5.0)		(7.1)		
생각 지 못 해 서 %	0	6	11	4	5	1	1	0
		(11.1)	(14.1)	(10.0)	(20.0)	(7.1)	(33.3)	
올 라 서 %	1	5	3	1	1	0	0	0
	(12.5)	(9.2)	(3.8)	(2.5)	(4.0)			
其 % 他	1	7	5	4	2	3	0	1
	(12.5)	(12.9)	(6.4)	(10.0)	(8.0)	(21.4)		(50.0)
無 應 答 %	1	1	6	3	1	1	0	0
	(12.5)	(1.8)	(7.6)	(7.5)	(4.0)	(7.1)		
計	8	54	78	40	28	14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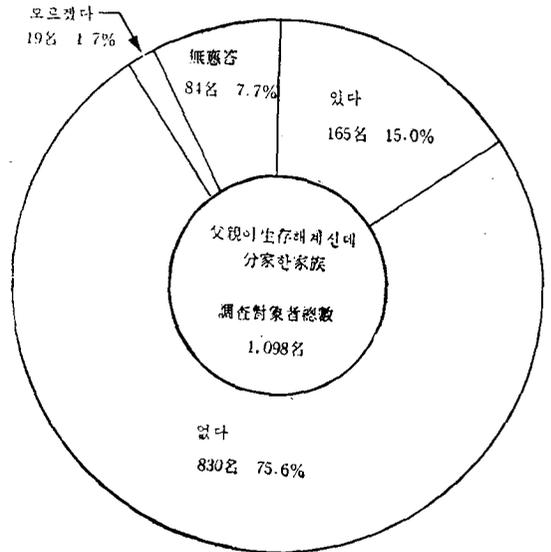
위의 學歷別 및 年齡別 集計로부터는 學歷程度나 年齡에 따라서 一定한 傾向을 나타내는 것을 보기 어렵다.

(3) 貴下의 家族中 父親이 生存하여 계신데 分家한 家族이 있습니까? (第17問)

(가) 總 括

右의 圖表와 같다.

「없다」가 75.6%로서 壓倒的으로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없다」의 答 속에는 事實上 父親과 同世帶에 生活하는 者와 父親과는 別個의 世帶를 가지고 있는 者가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父親이 生存해 계신데 獨立 世帶를 가지는 率이나, 分家하는 率은 이것으로 알 수 없다.



(나) 地域別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青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있 % 다	5	1	17	29	18	9	33	20	3	30	165
	(4.7)	(0.9)	(15.6)	(25.6)	(18.0)	(8.5)	(28.2)	(17.6)	(2.8)	(26.5)	
없 % 다	90	86	78	82	81	87	72	87	83	70	816
	(84.9)	(74.7)	(71.5)	(72.5)	(81.0)	(82.8)	(61.5)	(76.9)	(77.5)	(61.9)	
모 르 겠 다 %	1	0	6	1	1	2	3	2	6	5	27
	(0.9)		(5.5)	(0.9)	(1.0)	(1.9)	(2.5)	(1.7)	(5.6)	(4.4)	
無 應 答 %	10	28	8	1	0	7	9	4	15	8	90
	(9.4)	(24.3)	(7.3)	(0.9)		(6.6)	(7.6)	(3.5)	(14.0)	(7.0)	
計	106	115	109	113	100	105	117	113	107	113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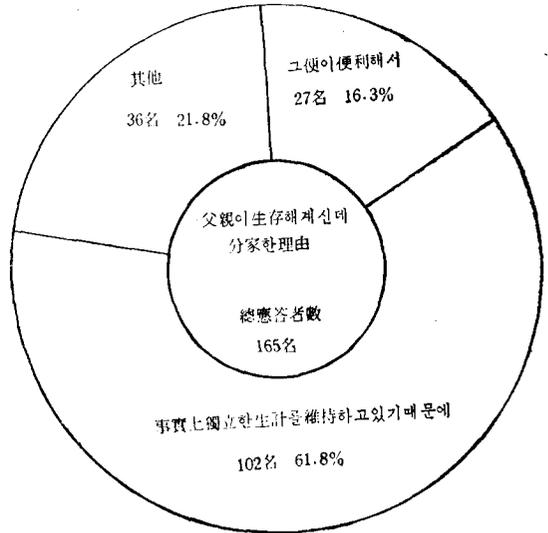
「있다」의 答이 가장 많은 것은 釜山이고, 다음은 麗川, 平昌의 順序이며, 「있다」의 答이 가장 적은 곳은 仁川이고, 다음은 光州, 서울의 順序이다.

(4) 父親이 生存해 계신데 分家한 理由
(第18問)

(가) 總 括

右의 圖表와 같다.

「事實上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答이 壓倒的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事實을, 第15問에 있어서 事實上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면서 分家申告를 하지 않은 家族이 없다는 答이 75.6%를 차지하고 있는 事實과 關聯시켜서 본다면, 生計가 獨立하면 戶籍上으로도 分家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思想이 相當히 支配的인 것으로 보인다.



(나) 地域別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그便이便利해서 %	1 (7.6)	5 (29.4)	2 (12.5)	0	3 (25.0)	2 (13.3)	2 (9.0)	8 (47.0)	2 (12.5)	2 (15.3)	27
事實上獨立해있으니까 %	9 (69.2)	8 (47.0)	10 (62.5)	19 (79.1)	7 (58.3)	9 (60.0)	16 (72.7)	6 (35.2)	12 (75.0)	6 (46.1)	102
其他 %	3 (23.0)	4 (23.5)	4 (25.0)	5 (20.8)	2 (16.6)	4 (26.6)	4 (18.1)	3 (17.6)	2 (12.5)	5 (38.4)	36
計	13	17	16	24	12	15	22	17	16	13	165

「그 便이 便利해서」라는 答이 가장 많은 곳은 茂朱이고, 다음은 仁川, 靑松의 順序이다. 「事實上 獨立해 있으니까」라는 答이 가장 많은 곳은 平昌이고, 光州, 釜山, 서울의 順序이다.

(다) 學歷別

	無學	한글解得	書堂	國民校卒	中校卒	高校卒	大學卒	그以上	不明
그便이便利해서 %	2 (18.1)	2 (8.6)	0	9 (16.0)	7 (28.0)	2 (9.5)	5 (21.3)	0	0
事實上獨立해있으니까 %	6 (54.5)	15 (65.2)	4 (100)	32 (57.1)	14 (56.0)	15 (71.4)	15 (65.2)	1 (100)	0
其他 %	3 (27.2)	6 (26.0)	0	15 (26.8)	4 (16.0)	4 (19.0)	3 (13.0)	0	1 (100)
計	11	23	4	56	25	21	23	1	1

(라) 年齡別

	20歲까지	21~30歲	31~40歲	41~50歲	51~60歲	61~70歲	71~80歲	81歲以上
그便이便利해서 %	2 (28.5)	6 (14.6)	7 (13.2)	6 (19.3)	4 (25.0)	2 (16.6)	0	0
事實上獨立해있으니까 %	4 (57.1)	26 (63.4)	36 (67.9)	18 (58.0)	7 (43.7)	7 (58.3)	3 (100)	1 (50)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其	他	1	9	10	7	5	3	0	1
%		(14.2)	(21.9)	(18.8)	(22.5)	(31.2)	(25.0)		(50)
計		7	41	53	31	16	12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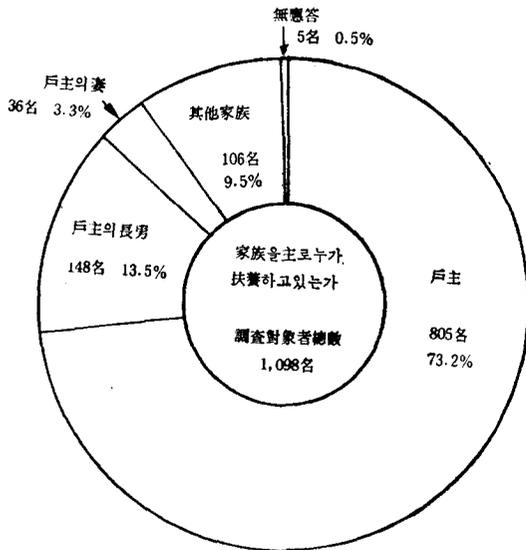
學歷別이나 年齡別에 따라서 이렇다할 傾向을 發見할 수 없는 것은 위에서의 分家申告를 하지 않은 理由에 있어서와 같다.

第六章 扶 養

家族制度를 崩壞시키는 二大要因은, 個人主義 思想의 浸透와, 經濟事情의 近代化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나라의 經濟는 在來의 親族間의 扶養觀念에 대하여 어떠한 影響을 주고 있는가?

(1) 家族을 主로 누가 扶養하고 있습니까? (第10問)

이것은 事實上 누가 扶養하고 있는가를 묻은 것이다. 그 答은 다음과 같다(左下圖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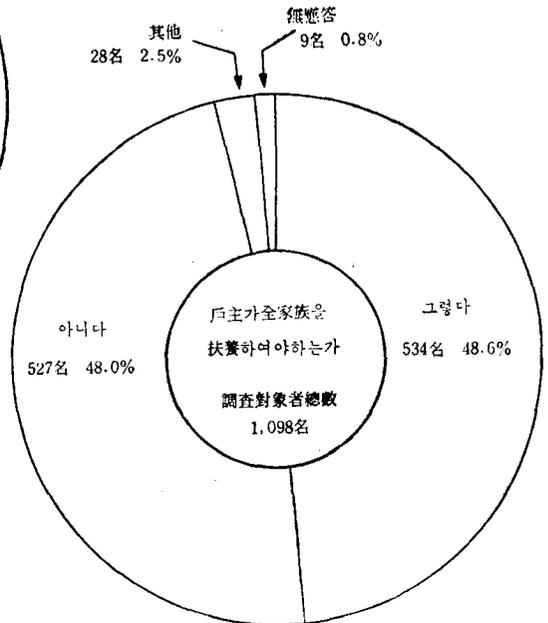
(2) 戶主가 全家族(戶籍上에 記載된 全家族)

을 반드시 扶養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12問)

(가) 總 括

아래의 圖表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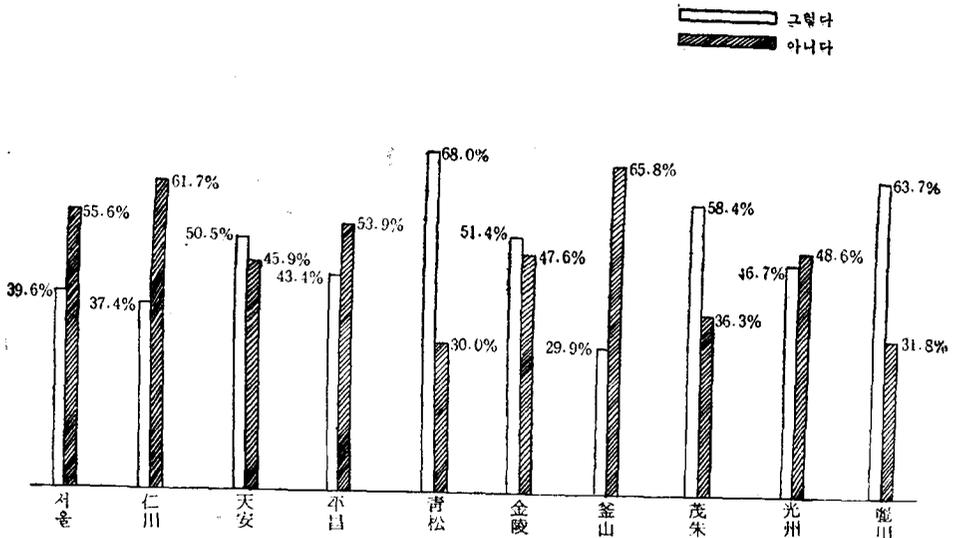
즉 「그렇다」의 答과 「아니다」의 答이 거의 同數임을 알 수 있다.

(나) 地域別

資 料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青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그 령 다	42 (39.6)	43 (37.4)	55 (50.5)	49 (43.4)	68 (68.0)	54 (51.4)	35 (29.9)	66 (58.4)	50 (46.7)	72 (63.7)	534
아 니 다	59 (55.6)	71 (61.7)	50 (45.9)	61 (53.9)	30 (30.0)	50 (47.6)	77 (65.8)	41 (36.3)	52 (48.6)	36 (31.8)	527
其 他	2 (1.8)	1 (0.8)	2 (1.8)	3 (2.6)	2 (2.0)	0	5 (4.2)	6 (5.3)	3 (2.8)	4 (3.5)	28
無 應 答	3 (2.8)	0	2 (1.8)	0	0	1 (0.9)	0	0	2 (1.8)	1 (0.8)	9
計	106	115	109	113	100	105	117	113	107	113	1098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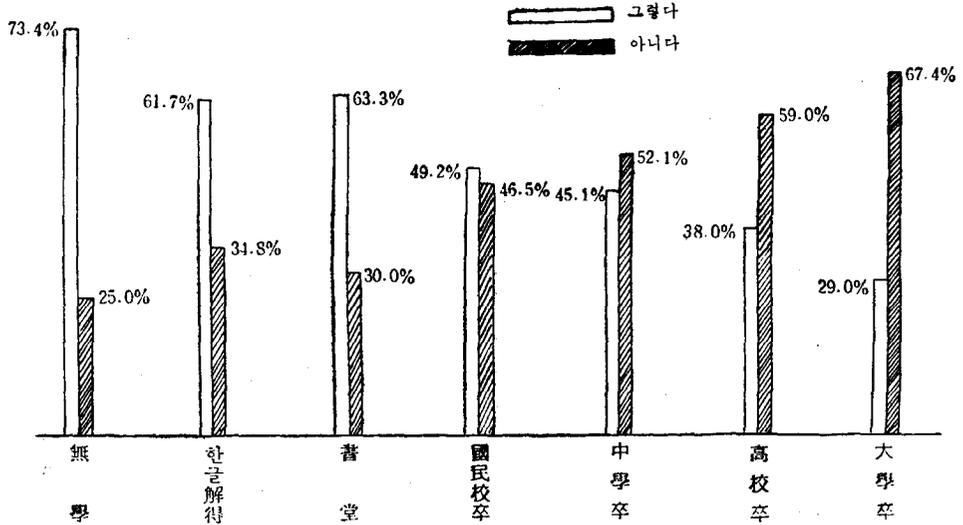
즉 地方에 따라서 相當히 差異가 많다. 어떤 地方에서는 그렇다는 答이 「아니다」의 答보다 越等하게 많고, 다른 地方에서는 反對로 「아니다」의 答이 「그렇다」의 答보다 越等하게 많다. 「그렇다」의 答이 越等하게 많은 곳은 青松, 麗川, 茂朱이고, 金陵과 天安에서도 「그렇다」의 答이 若干 더 많다. 反對로 「아니다」의 答이 壓倒的으로 많은 곳은 釜山이 으뜸이고 仁川과 서울이 이에 다음간다. 平昌에 있어서 「아니다」가 53.9%나 되는 것은 特異하다.

(다) 學歷別

	無 學	한글解得	書 堂	國民校卒	中校卒	高校卒	大學卒	그以上
그 령 다	91 (73.4)	87 (61.7)	19 (63.3)	163 (49.2)	64 (45.1)	63 (38.0)	40 (29.0)	0
아 니 다	31 (25.0)	49 (34.8)	9 (30.0)	154 (46.5)	74 (52.1)	98 (59.0)	93 (67.4)	8 (100)
其 他	2 (1.6)	5 (3.5)	2 (6.6)	10 (3.0)	4 (2.8)	3 (1.8)	2 (1.4)	0
無 應 答	0	0	0	4 (1.2)	0	2 (1.2)	3 (2.2)	0
計	124	141	30	331	142	166	13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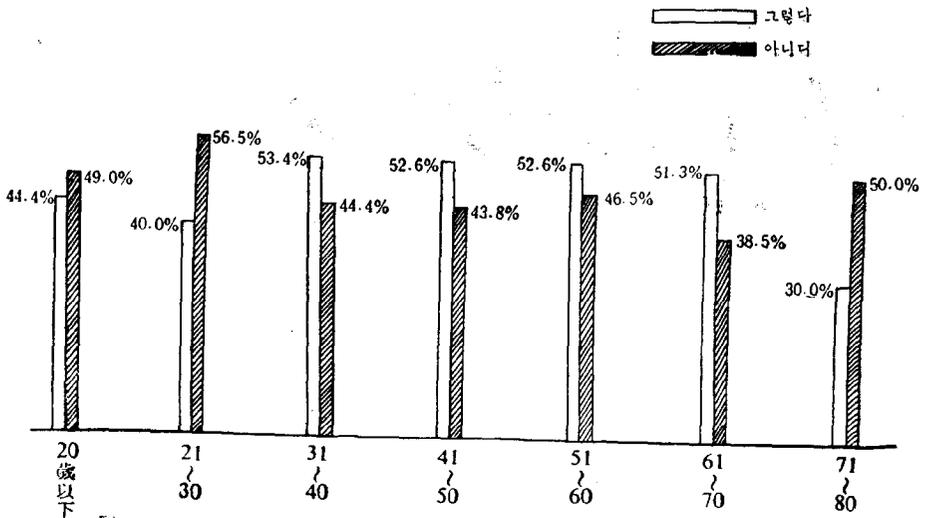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아니다」의 答이 많아진다. 즉 無學과 한글解得과 書堂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아니다」보다 壓倒的으로 많고, 國民校卒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다」의 答이 若干 많으나, 中學校卒로부터는 漸漸 「아니다」의 答이 많아져서 大學卒에 있어서는 「아니다」가 「그렇다」보다 倍를 훨씬 넘는다.

(라) 年齡別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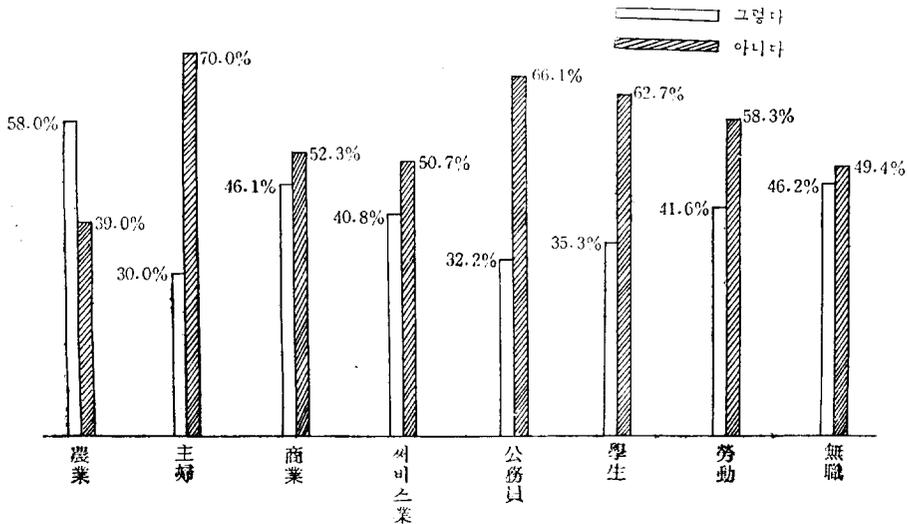
	20歲以下	21~30歲	31~40歲	41~50歲	51~60歲	61~70歲	71~80歲	81歲以上	不 明
그렇다 %	24 (44.4)	126 (40.0)	172 (53.4)	120 (52.6)	61 (52.6)	20 (51.3)	3 (30.0)	2 (66.6)	6 (54.5)
아니다 %	27 (49.0)	178 (56.5)	143 (44.4)	100 (43.8)	54 (46.5)	15 (38.5)	5 (50.0)	1 (33.3)	4 (36.4)
其 他 %	1 (1.8)	10 (3.1)	6 (1.8)	5 (2.2)	0	4 (10.2)	2 (20.0)	0	0
無應答 %	2 (3.7)	1 (0.3)	1 (0.3)	3 (1.3)	1 (0.8)	0	0	0	1 (9.1)
計	54	315	322	228	116	39	10	3	11

大體로 30代로부터 60代까지에 있어서는 「그렇다」의 答이 「아니다」의 答보다 多少 優勢한데 反하여 20代以下에 있어서는 「아니다」의 答이 優勢하고, 特히 20代에 있어서는 「아니다」의 答이 가장 많다. 30代에 있어서 「아니다」의 答이 많은 것은 特異하다.

(마) 職業別

	農 業	主 婦	商 業	서비스業	公務員	學 生	勞 動	無 職	其他
그렇다 %	236 (58.0)	3 (30.0)	59 (46.1)	29 (40.8)	19 (32.2)	18 (35.3)	5 (41.6)	137 (46.2)	28 (43.7)
아니다 %	159 (39.0)	7 (70.0)	67 (52.3)	36 (50.7)	39 (66.1)	32 (62.7)	6 (58.3)	146 (49.4)	35 (54.7)
其 他 %	10 (2.4)	0	2 (1.5)	1 (1.4)	1 (1.7)	0	1 (8.3)	12 (4.1)	1 (1.5)
無應答 %	2 (0.5)	0	0	5 (7.0)	0	1 (2.0)	0	1 (0.3)	0
計	407	10	128	71	59	51	12	296	64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全職業中에서 「그렇다」의 答이 「아니다」의 答보다 많은 것은 農業뿐이다. 다른 職業에 있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어서는 모두 「아니다」의 答이 더 많으며, 그 中에서도 主婦의 경우에 「아니다」의 答이 가장 많고, 다음은 公務員, 學生의 順序이다.

(바) 性別

	그렇다	아니다	其 他	無應答	計
男	284	339	15	7	645
%	(44.0)	(52.5)	(2.3)	(1.1)	
女	243	186	13	2	444
%	(54.7)	(41.9)	(2.9)	(0.4)	
不 明	7	2	0	0	9
%	(77.7)	(22.2)			

男子에 있어서는 「아니다」가 많고, 女子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많다.

(사) 生活程度別

	그렇다	아니다	其 他	無應答	計
上	25	12	0	0	37
%	(67.6)	(32.5)			
中	283	303	19	5	610
%	(46.4)	(49.7)	(3.1)	(0.8)	
下	219	201	9	4	433
%	(50.6)	(46.4)	(2.1)	(0.9)	
不 明	7	1	0	0	18
%	(38.9)	(61.1)			

上流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壓倒的으로 많고, 中流에 있어서는 「아니다」가, 下流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各各 若干더 많다.

(아) 戶主가 된 當時의 生活事情別

	그렇다	아니다	其 他	無應答	計
自立可能	126	106	5	3	240
%	(52.5)	(44.2)	(2.1)	(1.2)	
自立不能	50	28	3	0	81
%	(61.7)	(34.6)	(3.7)		
其 他	3	2	0	0	5
%	(60.0)	(40.0)			
無 應 答	7	2	1	0	10
%	(70.0)	(20.0)	(10.0)		
計	186	138	9	3	336
%	(55.4)	(41.1)	(2.7)	(0.8)	

이것은 戶主에 관해서만 본 것이다. 먼저 戶主에 있어서는 總括的集計에 있어서 보다는 「그렇다」의 答이 越等하게 많다는 것이 注目된다. 그리고 自立可能과 自立不能의 어느 편에 있어서나 「그렇다」의 答이 더 많지만, 特히 「그렇다」의 答이 「아니다」의 答보다 越等하게 많은 것은 自立不能에 있어서이다.

(자) 出生地別

		資 料				
		그렇다	아니다	其他	無應答	計
調査地域内	%	271 (51.9)	236 (45.2)	10 (1.9)	5 (0.9)	522
道内	%	167 (49.0)	159 (46.6)	14 (4.1)	1 (0.2)	341
以南	%	63 (43.4)	76 (52.4)	3 (2.0)	3 (2.0)	145
以北	%	23 (33.8)	44 (64.7)	1 (1.4)	0	68
其他	%	8 (42.1)	11 (57.9)	0	0	19
無應答	%	2 (66.6)	1 (33.4)	0	0	3

調査地域内와 道内 出身者에 있어서는 「그렇다」가 더 많음에 反하여 他地로부터 移住해 온 者에 있어서는 「아니다」의 答이 많다. 그 中에서도 特히 以北出身者에 있어서는 「아니다」의 答이 壓倒的으로 많다.

(3) 戶主가 生活能力이 없을 때에는 原則的으로 家族을 누가 扶養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13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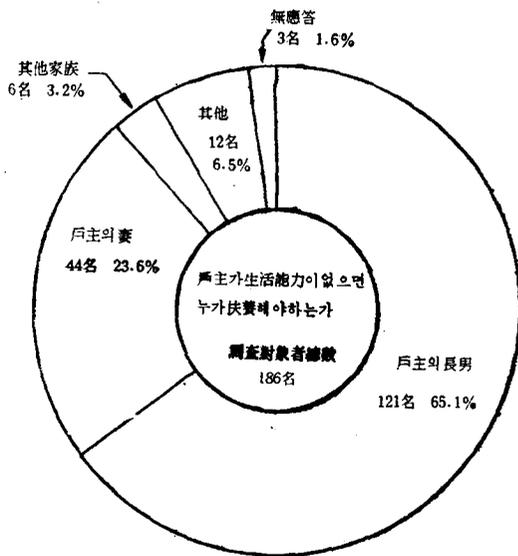
이것은 戶主가 全家族을 扶養할 義務가 있다고 答한 사람에게 對해서만 물은 것이다. 本來는 戶主가 扶養義務를 지고 있지만, 事實上 戶主에게 生活能力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 물음에 대한 總括的 集計는 右表와 같다.

즉 戶主의 長男이 扶養해야 한다고 하는 答이 壓倒的으로 많고, 戶主의 妻가 扶養해야 한다고 하는 答이 이에 다음간다.

이것을 戶主가 된 當時의 生活事情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長 男	戶主의妻	其他家族	其 他	無應答	計
自立可能	81	29	4	9	3	126
%	(64.3)	(23.0)	(3.2)	(7.1)	(2.4)	
自立不能	36	11	1	2	0	50
%	(72.0)	(22.0)	(2.0)	(4.0)		
其 他	2	0	0	1	0	3
%	(66.7)			(33.3)		
不 明	2	4	1	0	0	7
%	(28.6)	(57.1)	(14.3)			
計	121	44	6	12	3	186
%	(65.1)	(23.6)	(3.2)	(6.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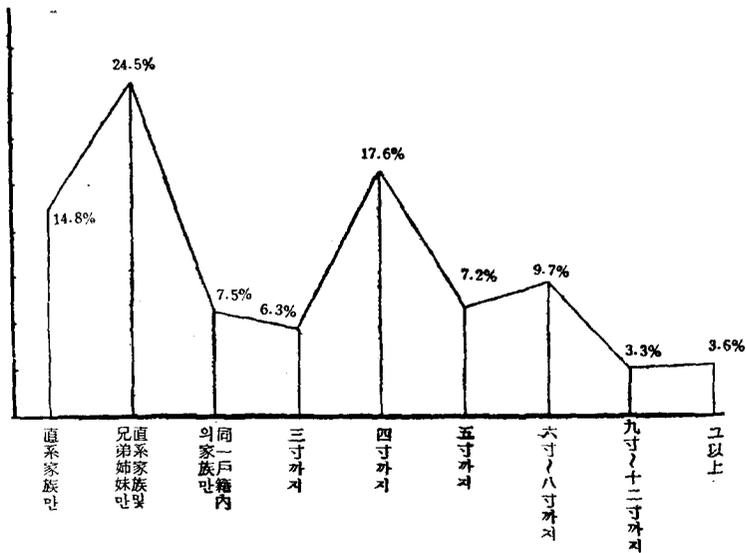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4) 戶主는 一家 親戚中(戶籍簿에 記載되어 있거나 없거나 間에) 生活能力이 없는 者가 있을 때에, 어느 範圍까지 扶養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第14問)

(가) 總 括

直系家族만	164名	14.8%
直系家族 및 兄弟姉妹만	267名	24.5%
同一戶籍內에 있는 家族만	82名	7.5%
3 寸까지	69名	6.3%
4 寸까지	194名	17.6%
5 寸까지	79名	7.2%
6 寸~8 寸까지	106名	9.7%
9 寸~12 寸까지	36名	3.3%
그 以上	40名	3.6%
其 他	61名	5.5%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가장 많은 答은 直系家族 및 兄弟姉妹만이라는 것이고, 다음은 四寸까지, 直系家族만이라는 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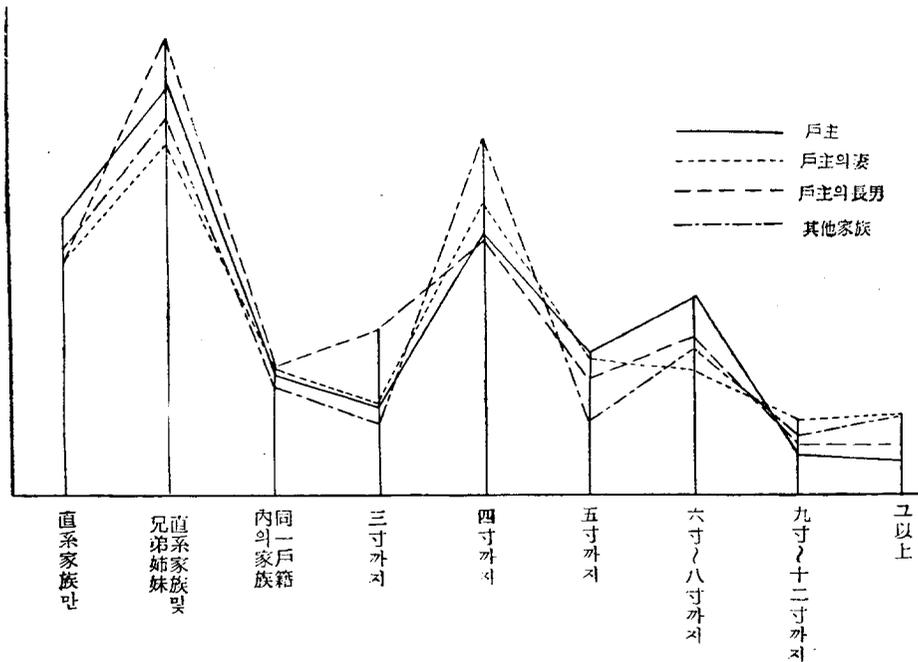
이 質問도 第22問(祭祀에 參席해야 하는 親族의 範圍) 및 第23問(喪服用範圍)과 더불어 親族意識의 範圍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第22問에 있어서는 四寸까지라는 答이 가장 많았고, 第23問에 있어서는 6寸~8寸까지라는 答이 가장 [많았음에 反하여 本問에 있어서는 그 範圍가 더 狹少함을 알 수 있다.

(나) 家族의 立場別

資 料

	直系家 族만	直系 및 兄弟姊妹	同一戶 內	3 寸 까지	4 寸 까지	5 寸 까지	6~8 寸까지	9~12 寸까지	그以上	其 他	計
戶 主	56	84	25	19	54	29	41	8	7	13	336
%	(16.7)	(25.0)	(7.4)	(5.6)	(16.1)	(8.6)	(12.1)	(2.4)	(2.2)	(3.9)	
戶 主의 妻	38	57	20	15	47	22	20	12	13	21	265
%	(14.3)	(21.5)	(7.6)	(5.7)	(17.8)	(8.3)	(7.5)	(4.5)	(4.9)	(7.9)	
戶主의 長男	31	64	18	23	36	16	22	7	7	6	230
%	(13.5)	(27.8)	(7.8)	(10.0)	(15.7)	(7.0)	(9.6)	(3.0)	(3.0)	(2.6)	
其他 家 族	39	61	18	12	57	12	23	9	13	21	265
%	(14.7)	(23.0)	(6.8)	(4.5)	(21.5)	(4.5)	(8.7)	(3.5)	(4.9)	(7.9)	
不 明	0	1	1	0	0	0	0	0	0	0	2
%		(50.0)	(50.0)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만」이라는 答이 가장 많고 「4寸까지」라는 答이 次位를 차지하고 있는 點은 四者에 共通하다. 그 中에서도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만」이라는 答이 가장 많은 것은 戶主의 長男에 있어서이고, 「4寸까지」라는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其他家族에 있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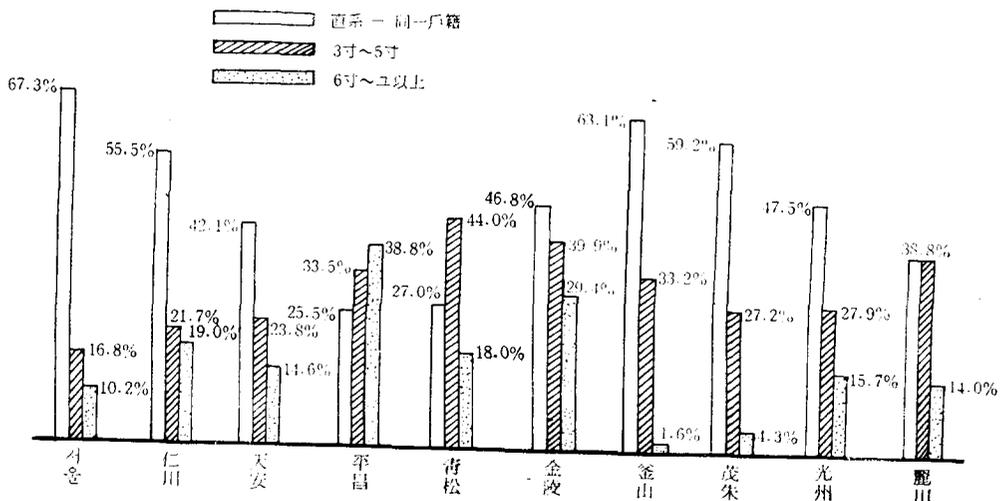
(나) 地域別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靑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直系 家 族 만	23	23	14	8	4	8	30	23	19	12	164
%	(21.6)	(20.0)	(12.8)	(7.0)	(4.0)	(7.6)	(25.6)	(20.3)	(17.7)	(10.6)	
直系 및 兄弟姊妹	40	30	25	15	29	15	30	31	24	28	267
%	(37.7)	(26.0)	(22.9)	(13.2)	(29.0)	(14.2)	(25.6)	(27.4)	(22.4)	(23.7)	
同一戶內의 家 族	7	11	7	6	4	7	15	13	8	4	82
%	(6.6)	(9.5)	(6.4)	(5.3)	(4.0)	(6.6)	(11.9)	(11.5)	(7.4)	(3.5)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3 寸 지 까	6	3	7	5	10	7	7	7	7	10	69
%	(5.6)	(2.6)	(6.4)	(4.4)	(10.0)	(6.6)	(5.9)	(6.1)	(6.5)	(8.8)	
4 寸 까 지	6	16	19	17	17	29	22	23	14	26	194
%	(5.6)	(13.9)	(17.4)	(15.0)	(17.0)	(27.6)	(18.8)	(20.3)	(17.7)	(23.0)	
5 寸 까 지	6	6	5	16	17	6	10	1	4	8	79
%	(5.6)	(5.2)	(4.5)	(14.1)	(17.0)	(5.7)	(8.5)	(0.8)	(3.7)	(7.0)	
6寸~8寸 까 지	3	8	12	23	13	28	1	3	2	13	106
%	(2.8)	(6.9)	(11.0)	(20.3)	(13.0)	(26.6)	(0.8)	(2.6)	(1.8)	(11.5)	
9寸~12寸까 지	2	6	2	17	2	3	0	0	2	2	36
%	(1.8)	(5.2)	(1.8)	(15.0)	(2.0)	(2.8)			(1.8)	(1.7)	
그 이 상	6	8	2	4	3	0	1	2	13	1	40
%	(5.6)	(6.9)	(1.8)	(3.5)	(3.0)		(0.8)	(1.7)	(12.1)	(0.8)	
其 他	7	4	16	2	1	2	1	10	9	9	61
%	(6.6)	(3.4)	(14.6)	(1.7)	(1.0)	(1.9)	(0.8)	(8.8)	(8.4)	(7.9)	
計	106	115	109	113	100	105	117	113	107	113	1098

답을 셋 씩 묶어서, 첫째—「直系家族단」으로부터 「同一戶籍內의 家族」까지, 둘째—「3寸까지」로부터 「5寸까지」까지, 셋째—「6寸~8寸까지」로부터 「그 以上」까지로 하여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都市에 있어서는, 直系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이 壓倒的으로 多數를 차지하고, 3寸 乃至 5寸 이라는 答이 그 다음이지만 그 數字는 前者보다 많이 떨어지며, 6寸~그 以上 이라는 答이 가장 적다. 그리고 茂朱도 또한 都市에 있어서와 같은 數字關係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特異하며, 天安과 金陵도 三者의 順位關係는 都市에 있어서와 同一하나, 直系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의 數字는 都市에 있어서보다 많이 떨어진다. 三者의 順位關係가 都市와 다른 곳은 平昌, 靑松, 麗川의 三個地域이다. 卽 平昌에 있어서는 三者의 順位가 都市와는 거꾸로 되어 6寸으로부터 그 以上이라는 答이 가장 많고, 靑松에 있어서는 3寸 乃至 5寸 까지라는 答이 가장 많다. 麗川에 있어서는 直系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과 5寸 乃至 8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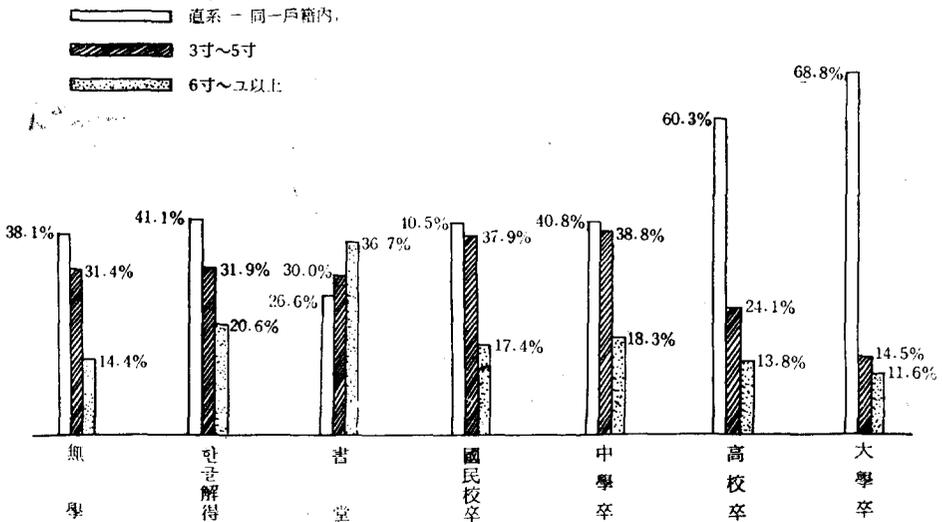
資 料

지라는 답이 同數라는 點을 除外하고는 都市의 경우에 가깝다.

(라) 學歷別

	直系 家族만	直系家族 兄弟姊妹	同一戶籍 内の家族	3寸 까지	4寸 까지	5寸 까지	6寸~8 寸까지	9寸~12 寸까지	그以上	其 他	計
無學 %	19 (15.5)	18 (14.5)	10 (8.1)	2 (1.6)	26 (20.9)	11 (8.9)	12 (9.6)	1 (0.8)	5 (4.0)	20 (16.1)	124
한글解得 %	16 (11.4)	35 (24.8)	7 (4.9)	10 (7.1)	24 (17.0)	11 (7.8)	21 (14.9)	6 (4.3)	2 (1.4)	9 (6.4)	141
書堂 %	1 (3.3)	3 (10.0)	4 (13.3)	3 (10.0)	4 (13.3)	2 (6.7)	7 (23.4)	3 (10.0)	1 (3.3)	2 (6.7)	30
國民校卒 %	36 (10.8)	73 (22.1)	25 (7.6)	24 (7.3)	67 (20.3)	34 (10.3)	36 (10.8)	14 (4.2)	8 (2.4)	14 (4.2)	331
中校卒 %	23 (16.2)	31 (21.8)	4 (2.8)	8 (5.6)	34 (24.0)	13 (9.2)	16 (11.3)	4 (2.8)	6 (4.2)	3 (2.1)	142
高校卒 %	27 (16.3)	58 (34.9)	15 (9.1)	12 (7.2)	22 (13.3)	6 (3.6)	9 (5.4)	5 (3.0)	9 (5.4)	3 (1.8)	166
大學卒 %	34 (24.6)	44 (31.9)	17 (12.3)	7 (5.1)	12 (8.7)	1 (0.7)	4 (2.9)	3 (2.2)	9 (6.5)	7 (5.1)	138
그以上 %	3 (37.5)	1 (12.5)	0	1 (12.5)	1 (12.5)	0	0	0	0	2 (25.0)	8
不明 %	5 (27.8)	4 (22.2)	0	2 (11.1)	4 (22.2)	1 (5.6)	1 (5.6)	0	0	1 (5.6)	18
計	164	267	82	69	194	79	106	36	40	61	1098

위의 要領으로 答을 셋 씩 묶어서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말해서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直系家族 乃至 同一戶籍內的 家族에 限한다는 答이 많아지고, 6寸 以上까지라는 答은 적어진다. 그리고 全體의으로 보아 直系家族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이 가장 많고, 3寸 乃至 5寸이라는 答이 이에 다음이며, 6寸 以上까지라는 答이 가장 적은데, 다만 書堂에 있어서만은 이와 正反對로 6寸 以上까지라는 答이 가장 많고, 直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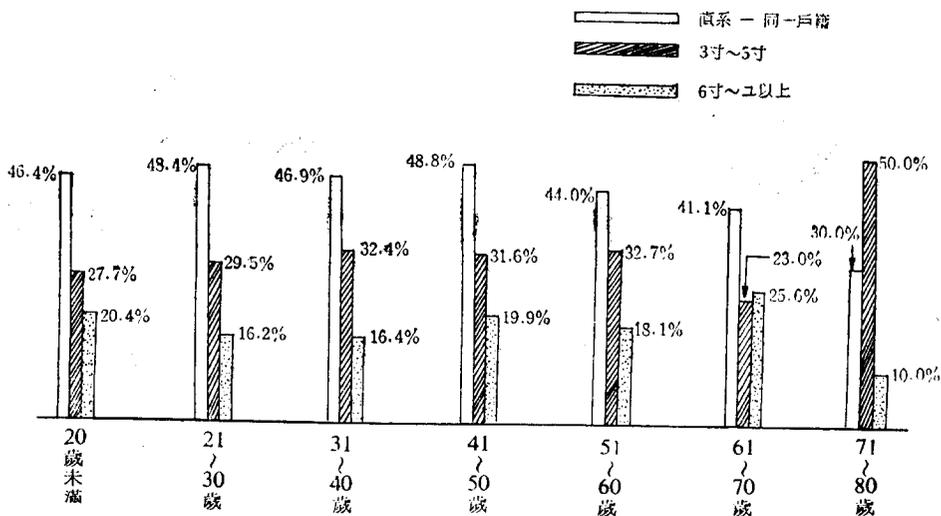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家族 乃至 同一戶籍內만이라는 答이 가장 적다.

(마) 年齡別

	直系 家族만	直系家族및 兄弟姊妹	同一戶籍 內의家族	3寸 까지	4寸 까지	5寸 까지	6寸~8 寸까지	9寸~12 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20歲未滿 %	9 (16.7)	11 (20.4)	5 (9.3)	2 (3.7)	12 (22.2)	1 (1.8)	6 (11.1)	1 (1.9)	4 (7.4)	3 (5.5)	54
21~30歲 %	44 (13.9)	87 (27.6)	22 (6.9)	21 (6.7)	52 (16.5)	20 (6.3)	30 (9.5)	11 (3.5)	10 (3.2)	18 (5.9)	315
31~40歲 %	43 (13.3)	84 (26.1)	24 (7.5)	24 (7.5)	55 (17.1)	25 (7.8)	31 (9.6)	11 (3.4)	11 (3.4)	14 (4.3)	322
41~50歲 %	45 (19.7)	50 (21.9)	14 (6.2)	8 (3.5)	46 (20.2)	18 (7.9)	19 (8.3)	7 (3.1)	8 (3.5)	13 (5.7)	228
51~60歲 %	14 (12.1)	24 (20.7)	13 (11.2)	9 (7.7)	20 (17.2)	9 (7.8)	13 (11.2)	2 (1.7)	6 (5.2)	6 (5.2)	116
61~70歲 %	6 (15.4)	6 (15.4)	4 (10.3)	2 (5.1)	4 (10.3)	3 (7.6)	5 (12.8)	4 (10.3)	1 (2.5)	4 (10.3)	39
71~80歲 %	1 (10.0)	2 (20.0)	0	1 (10.0)	1 (10.0)	3 (30.0)	1 (10.0)	0	0	1 (10.0)	10
81歲以上 %	0	0	0	1 (33.3)	1 (33.3)	0	0	0	0	1 (33.4)	3
不明 %	2 (18.2)	3 (27.3)	0	1 (9.1)	3 (27.3)	0	1 (9.1)	0	0	1 (9.0)	11
計	164	267	82	69	194	79	106	36	40	61	1098

위의 要領에 依하여 答을 셋 씩 묶어서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直系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은 大體로 말해서 年齡이 적을 수록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3寸 乃至 5寸이라는 答과 6寸以上 이라는 答은 年齡에 따라서 一定한 傾向을 보이는 것은 없으나 大體로는 前者가 後者보다 많은데, 60대에 있어서는 後者가 더 많다. 이와 反對로 70대에 있어서 3寸 乃至 5寸이라는 答이 壓倒的으로 많고 6寸以上이라는 答이 다른 어떤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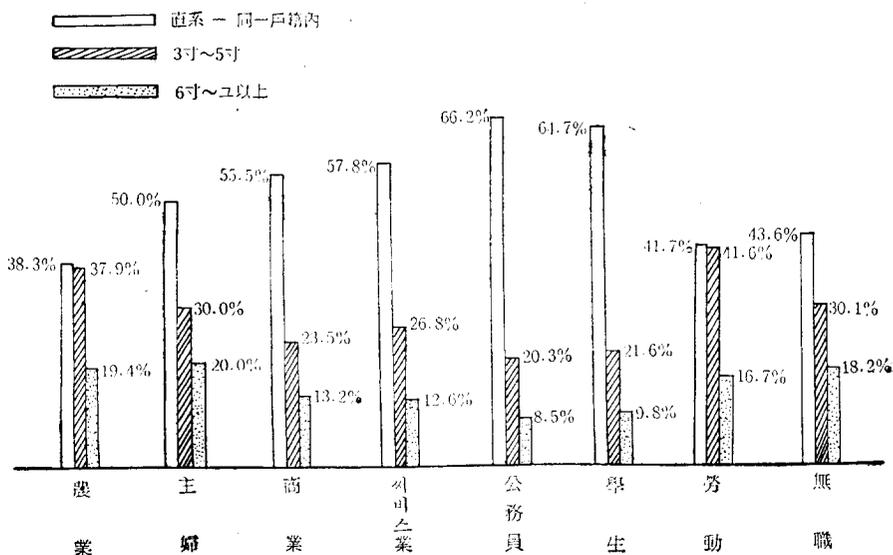
資 料

齡에 있어서보다도 적은 것은 特異하다.

(바) 職業別

	直系 家族만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同一戶籍 內의家族	3寸 까지	4寸 까지	5寸 까지	6寸~8 寸까지	9寸~12 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農 業 %	39 (9.6)	95 (23.3)	22 (5.4)	32 (7.9)	83 (20.4)	39 (9.6)	60 (14.7)	10 (2.5)	9 (2.2)	18 (4.4)	407
主 婦 %	4 (40.0)	1 (10.0)	0	0	1 (10.0)	2 (20.0)	1 (10.0)	1 (10.0)	0	0	10
商 業 %	26 (20.3)	33 (25.8)	12 (9.4)	3 (2.4)	22 (17.2)	5 (3.9)	9 (7.0)	4 (3.1)	4 (3.1)	10 (7.8)	128
서비스 業 %	19 (26.8)	14 (19.7)	8 (11.3)	8 (11.3)	8 (11.3)	3 (4.2)	3 (4.2)	1 (1.4)	5 (7.0)	2 (2.8)	71
公 務 員 %	8 (13.5)	26 (44.1)	5 (8.6)	2 (3.4)	7 (11.8)	3 (5.1)	2 (3.4)	0	3 (5.1)	3 (5.0)	59
學 生 %	10 (19.6)	17 (33.3)	6 (11.8)	2 (3.9)	8 (15.8)	1 (1.9)	1 (1.9)	0	4 (7.9)	2 (3.9)	51
勞 動 %	0	3 (25.0)	2 (16.7)	1 (8.3)	3 (25.0)	1 (8.3)	1 (8.3)	1 (8.4)	0	0	12
無 職 %	45 (15.2)	60 (20.3)	24 (8.1)	15 (5.1)	52 (17.6)	22 (7.4)	26 (8.8)	17 (5.7)	11 (3.7)	24 (8.1)	296
其 他 %	13 (20.3)	18 (28.1)	3 (4.7)	6 (9.4)	10 (15.6)	3 (4.7)	3 (4.7)	2 (3.1)	4 (6.3)	2 (3.1)	64
計	164	267	82	69	194	79	106	36	40	61	1098

위의 要領에 依하여 答을 셋 씩 묶어서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職業을 通하여 直系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이 가장 많고, 3寸 乃至 5寸이라는 答이 그 다음이며, 6寸以上까지라는 答이 가장 적은 點은 共通하다. 그러나 첫째의 答이 둘째, 셋째의 答에 比하여 特히 많은 것은 公務員과 學生에 있어서이며, 그 다음으로 첫째의 答이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많은 것은 商業과 서비스業이다.

(사) 性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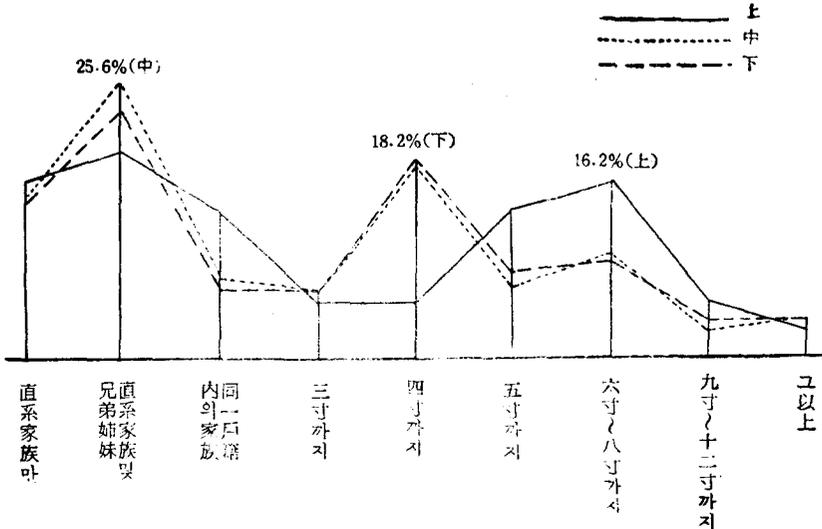
	直系 家族만	直系家族및 兄弟姊妹	同一戶籍 內의家族만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 寸까지	9寸~12 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男	94	161	48	48	114	48	72	19	18	23	645
%	(14.6)	(24.9)	(7.5)	(7.5)	(17.7)	(7.5)	(11.2)	(2.9)	(2.6)	(3.6)	
女	68	105	34	20	78	31	32	17	22	37	444
%	(15.3)	(23.6)	(7.7)	(4.5)	(17.6)	(7.0)	(7.2)	(3.8)	(5.0)	(8.3)	
不明	2	1	0	1	2	0	2	0	0	1	9
%	(22.2)	(11.1)		(11.1)	(22.2)		(22.2)			(11.2)	
計	164	267	82	69	194	79	106	36	40	61	1098

이 물음에 있어서는 全體의으로 男女間에 特別한 差異를 發見할 수 없다.

(아) 生活程度別

	直系 家族만	直系家族및 兄弟姊妹	同一戶籍 內의家族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 寸까지	9寸~12 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上	6	7	5	2	2	5	6	2	1	1	37
%	(16.2)	(19.0)	(13.5)	(5.4)	(5.4)	(13.5)	(16.2)	(5.4)	(2.7)	(2.7)	
中	92	156	47	39	109	40	59	16	24	28	610
%	(15.1)	(25.6)	(7.7)	(6.4)	(17.9)	(6.5)	(9.7)	(2.6)	(3.9)	(4.6)	
下	63	100	28	27	79	34	39	19	15	31	433
%	(14.6)	(23.0)	(6.5)	(6.2)	(18.2)	(7.9)	(9.0)	(3.9)	(3.5)	(7.2)	
不明	3	4	2	1	4	0	2	1	0	1	18
%	(16.6)	(22.2)	(11.1)	(5.6)	(22.2)		(11.1)	(5.6)		(5.6)	
計	164	267	82	69	194	79	106	36	40	61	1098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中流와 下流 사이에는 큰 差異가 없는데, 上流에 있어서는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 만이라는 答과 4寸까지라는 答이 他二者에 있어서보다 적고, 5寸까지, 6寸~8寸까지, 9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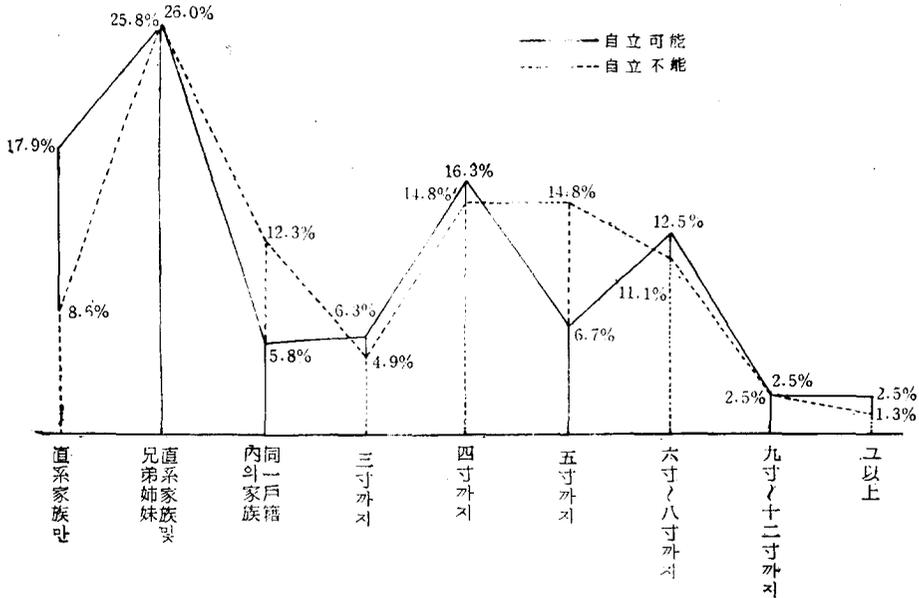
資 料

12寸까지라는 답들이 他二者에 있어서 보다 많다.

(자) 戶主가 된 當時의 生活事情別

	直系 家族만	直系家族및 兄弟姊妹	同一戶籍 内の家族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 寸까지	9寸~12 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自立可能 %	43 (17.9)	62 (25.8)	14 (5.8)	15 (6.3)	39 (16.3)	16 (6.7)	30 (12.5)	6 (2.5)	6 (2.5)	9 (3.7)	240
自立不能 %	7 (8.6)	21 (26.0)	10 (12.3)	4 (4.9)	12 (14.8)	12 (14.8)	9 (11.1)	2 (2.5)	1 (1.3)	3 (3.7)	81
其他 %	2 (33.3)	1 (16.7)	1 (16.7)	0	0	0	2 (33.3)	0	0	0	6
無 應 答 %	2 (22.2)	2 (22.2)	0	0	3 (33.3)	1 (11.1)	0	0	0	1 (11.1)	9
計 %	54 (16.1)	86 (25.6)	25 (7.4)	19 (5.7)	54 (16.1)	29 (8.6)	41 (12.2)	8 (2.4)	7 (2.1)	13 (3.8)	336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直系家族만이라는 답은 自立可能의 경우에 더 많고, 同一戶籍内の 家族이라는 답은 自立不能의 경우에 더 많으며, 5寸까지라는 답은 특히 自立不能의 경우에 더 많다. 그러나 그 밖에는 兩者間에 特別히 다른 傾向을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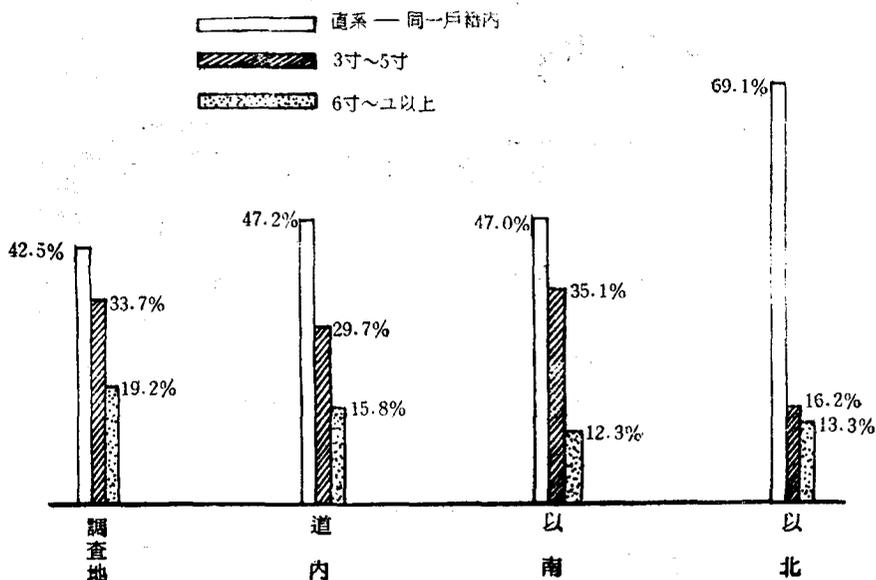
(차) 出生地別

	直系 家族만	直系家族및 兄弟姊妹	同一戶籍 内の家族	3寸까지	4寸까지	5寸까지	6寸~8 寸까지	9寸~12 寸까지	그以上	其他	計
調査地內 %	52 (10.0)	133 (25.4)	37 (7.1)	35 (6.7)	99 (19.0)	42 (8.0)	73 (14.0)	16 (3.1)	11 (2.1)	24 (4.6)	522
道 內 %	55 (16.1)	83 (24.3)	23 (6.8)	21 (6.2)	53 (15.5)	27 (8.0)	27 (8.0)	10 (2.9)	17 (4.9)	25 (7.3)	341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以 南	24	32	12	10	35	6	5	5	8	8	145
%	(16.6)	(22.1)	(8.3)	(6.9)	(24.1)	(4.1)	(3.4)	(3.4)	(5.5)	(5.5)	
以 北	25	12	10	3	5	3	1	5	3	1	68
%	(36.8)	(17.6)	(14.7)	(4.4)	(7.4)	(4.4)	(1.5)	(7.4)	(4.4)	(1.5)	
其 他	7	6	0	0	2	1	0	0	0	3	19
%	(36.8)	(31.6)			(10.5)	(5.3)				(15.8)	
無 應 答	1	1	0	0	0	0	0	0	1	0	3
%	(33.3)	(33.3)							(33.3)		
計	164	267	82	69	194	79	106	36	40	61	1098

답을 셋 씩 묶어서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調查地—道內—以南—以北의 順序로 直系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은 늘고, 6寸 乃至 그 以上이라는 答은 준다. 特히 以北出生者에 있어서는 直系 乃至 同一戶籍內라는 答, 그 中에서도 直系家族단이라는 答이 壓倒的으로 많고, 그 以外の 答은 極히 少數이다.

第七章 個人主義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家族制度를 崩壞시키는 또 하나의 重大한 要因은 個人主義 思想의 浸透인데, 果然 個人主義 思想의 浸透가 우리 나라의 家族制度 意識에 어느 程度의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기 爲하여, 婚姻에 있어서의 配偶者의 選定 및 婚姻에 대한 同意의 問題와 父母의 意見에 反對하고 自己의 意見을 貫徹시킨 일이 있느냐의 問題를 擇하여 보았다.

(1) 子女들(貫下의)의 配偶者는 누가 選定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第30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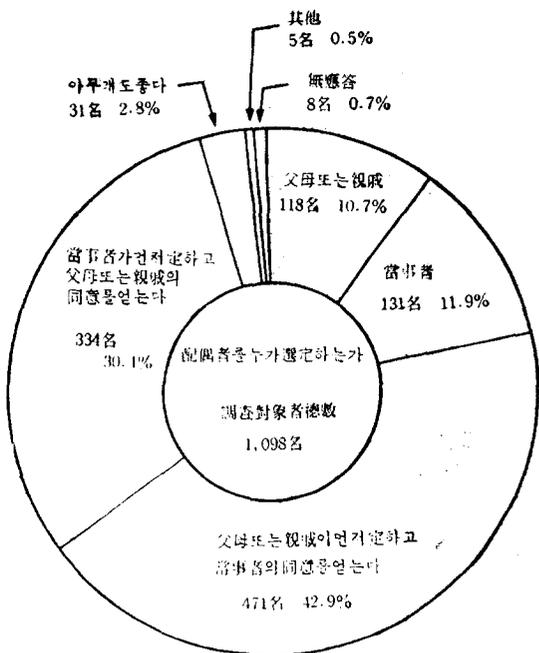
(가) 總 括

다음의 表와 같다.

資 料

즉 父母 또는 親戚이 먼저 定하고 當事者의 同意를 얻는다는 것이 壓倒的으로 많고, 當事者가 먼저 定하고 父母 또는 親戚의 同意를 얻는다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 두 가지 答은 結局 當事者와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의 合致로써 定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合計는 73.3%에 達한다. 이에 反하여 當事者의 意見만으로 定해야 한다는 答은 11.9%에 不過하고, 父母 또는 親戚이 單獨으로 定한다는 答이 아직도 10.7%나 된다.

그리고 當事者가 單獨으로 定한다는 答과 當事者가 먼저 定하고 父母 또는 親戚의 同意를 얻는다는 答을 當事者의 意見을 보다 尊重하는 答, 父母 또는 親戚이 單獨으로 定한다는 答과 父母 또는 親戚이 定한 後에 當事者의 同意를 얻는다는 答이 當事者의 意思보다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보다 더 尊重하는 答이라고 한다면, 前者가 42.3% 後者가 53.6%로서, 後者가 아직 相當히 優勢하다.



그리고 當事者가 單獨으로 定한다는 答과 當事者가 먼저 定하고 父母 또는 親戚의 同意를 얻는다는 答을 當事者의 意見을 보다 尊重하는 答, 父母 또는 親戚이 單獨으로 定한다는 答과 父母 또는 親戚이 定한 後에 當事者의 同意를 얻는다는 答이 當事者의 意思보다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보다 더 尊重하는 答이라고 한다면, 前者가 42.3% 後者가 53.6%로서, 後者가 아직 相當히 優勢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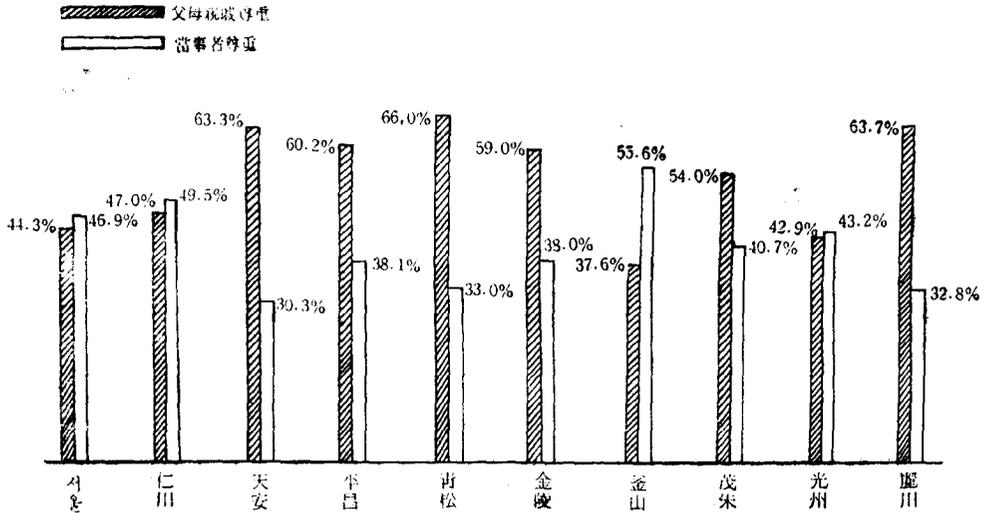
(나) 地域別

	① 父母 또는 親 戚	② 當事者	③ 父母親戚先定 當事者同意	④ 當事者先定 父母親戚同意	⑤ 아무래도 좋다	⑥ 其 他	⑦ 無應答	計
서울 %	3 (2.8)	7 (6.6)	44 (41.5)	47 (40.3)	4 (3.8)	0	1 (0.9)	106
仁川 %	3 (2.6)	12 (10.4)	51 (44.3)	45 (39.1)	4 (3.5)	0	0	115
天安 %	18 (16.5)	15 (13.8)	51 (46.8)	18 (16.5)	4 (3.7)	3 (2.8)	0	109
平昌 %	12 (10.6)	7 (6.2)	56 (49.6)	36 (31.9)	1 (0.9)	1 (0.9)	0	113
靑松 %	9 (9.0)	12 (12.0)	57 (57.0)	21 (21.0)	1 (1.0)	0	0	100
金陵 %	14 (13.3)	20 (19.0)	48 (45.7)	20 (19.0)	2 (1.9)	0	1 (1.0)	105
釜山 %	7 (6.0)	14 (12.0)	37 (31.6)	51 (43.6)	6 (5.1)	0	2 (1.7)	117
茂朱 %	25 (22.1)	18 (15.9)	36 (31.9)	28 (24.8)	5 (4.4)	0	1 (0.9)	113
光州 %	7 (6.5)	16 (14.9)	39 (36.4)	41 (28.3)	2 (1.9)	0	2 (1.9)	107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麗川	20	10	52	27	2	1	1	113
%	(17.7)	(8.9)	(46.0)	(23.9)	(1.8)	(0.9)	(0.9)	
計	118	131	471	334	31	5	8	1098
%	(10.7)	(11.9)	(42.9)	(30.4)	(2.8)	(0.5)	(0.7)	

各地域마다 父母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①+③)과 當事者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②+④)을 그래프로 比較하여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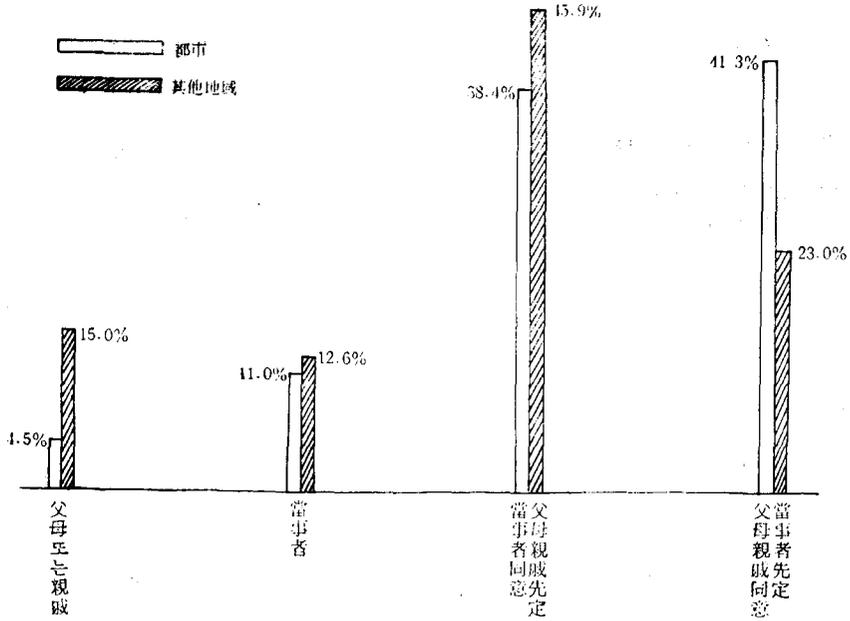


이것으로 보건대, 서울, 仁川, 釜山, 光州에 있어서는 모두 當事者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이 父母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보다 많고, 特히 釜山에 있어서는 그 差異가 크다. 이에 反하여 다른 六個地域에 있어서는 모두 父母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이 50% 線을 넘으며, 當事者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보다 顯著히 더 많다.

이와 같이 都市와 其他 地域사이에 差異가 많은 만큼, 四個都市와 其他 地域과를 나누어 各種의 答의 分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個都市	其他地域
父母 또는 親戚	20	98
%	(4.5)	(15.0)
當事者	49	82
%	(11.0)	(12.6)
父母親戚先定當事者同意	171	300
%	(38.4)	(45.9)
當事者先定父母親戚同意	184	150
%	(41.3)	(23.0)
아무래도 좋다	16	15
%	(3.6)	(2.3)
其他	0	5
%		(0.8)
無 應 答	5	3
%	(1.1)	(0.5)
計	445	653

이것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當事者が 單獨으로 定한다는 答은 어느 쪽에 있어서나 아직 많지 않지만, 父母 또는 親戚이 單獨으로 定한다는 答은 都市에 있어서는 極少數인데 反하여 其他 地域에 있어서는 아직 相當數에 達한다. 또 한편이 먼저 定한 後에 同意를 얻는다는 答도 都市에 있어서는 當事者가 먼저 定한다는 것이 壓倒的으로 많지만 其他 地域에 있어서는 父母 또는 親戚이 먼저 定한다는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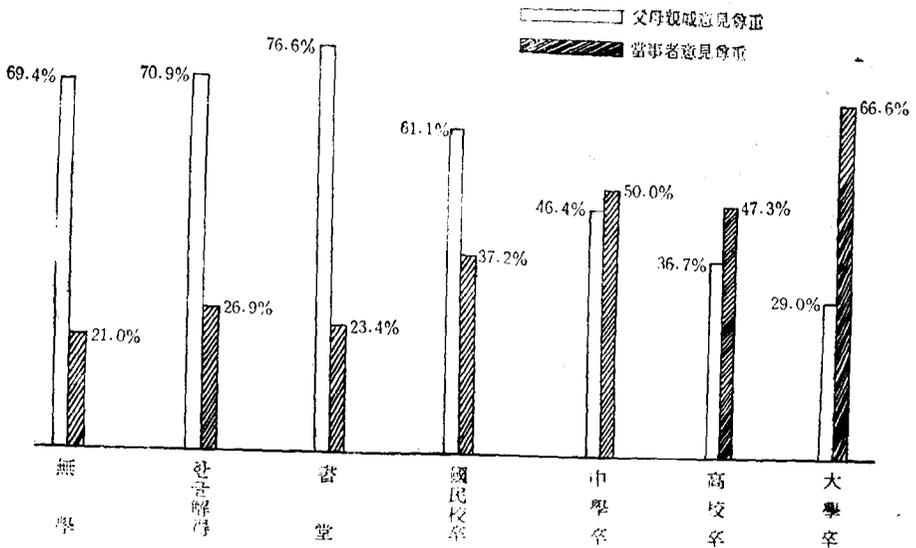
(다) 學歷別

	父母 또는 親戚	當事者	父母親戚先定 當事者同意	當事者先定 父母親戚同意	아무래도 좋다	其他	無應答	計
無學 %	32 (25.8)	9 (7.3)	54 (43.6)	17 (13.7)	9 (7.3)	1 (0.8)	2 (1.6)	124
한글解得 %	30 (21.3)	13 (9.2)	70 (49.6)	25 (17.7)	0	2 (1.4)	1 (0.7)	141
書堂 %	7 (23.3)	2 (6.7)	16 (53.3)	5 (16.7)	0	0	0	30
國民校卒 %	34 (10.3)	43 (13.3)	168 (50.8)	79 (23.9)	7 (2.1)	0	0	331
中校卒 %	9 (5.6)	23 (16.2)	58 (40.8)	48 (33.8)	4 (2.8)	0	1 (0.7)	142
高校卒 %	4 (2.4)	22 (13.3)	57 (34.3)	73 (44.0)	6 (3.6)	2 (1.2)	2 (1.2)	166
大學卒 %	3 (2.2)	17 (12.3)	37 (26.8)	75 (54.3)	5 (3.6)	0	1 (0.7)	138
그以上 %	0	0	4 (50.0)	4 (50.0)	0	0	0	8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其他	0	2	7	8	0	0	1	18
%		(11.1)	(38.9)	(44.4)			(5.6)	
計	118	131	471	334	31	5	8	1098
%	(10.7)	(11.9)	(42.9)	(30.4)	(2.8)	(0.5)	(0.7)	

大體로 말해서, 父母 또는 親戚이 定한다는 答과 父母 또는 親戚이 먼저 定하고 當事者의 同意를 얻는다는 答은 學歷程度가 높음에 따라서 減少하고, 反對로 當事者가 定한다는 答과 當事者가 먼저 定하고 父母 또는 親戚의 同意를 얻는다는 答은 學歷程度가 높음에 따라서 增加한다. 前者(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보다 尊重하는 答=①+③)와 後者(當事者의 意見을 보다 尊重하는 答=②+④)를 그래프로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은 顯著히 減少되고, 反對로 當事者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은 顯著히 增加하여, 國民校卒 以下에 있어서는 前者의 答이 많지만 中學校卒부터는 後者가 前者보다 많아져, 大學卒에 있어서는 後者가 前者의 倍以上에 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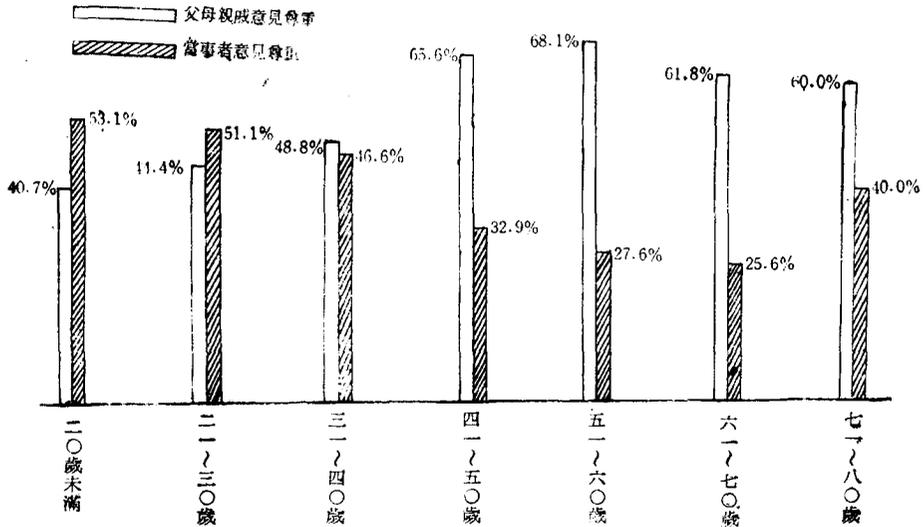
(라) 年齡別

	父母 또는 親戚	當事者	父母親戚先定 當事者同意	當事者先定 父母親戚同意	아무래 도중다	其他	無應答	計
20歲未滿 %	2 (3.7)	6 (11.1)	20 (37.0)	23 (42.0)	2 (3.7)	0	1 (1.9)	54
21~30歲 %	17 (5.4)	37 (11.7)	123 (39.0)	124 (39.4)	8 (2.5)	4 (1.3)	2 (0.6)	315
31~40歲 %	37 (11.5)	53 (16.3)	120 (37.3)	96 (30.3)	14 (4.3)	0	2 (0.6)	322
41~50歲 %	38 (16.9)	23 (10.1)	111 (48.7)	52 (22.8)	3 (1.3)	0	1 (0.4)	228

資 料

51~60歲 %	15 (12.9)	7 (6.0)	64 (55.2)	25 (21.6)	4 (3.4)	0	1 (0.9)	116
61~70歲 %	8 (20.5)	3 (7.7)	20 (51.3)	7 (17.9)	0	1 (2.6)	0	39
71~80歲 %	1 (10.0)	1 (10.0)	5 (50.0)	3 (30.0)	0	0	0	10
81歲以上 %	0	0	3 (100.0)	0	0	0	0	3
不 明 %	0	1 (9.1)	5 (45.5)	4 (36.4)	0	0	1 (9.1)	11
計 %	118 (10.7)	131 (11.9)	471 (42.9)	334 (30.4)	31 (2.8)	5 (0.5)	8 (0.7)	1098

위에서와 같은 要領으로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과 當事者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으로 나누어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말해서, 年齡이 많아짐에 따라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이 많아지고, 反對로 當事者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이 적어진다. 그 結果 20代까지는 當事者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이 더 많고, 30代以上에 있어서는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이 더 많다.

(마) 宗教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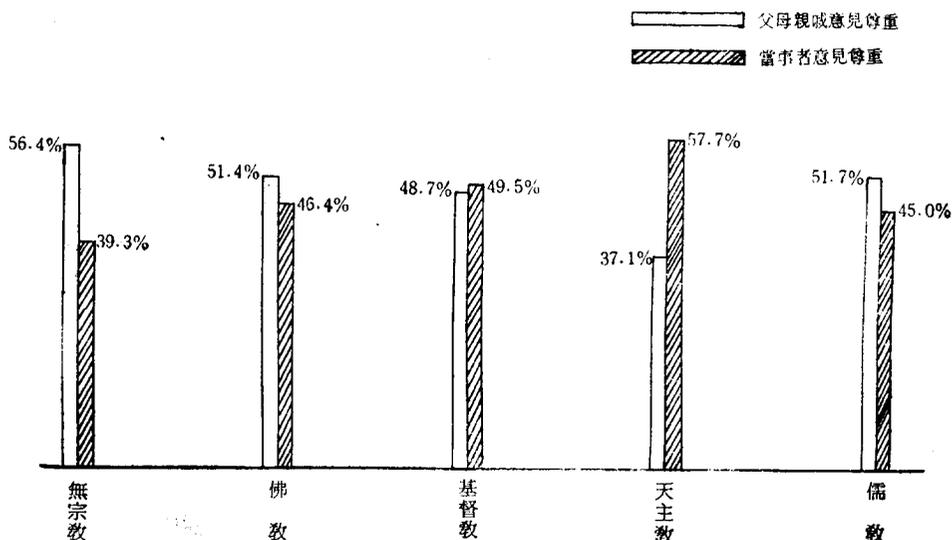
	父母 또는 親戚	當事者	父母親戚先定 當事者同意	當事者先定 父母親戚同意	아무래 도 좋다	其 他	應無答	計
無 %	87 (12.3)	82 (11.6)	312 (44.1)	196 (27.7)	21 (3.0)	3 (0.4)	7 (1.0)	708
佛 教 %	8 (5.8)	16 (11.6)	63 (45.6)	48 (34.8)	3 (2.2)	0	0	138
基督敎 %	7 (6.1)	16 (13.9)	49 (42.6)	14 (35.6)	2 (1.7)	0	0	115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天主教	3	6	14	20	2	0	0	45
%	(6.0)	(13.3)	(31.1)	(44.4)	(4.4)			
儒教	9	5	22	22	2	0	0	60
%	(15.0)	(8.3)	(36.7)	(36.7)	(3.3)			
天道教	0	0	0	1	0	0	0	1
%				(100.0)				
其他	1	4	8	3	0	2	0	18
%	(5.6)	(22.2)	(44.4)	(16.7)		(11.1)		
不明	3	2	3	3	1	0	1	13
%	(23.1)	(15.4)	(23.1)	(23.1)	(7.7)		(7.7)	
計	118	131	471	334	31	5	8	1098
%	(10.7)	(11.9)	(42.9)	(30.4)	(2.8)	(0.5)	(0.7)	

當事者 單獨로 定한다는 答만을 가지고 본다면, 基督教이 가장 많고 天主教가 이에 다음가며, 佛敎와 無宗敎가 中間이고, 儒敎에 있어서 가장 적다.

答을 父母 또는 親戚의 意見을 보다 尊重하는 것과, 當事者의 意見을 보다 尊重하는 것의 二群으로 나누어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즉 無宗敎에 있어서 當事者尊重이 가장 적고 父母親戚尊重이 가장 많으며, 儒敎가 이에 다음간다. 이와 反對로 當事者尊重이 가장 많고 父母親戚尊重이 가장 적은 것은 天主教이며 基督教이 이에 다음간다. 佛敎는 儒敎와 基督, 天主教의 中間이다.

(바) 性別

	父母 또는 親戚	當事者	父母親戚先定 當事者同意	當事者先定 父母親戚同意	아무래 도 좋다	其他	無應答	計
男	64	90	253	215	18	3	2	645
%	(9.9)	(14.0)	(39.2)	(33.3)	(2.8)	(0.5)	(0.5)	
女	53	40	214	116	13	2	5	444
%	(13.5)	(10.2)	(54.6)	(29.6)	(3.3)	(0.5)	(1.3)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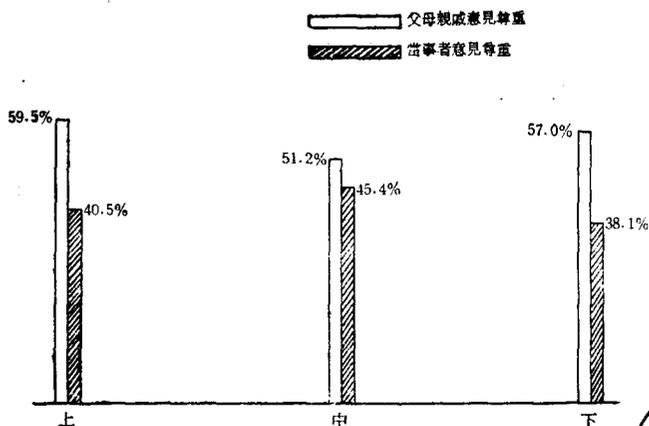
不 明	1	1	4	3	0	0	1	9
%	(11.1)	(11.1)	(44.4)	(33.3)			(11.1)	
計	118	131	471	334	31	5	8	1098
	(10.7)	(11.9)	(42.9)	(30.4)	(2.8)	(0.5)	(0.7)	

當事者の 意思보다도 父母 親戚의 意見을 尊重 乃至 그에 依存하는 程度가 女子에게 顯著히 더한 것 같이 보인다.

(사) 生活程度別

	父母 또는 親 戚	當事者	父母親戚先定 當事者 同意	當事者先定 父母親戚同意	아무래 도 좋다	其 他	無 應 答	計
上	4	5	18	10	0	0	0	37
%	(10.8)	(13.5)	(48.7)	(27.0)				
中	59	75	253	202	17	2	2	610
%	(9.7)	(12.3)	(41.5)	(33.1)	(2.8)	(0.3)	(0.3)	
下	53	49	194	116	13	3	5	433
%	(12.2)	(11.3)	(44.8)	(26.8)	(3.0)	(0.9)	(1.2)	
不 明	2	2	6	6	1	0	1	18
%	(11.1)	(11.1)	(33.3)	(33.3)	(5.6)		(5.6)	
計	118	131	471	334	31	5	8	1098

위에서와 같은 要領으로 答을 二群으로 나누어서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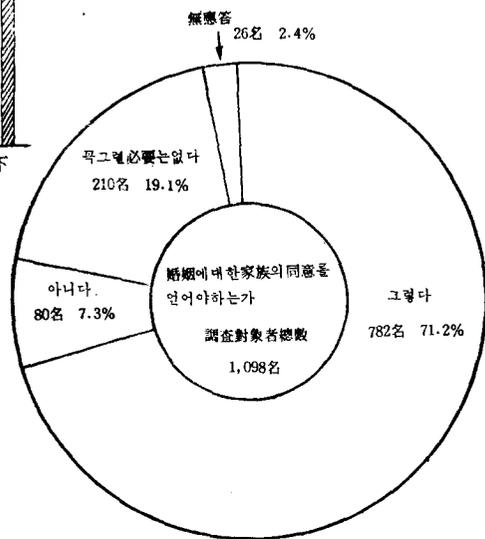


全體의으로 보아 生活程度如何에 따라서 큰 差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다만 父母 親戚의 意見을 尊重하는 答은 上流에 가장 많고, 下流가 다음이고, 中流에

가장 적다. 反對로 當事者의 意見을 보다 尊重하는 答은 中流에 가장 많고, 上流가 다음이고, 下流에 가장 적다.

(2) 婚姻을 할때에 반드시 家族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第31問)

이 물음에 대한 總括的 集計는 右表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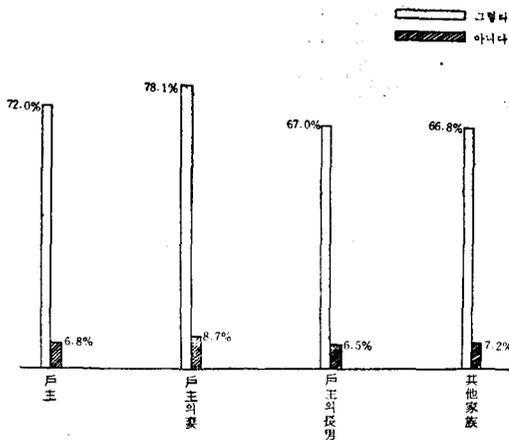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그렇다」는 答이 壓倒的多數이고, 「안 그렇다」는 答은 極히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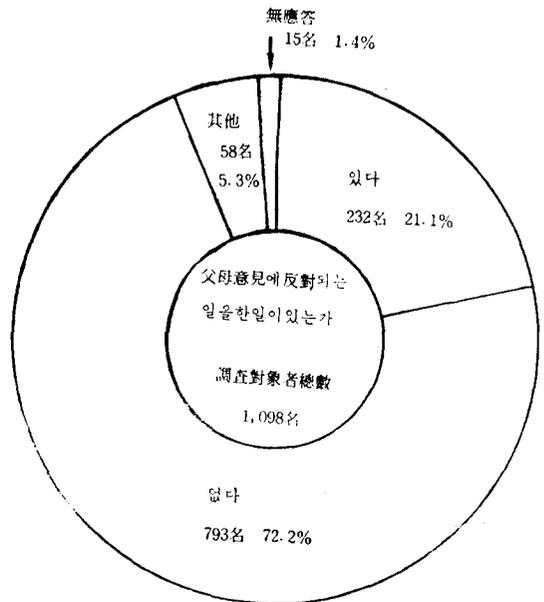
이 答을 家族의 立場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	아니다	꼭그럴必要는없다	無應答	計
戶主 %	242 (72.0)	23 (6.8)	63 (18.7)	8 (2.4)	336
戶主의 妻 %	207 (78.1)	23 (8.7)	30 (11.3)	5 (1.9)	265
戶主의 長男 %	154 (67.0)	15 (6.5)	55 (23.9)	6 (2.6)	230
其他 家族 %	177 (66.8)	19 (7.2)	62 (23.4)	7 (2.6)	265
不明 %	2 (100.0)	0	0	0	2
計 %	782 (71.2)	80 (7.3)	210 (19.1)	26 (2.4)	1098

「그렇다」와 「아니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의 答이 戶主의 妻에 있어서 가장 많고, 戶主가 이에 다음가며, 戶主의 長男에 있어서는 이보다 5%가 적으며, 其他 家族에 있어서는 그보다 다시 若干 더 적



다. 그런데 「아니다」의 答에 있어서도 戶主의 妻가 으뜸임은 若干 特異하다.

(3) 지금까지 父母의 意見에 反對되는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第33問)

(가) 總括

右의 圖表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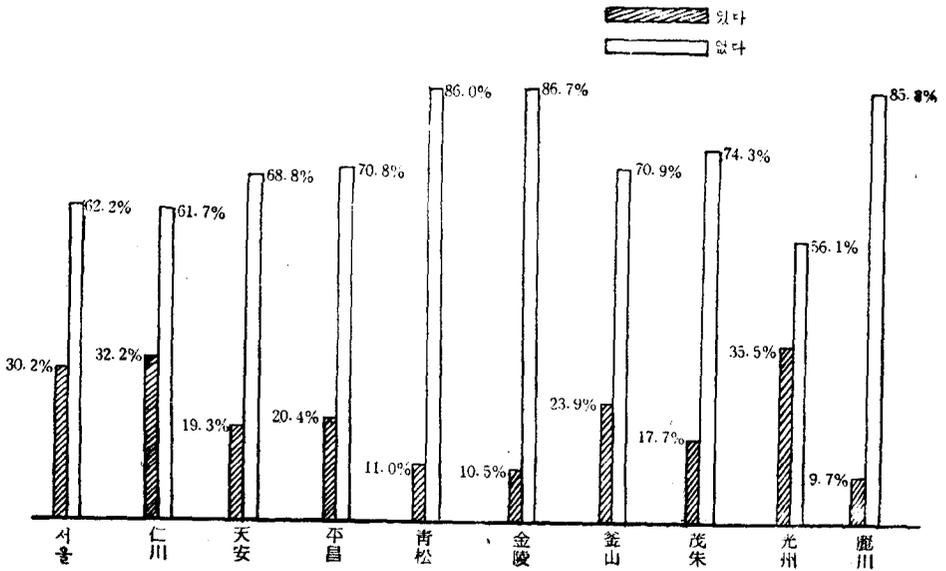
(나) 地域別

서울 %	있 다 (30.2)	없 다 (62.2)	其 他 (2.9)	無應答 (4.7)	計 106
------	------------	------------	-----------	-----------	-------

資 料

仁川	37	71	6	1	115
%	(32.2)	(61.7)	(5.2)	(0.9)	
天安	21	75	12	1	109
%	(19.3)	(68.8)	(11.0)	(0.9)	
平昌	23	80	9	1	113
%	(20.4)	(70.8)	(8.0)	(0.8)	
靑松	11	86	3	0	100
%	(11.0)	(86.0)	(3.0)		
金陵	11	91	2	1	105
%	(10.5)	(86.7)	(1.9)	(0.9)	
釜山	28	83	6	0	117
%	(23.9)	(70.9)	(5.0)		
茂朱	20	84	9	0	113
%	(17.7)	(74.3)	(80.0)		
光州	38	60	3	6	107
%	(35.5)	(56.1)	(2.8)	(5.6)	
麗川	11	97	5	0	113
%	(9.7)	(85.8)	(4.5)		

「있다」와 「없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있다」의 答이 가장 많은 곳은 光州이며 다음은 仁川, 서울의 順序이다. 그리고 「있다」의 答이 많은 편으로부터 四位까지는 四個都市가 차지하고 있다. 「있다」의 答이 가장 적은 곳은 麗川이며, 다음은 金陵, 靑松의 順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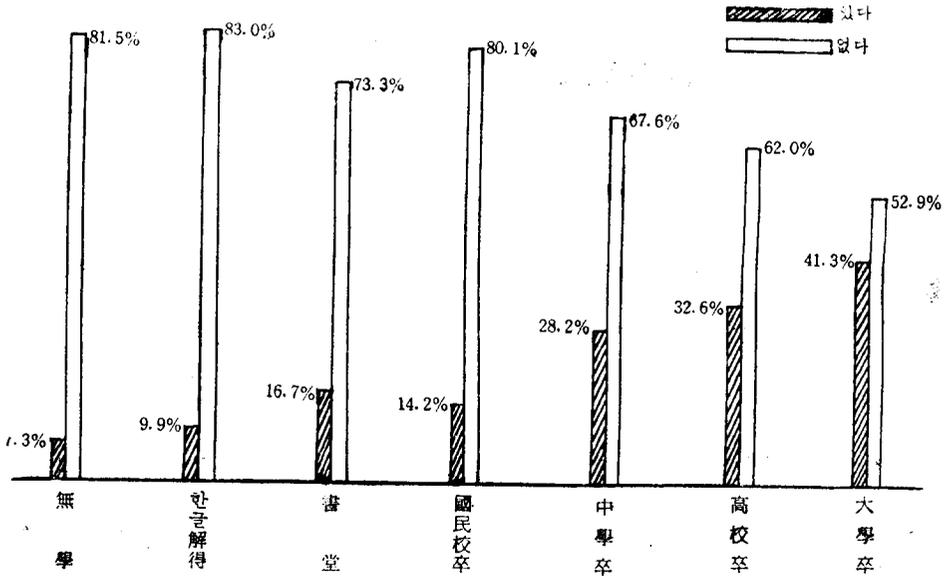
(다) 學歷別

		있 다	없 다	其 他	無 應 答	計
無	學	9	101	14	0	124
%		(7.3)	(81.5)	(11.2)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한글解得	14	117	9	1	141
%	(9.9)	(83.0)	(6.4)	(0.7)	
書堂	5	22	2	1	30
%	(16.7)	(73.3)	(6.7)	(3.3)	
國民校卒	47	265	18	1	331
%	(14.2)	(80.1)	(5.4)	(0.3)	
中學校卒	40	96	3	3	142
%	(28.2)	(67.6)	(2.1)	(2.1)	
高校卒	54	103	7	2	166
%	(32.6)	(62.0)	(4.2)	(1.2)	
大學卒	57	73	4	4	138
%	(41.3)	(52.9)	(2.9)	(2.9)	
그以上	3	3	0	2	8
%	(37.5)	(37.5)		(25.0)	
無應答	3	13	1	1	18
%	(16.6)	(72.2)	(5.6)	(5.6)	
計	232	793	58	15	1098
%	(21.1)	(72.2)	(5.3)	(1.4)	

「있다」와 「없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學歷程度가 높을수록 「있다」의 答이 많아지고 「없다」의 答이 적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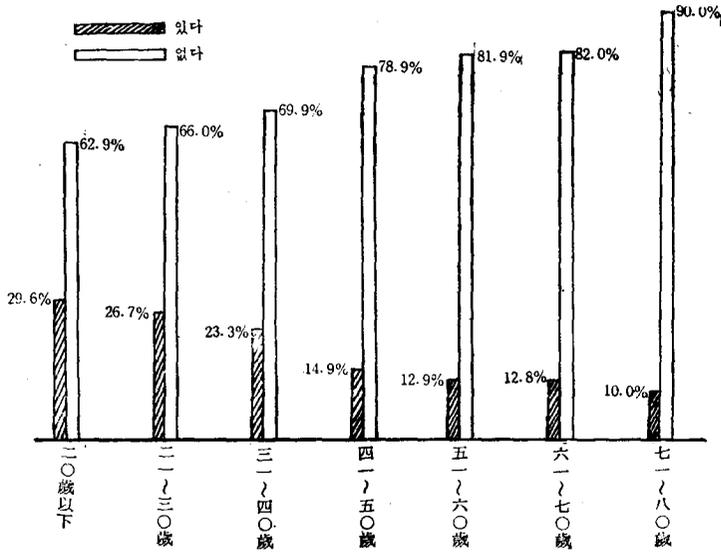
(라) 年齡別

	있 다	없 다	其 他	無應答	計
20歲以下	16	34	3	1	54
%	(29.6)	(62.9)	(5.6)	(1.9)	
21~30歲	84	208	18	5	315
%	(26.7)	(66.0)	(5.7)	(1.6)	
31~40歲	75	225	18	4	322
%	(23.3)	(69.9)	(5.6)	(1.2)	

資 料

41~50歲 %	34 (14.9)	180 (78.9)	11 (4.9)	3 (1.3)	228
51~60歲 %	15 (12.9)	95 (81.9)	6 (5.2)	0	116
61~70歲 %	5 (12.8)	32 (82.0)	1 (2.6)	1 (2.6)	39
71~80歲 %	1 (10.0)	9 (90.0)	0	0	10
81歲以上 %	0	2 (66.7)	1 (33.3)	0	3
不 明 %	2 (18.1)	8 (72.7)	0	1 (9.1)	11
計 %	232 (21.1)	793 (72.2)	58 (5.3)	15 (1.4)	1098

「있다」와 「없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年齡이 적을수록 「있다」의 答이 많아지고 「없다」의 答이 적어진다. 그러나 「있다」의 答이 가장 많고 「없다」의 答이 가장 적은 20歲未滿에 있어서도, 「없다」의 答이 「있다」의 答의 倍를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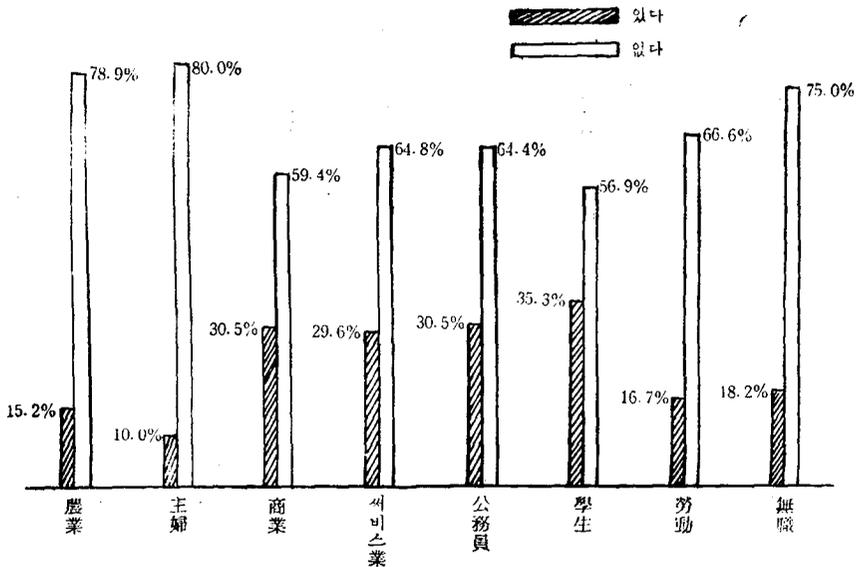
(다) 職業別

職業	있 다	없 다	其 他	無 應 答	計
農 業 %	62 (15.2)	321 (78.9)	23 (5.7)	1 (0.2)	407
主 婦 %	1 (10.0)	8 (80.0)	1 (10.0)	0	10
商 業 %	39 (30.5)	76 (59.4)	9 (7.0)	4 (3.1)	128
서 비 스 業 %	21 (29.6)	46 (64.8)	4 (5.6)	0	71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公務員	18 (30.5)	38 (64.4)	1 (1.7)	2 (3.4)	59
學生	18 (35.3)	29 (56.9)	2 (3.5)	2 (3.5)	51
勞動	2 (16.7)	8 (66.6)	2 (16.7)	0	12
無職	54 (18.2)	222 (75.0)	16 (5.4)	4 (1.4)	296
其他	17 (26.6)	45 (70.3)	0	2 (3.1)	64
計	232	793	58	15	1098

「있다」와 「없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있다」의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學生이고, 그 다음이 公務員과 商業이며, 서비스業이 이보다 若干 적다. 「있다」의 答이 가장 적은 것은 主婦이고, 다음이 農業, 勞動의 順序이다. 「없다」의 答은 大體로 이와 反比例한다. 다른 물음에 있어서는 商業은 農業과 큰 差異가 없었는데, 本問에 있어서는 相當한 差異가 있다. 그리고 「있다」가 가장 많고 「없다」가 가장 적은 學生에 있어서는 「없다」의 答이 「있다」의 答보다 越等하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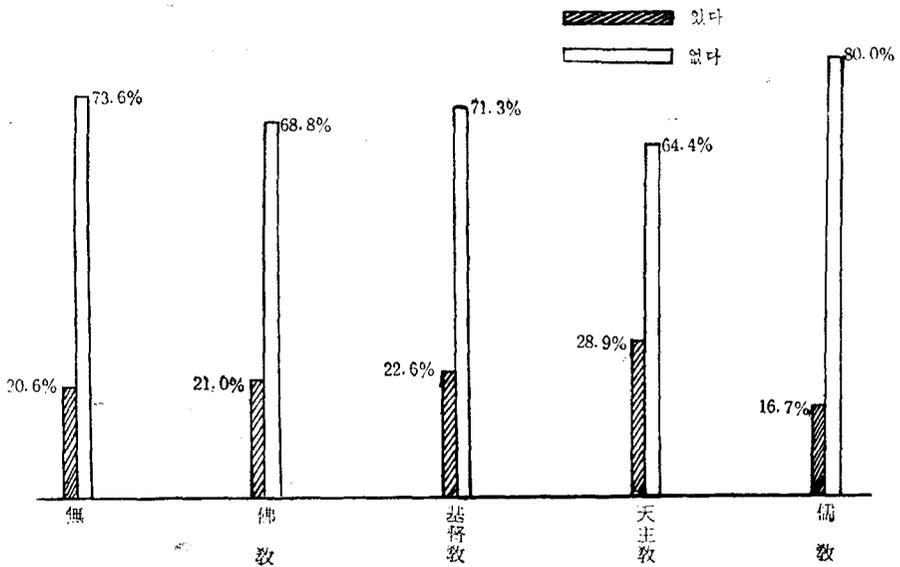
(바) 宗教別

	있 다	없 다	其 他	無應答	計
無 %	146 (20.6)	521 (73.6)	34 (4.8)	7 (1.0)	708
佛 % 教	29 (21.0)	95 (68.8)	10 (7.3)	4 (2.9)	138
基 督 % 教	26 (22.6)	82 (71.3)	4 (3.5)	3 (2.6)	115

資 料

天 主 教	13	29	3	0	45
%	(28.9)	(64.4)	(6.7)		
儒 教	10	48	2	0	60
%	(16.7)	(80.0)	(3.3)		
天 道 教	0	1	0	0	1
%		(100.0)			
其 他	5	8	5	0	18
%	(27.8)	(44.4)	(27.8)		
不 明	3	9	0	1	13
%	(23.1)	(69.2)		(7.7)	
計	232	793	58	15	1098

「있다」와 「없다」의 答을 그래프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있다」의 答이 가장 많은 것은 天主教이고, 가장 적은 것은 儒教이다. 「없다」의 答은 大體로 이와 反比例한다.

(사) 性 別

	있 다	없 다	其 他	無 應 答	計
男	162	448	26	9	645
%	(25.1)	(69.5)	(4.0)	(1.4)	
女	69	338	32	5	444
%	(15.6)	(76.1)	(7.2)	(1.1)	
不 明	1	7	0	1	9
%	(11.1)	(77.8)		(11.1)	
計	232	793	58	15	1098
%	(21.1)	(72.1)	(5.3)	(1.4)	

女子에 있어서는 「있다」의 答이 男子보다 훨씬 적다.

(아) 生活程度別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있 다	없 다	其 他	無應答	計
上 %	5 (13.5)	30 (81.1)	2 (5.4)	0	37
中 %	146 (23.9)	432 (70.8)	23 (3.8)	9 (1.5)	610
下 %	78 (18.0)	319 (73.7)	31 (7.1)	5 (1.2)	433
不 明 %	3 (16.7)	12 (66.7)	2 (11.1)	1 (5.5)	18
計 %	232 (21.1)	793 (72.2)	58 (5.3)	15 (1.4)	1098

「있다」의 答이 가장 적고 「없다」의 答이 가장 많은 것은 上流이고, 그다음은 下流이며, 中流에 있어서는 「있다」의 答이 가장 많고 「없다」의 答이 가장 적다.

(자) 戶主된 當時의 生活事情別

	있 다	없 다	其 他	無應答	計
自 立 可 能 %	56 (23.3)	171 (71.3)	11 (4.6)	2 (0.8)	240
自 立 不 能 %	17 (21.0)	60 (74.1)	4 (4.9)	0	81
其 他 %	2 (40.0)	3 (60.0)	0	0	5
無 應 答 %	3 (30.0)	6 (60.0)	1 (10.0)	0	10
計 %	78 (23.2)	240 (71.4)	16 (4.8)	2 (0.6)	336

큰 差異는 없지만, 自立할 수 있었던 경우에 「있다」의 答이 若干 더 많다.

(차) 出生地別

	있 다	없 다	其 他	無應答	計
調 查 內 地 %	129 (18.6)	527 (75.8)	33 (4.7)	6 (0.9)	695
道 內 %	71 (25.8)	183 (66.5)	17 (6.2)	4 (1.5)	275
以 南 %	31 (27.2)	70 (61.4)	8 (7.0)	5 (4.4)	114
以 北 %	0	11 (100)	0	0	11
其 他 %	0	0	0	0	0
不 明 %	1 (33.3)	2 (66.7)	0	0	3
計 %	232 (21.1)	793 (72.2)	58 (5.3)	15 (1.4)	1098

「있다」의 答이 調査地 出生者의 경우에 적고, 道內, 道外(以南)의 順으로 많아진다. 다만 以北 出生者의 경우에 「없다」의 答이 100%인 것은 特異하다.

(4) 어떤 경우에 父母의 意見에 反對하였는가? (第34問)

이것은 前問에서 「있다」고 答한 사람에 대해서만 물은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答을 頻數가 많은 것부터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0回以上 나온 答을 추리고, 其他는 一括해버렸다.

	서울	仁川	天安	平昌	青松	金陵	釜山	茂朱	光州	麗川	計
① 生活方式	7	12	5	5	3	6	7	2	15	4	63
② 教育問題	9	8	2	1	2	3	2	2	7	0	36
③ 職業關係	1	3	6	1	1	2	4	3	6	3	30
④ 金錢問題	1	3	2	2	0	0	1	1	3	2	15
⑤ 婚姻問題	1	4	0	1	0	1	2	1	2	2	14
⑥ 訓育에의 拒逆	2	1	0	0	0	1	2	0	5	0	11
⑦ 其他	4	15	10	15	4	1	15	14	4	4	86

過渡期에 處해서 舊世代와 新世代 사이의 見解의 差異가 어떤 問題에 關해서 일어나는가의 一面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第八章 結 語

(一) 調査에 대한 反省

以上으로 大體로 計數의 整理를 마치고 나니, 몇 가지 이번 調査와 그 處理에 關하여 反省되는 點이 있다.

1. 調査에 關하여

이번 調査에 있어서의 特色의 하나는 各地域을 各各 다른 調査者들이 調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調査者에 따라서 質問要領이나 調査要領에 不統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많은 留意를 하였다. 그 結果 調査者의 相異에 基因한다고 생각되는 不合理한 數字가 나온 程度는 比較的 적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나타난 數字가 大體로는 合理的인 解釋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決코 完璧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위에서 各個所에 指摘한 바와 같은 奇異한 數字들은 多分히 調査者의 差異에 基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點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第2章에서 記述한 家族動態와 家族規模에 關한 調査는 面(洞)事務所에 依賴하여 한 것인 만큼 調査要領의 差異는 더욱 甚하고, 그 結果——처음에 調査 依賴한 事項은 훨씬 더 많았지만——이 報告에 整理하여서 실린 事項은 極少數로 되었다는 點에 關하여는 위에 말하였다.

質疑書의 內容이 適切하였느냐, 調査對象地域의 選定이 適切하였느냐 등에 關하여는 檢討되어야 할 點이 많겠지만, 一切 讀者에게 말기고, 여기서는 論하지 않기로 한다.

2. 處理에 關하여

첫째로 本行政大學院에 調査處理를 爲한 機械施設이 없어서 他에 依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點에 큰 隘路가 있었다. 質疑書의 물음中 몇 개에 대한 答의 集計가 이 報告書속에 빠진 것도 그러한 事情에 基因한다.

그리고 各 물음에 있어서의 「其他」라는 答의 內容을 整理하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손이 못자란 關係이고, 다른 편으로는 調査者에 따라서 或은 記述되어 있고 或은 記述되어 있지 않아서 全般的인 整理를 斷念한 것이다.

(二) 數字의 解釋과 우리 나라 家族制度에 관한 앞으로의 展望

위에서는 計數의 整理를 解釋을 보태지 않고 記述하였을 뿐이다. 그 數字가 무엇을 意味하느냐, 이 數字를 가지고 現在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家族制度 意識이 어떻다고 解釋하느냐에 관하여는 여기에서 一括하여 概觀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家族制度는 抽象的 觀念으로서는 아직 強韌하게 維持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實生活와 부딪치는 面에 있어서의 特히 現代의 生活事情과 맞지 않는 點에 있어서 이미 대단히 弱化되었고, 앞으로는 이러한 傾向은 더욱 더할 것이며, 抽象的인 家族制度觀念마저도 急速하게 弱化될 徵兆가 보인다.

(1) 現 況

家族制度가 抽象的 觀念으로서는 強韌하게 維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가. 祖上奉祀, 家系繼承, 序列尊重은 家族制度의 基本要素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적어도 觀念으로서의 이러한 要素를 肯定하는 意見이 壓倒的으로 優勢하다. 즉 祭祀를 차려야 하느냐에 대하여 「그렇다」는 答이 72.2%, 戶主相續者가 있어야 한다는 答이 60.2%이고, 養子까지 할 必要는 없더라도 있는 것이 좋다는 答까지를 합하면 戶主相續制度를 支持하는 意見이 86.9%이다. 또 一家族의 統率者가 있어야 한다는 意見이 83.6%, 親族全體의 統率者도 必要하다는 意見이 75.4%이며, 나이가 同輩 또는 손아래이더라도 行列이 높은 사람에게는 尊待해야 한다는 意見이 68.1%이다. 그리고 家族制度의 象徴이라고 말할 수 있는 族譜를 가지고 있다는 答이 63.9%라는 것은 놀랄 程度로 많은 數字이며, 父母의 意見에 反對하여 일을 한 일이 없다는 答이 72.2%, 配偶者의 選定은 父母(또는 親戚)가 먼저 定하고 本人의 同意를 얻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42.9%로서 最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古來의 家族制度觀念이 強韌하게 維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制度의 基本觀念은 強韌하게 維持되고 있지만, 그 具體的表現은 크게 變貌하고 있다.

첫째로 親族意識의 範圍가 매우 狹少하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祖上中에 또는 解放後에 當신의 親族中에서 벼슬을 하였거나 社會的으로 有名한 사람이 있느냐의 質問에 대하여

同一戶籍內 또는 3寸 乃至 4寸 以內의 親族中에 있다고 答한 사람이 56%이고, 5寸以上의 親族中에 있다고 答한 사람이 44%라는 事實은, 5寸쯤 떨어져도 벌써 日常生活에 있어서 그 다지 가까운 親族으로 意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解釋하여도 좋을 것이다. 또 祭祀에 參祀해야 할 親族의 範圍에 관하여는 4寸까지라는 答이 26.3%로서 가장 많고, 喪服着用的 範圍에 관하여는 6寸~8寸까지라는 答은 不過 22.3%이며, 5寸까지 乃至 그보다 더 좁게 생각하는 意見이 57.3%를 차지한다고 하는 事實도 親族意識의 範圍가 얼마나 좁아지고 있는가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더구나 扶養의 問題에 이르러서는 親族 相互間의 扶養義務라는 觀念은 매우 弱화되고 있다. 즉 一家 親戚中에 生活能力이 없는 者가 있을 때, 戶主가 어느 範圍까지 扶養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直系家族 및 兄弟姊妹만이라는 答이 24.5%로서 最高이고, 이에 直系家族만이라는 答 14.8%를 합하면 39.3%이다. 이 數字에 「同一 戶籍內에 있는 親族만」이라는 答 7.5%를 합하면 46.8%가 되는데, 이 數字는 곧 同一 戶籍의 範圍를 넘어서 그 以外의 親族까지——아무리 寸數가 가깝더라도——扶養할 義務는 없다고 하는 意見인 것이다.

둘째로 祭祀에 관하여 보더라도 祭祀는 차려야 한다는 意見이 支配的인기는 하지만, 반드시 宗孫이 지내야 하느냐, 過去의 慣例 처럼 그렇게 盛大하게 지내야 하느냐, 祭祀는 몇 代 祖까지 지내야 하느냐 等の 問題에 이르러서는 古來의 觀念과는 많은 差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元來 慣習 乃至 慣習法上으로는 祭祀는 原則적으로——즉 五代祖까지는——宗孫이 지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問題에 대하여는 그래야 한다는 意見이 46.7%이고, 오히려 반드시 그럴 必要는 없다는 意見이 50.9%로서 半을 넘는다. 그리고 過去에는 祭祀는 最大限 盛大하게 차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甚至於是 빚을 저가면서라도 盛大하게 차리는 것을 孝로 생각하고 美德으로 생각했던 것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은 完全히 고쳐졌다고 생각되며, 簡單히 차리는 것이 좋다는 意見이 79.9%로서 支配的이고, 盛大하게 차리는 것이 좋다는 意見도, 「生活範圍內에서 可及的이면 盛大하게」라는 것에 不過하다.

그러나 祭祀에 관하여 달라진 것 中에서 가장 重大한 意義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代祖까지 祭祀를 지내느냐의 問題이다. 즉 在來의 慣習上은 5代奉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範圍가 매우 縮少되어 祖父母代까지만 지내면 된다고 하는 意見이 30.5%로서 最高이다. 이것은 生存中에 直接뵈운 分에 限하여 祭祀를 지내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曾祖父母代까지 라는 答으로 24.5%이며, 이 두 意見에, 父母代까지라는 意見 6.9%를 加하면 61.9%가 되는데, 結局 이 數字는 祭祀의 範圍는 曾祖父母代를 넘을 必要가 없다는 意見이라고 할 수 있다. 從來의 5代奉祀의 原則보다 그 範圍가 얼마나 狹少하여졌는가를 알 수 있다. 五代祖까지 奉祀해야 한다는

意見은 겨우 13.7%에 不過하다.

祭祀參祀의 範圍와 喪服着用的 範圍에 관한 意見이 從來의 慣習에 있어서 보다 매우 狹少해지고 있다는 點에 관하여는 위에서 말했다.

셋째로 親族間의 扶養의 觀念에 대하여는 現時의 經濟事情이 深刻한 影響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影響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各個人은 各自가 自身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觀念이 매우 強하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바, 親戚中에 벼슬을 하거나 有名한 사람이 있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5寸以上の 親戚中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答은 매우 적다는 事實도 이러한 事情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一家 親戚中에 出世를 하여 成功한 사람이 있으면 그 周圍에 그 親戚들이 數없이 모여 기대고 依支하려고 하는 일이 많았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종종 이것이 우리 國民의 弊端의 하나라고 指摘되고 있다. 그러나 이 調查 結果에 나타난 것으로는 그러한 思考方式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解釋하여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生活能力이 없는 親族에 대한 扶養의 範圍에 관하여도,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範圍가 매우 좁다. 이것도 結局親族이라고 依賴하여도 안되고 親族이라고 보아 줄 必要도 없고 各自가 自己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思想을 根底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扶養義務觀念의 弱화가 特히 顯著한 것은 戶主의 家族에 대한 扶養義務에 관해서이다. 즉 戶主가 全家族을 扶養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答이 48.6%로서 半이 못 되고, 「아니다」의 答이 48.0%로서 肯定·否定이 거의 同數이다. 한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家族統率者에 관하여는 必要하다는 意見이 83.6%, 戶主相續者가 있어야 한다 또는 있는 것이 좋다는 答이 86.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戶主가 家族을 扶養할 義務에 관하여는 이를 否定하는 意見이 相當히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答들이 생각하고 있는 戶主라는 것은 古來의 戶主觀念과는 相當히 다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家族에 대한 統率權은 가지고 있으나 扶養義務는 없는 戶主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統率의 內容이 무엇이나에 관하여는 本調查에서 質問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다른 質問에 있어서의 答의 傾向을 가지고 推斷한다면 決코 強力한 支配統制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明白하다. 그렇다면 統率權만 있고 扶養義務없는 戶主에 있어서, 그 統率의 內容이 極히 弱한——경우에 따라서는 空虛에 가까운——것이라면, 그 戶主라는 存在는 結局 하나의 象徴——家族制度의 象徴——에 不過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넷째로 配偶者選定 問題에 있어서도 個人主義思想의 浸透가 뚜렷함을 볼 수 있다. 즉 아직 當事者 單獨으로 定한다는 意見은 11.9%에 不過하고, 當事者가 먼저 定하고 父母(또는 親戚)의 同意를 얻는다는 意見이 父母(또는 親戚)가 먼저 定하고 當事者의 同意를 얻

는다는 意見보다도 훨씬 적은 것은 事實이지만, 이 意見들은 모두 當事者의 意見을 묻지 않은 것은 아니다. 當事者의 意見을 물을 必要없이 父母(또는 親戚)가 單獨으로 定한다는 意見도 아직 10.7%나 있기는 하다. 그렇나 옛날에는 이것이 當然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極히 微少한 數字인 것이고 적어도 婚姻에 있어서 當事者의 意見을 쫓혀 묻지 않을 수는 없다는 思想——그러한 意味에서 分明히 個人主義의인 思想——이 얼마나 깊이 浸透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섯째로 分家問題에 있어서도 이른바 大家族制度的 要素는 極히 弱하고 典型的인 小家族制度的 思想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李朝時代에 있어서도 家族規模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는 點에 관하여는 이미 위에서 말하였거니와, 이 調査의 結果로는 家族構成員數는 實際의 世帶에 있어서나 戶籍上으로도 5~6인이 最頻數이다. 이와 같이 戶籍上의 最頻數와 實世帶上의 最頻數가 一致한다는 事實과 事實上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면서 分家申告를 하지 않은 家族이 없다는 答이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世帶가 獨立하면 戶籍上으로도 分家를 하는 例가 壓倒的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規模가 작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三代 以上이 同居하는 例는 대단히 적은 것으로 推斷된다.

勿論 아직도, 事實上 獨立한 生計를 維持하면서 戶籍上 分家하지 않고 있는 例가 相當히 있지만 (이 調査報告書에서는 그러한 家族이 있다는 答이 20.4%로 나와 있다), 그 分家하지 않은 理由를 보면, 在來의 家族制度觀念에 拘碍되어 戶主가 生存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30.3%에 不過하고, 그 나머지는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귀찮다, 미처 생각지 못했다, 몰랐다 등의 理由에서이다.

以上으로써 判斷하건대, 都市와 農村을 通하여, 大體로는 子女가 婚姻을 하면 살림도 따로 나게 하고, 또 戶籍上으로도 分家를 하는 것이 一般의 傾向이며, 이른바 大家族制度的 要素는 都市에 있어서는 勿論, 農村에 있어서도,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운 程度라고 생각된다. 다만 父親 生存中에 分家한 家族은 없다는 答이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分家하지 않은 家族이 長男이나 또는 次男以下이나, 分家當時의 分家戶主의 年齡, 子女가 結婚하고서 獨立世帶를 가지는 경우와 父母와 同居하는 경우의 比率等에 관하여 調査하지 못한 것은 遺憾이며, 또 이번 調査 對象地域中에 同族部落이 없었기 때문에 同族部落에 있어서의 特殊現象等에 관하여도 밝히지 못했다.

(2) 將來의 展望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家族制度觀念은 現在에 있어서도 이미 많이 弱化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아직은 相當히 強固하게 維持되고 있는 抽象的인 家族制度觀念마저도 急速히 弱化하리라는 徵兆가 보인다.

韓國家族制度意識調查報告書

첫째로 年齡別과 學歷別 統計를 보건대, 年齡이 낮을 수록, 그리고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家族制度觀念이 顯著히 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祭祀를 차려야 하느냐에 관하여 이를 肯定하는 答이 60歲代로부터 20歲以下까지 87.1%, 80.1%, 78.0%, 71.7%, 65.3%, 61.1%의 順으로 내려가고, 書堂으로부터 大學出身까지 86.6%, 77.0%, 71.8%, 61.4%, 54.0%의 順으로 내려 간다.

祭祀에 參席해야 할 範圍나 喪服用의 範圍 또 生活能力없는 親族을 扶養해야 할 範圍에 관하여도 年齡이 낮을 수록, 그리고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그 範圍를 좁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戶主相續者の 必要 與否에 관하여도, 있어야 한다는 意見이 70歲代로부터 20歲 以下까지 80.0%, 74.4%, 69.9%, 62.7%, 65.2% (前者보다 若干 많다), 50.8%, 38.9%의 順으로 내려가고, 書堂出身으로부터 大學出身까지 86.6% 70.4%, 52.1%, 42.2%, 36.9%의 順으로 내려간다.

一家內에 또는 一家親戚 全體中에 統率者가 있어야 하느냐에 관하여도, 亦是 年齡이 적을 수록 그리고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肯定的 答이 若干씩 減少한다. 즉 一家內의 경우에는, 70歲代로부터 20歲以下까지 90.0%, 84.6%, 85.3%, 84.6%, 81.6%, 83.1%, 83.3%로 되어 있고, 學歷別로는 書堂出身으로부터 大學出身까지 90.3%, 84.9%, 84.4%, 77.1%, 78.3%의 順이며, 一家 親戚 全體의 경우에는 70歲代로부터 20歲以下까지 80.0%, 79.5%, 80.0%, 76.7%, 77.6%, 73.6%, 62.9%의 順序이고, 書堂出身으로부터 大學出身에 이르기까지 83.3%, 82.5%, 71.2%, 63.9%, 65.9%의 順이다.

同年輩 또는 손아래로서 行列이 높은 사람을 尊待해야 하느냐에 관하여도, 尊待해야 한다는 答이 70歲代로부터 20歲以下에 이르기까지 80.8%, 84.6%, 75.8%, 71.7%, 66.0%, 62.0%, 46.0%의 順으로 大體로 減少하고, 學歷別로도 書堂出身으로부터 大學出身에 이르기까지 86.7%, 74.0%, 64.2%, 65.5%, 43.4%의 順으로 大體로 減少한다.

戶主가 全家族을 扶養해야 하느냐에 관하여도, 이를 肯定하는 答이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顯著하게 減少된다. 즉 書堂出身으로부터 大學出身에 이르기까지 63.3%, 49.2%, 45.1%, 38.0%, 29.0%의 順序이다. 다만 年齡別로는 이 問題에 관하여는 뚜렷한 傾向을 찾기 힘들다.

配偶者選定에 관하여도, 父母 親戚의 意見을 보다더 尊重하는 意見이, 70歲代로부터 20歲 以下에 이르기까지 60.0%, 61.8%, 68.1%, 65.6%, 48.8%, 44.4%, 40.7%의 順이며, 學歷別로는 書堂出身으로부터 大學出身에 이르기까지 76.6%, 61.1%, 46.4%, 36.7%, 29.0%의 順이다.

父母의 意見에 反對하여 일을 한 일이 있느냐에 관하여도, 있다는 答이 70歲代로부터 20

歲以下에 이르기까지 10.0%, 12.8%, 12.9%, 14.9%, 23.3%, 26.7%, 29.6%의 順으로 增加하고, 學歷別로는 書堂出身으로부터 大學出身에 이르기까지 16.7%, 14.2%, 28.2%, 32.6%, 41.3%의 順으로 大體로 增加한다.

이것으로부터 判斷하건대, 教育이 좀더 普及되고, 世代가 바뀌면, 家族制度意識은 지금보다도 다시 弱化되리라고 하는 것이 充分히 豫見된다.

둘째로 宗教別로 본다면 儒敎가 가장 保守的인 反面에, 基督教과 天主教가 가장 進步的이고 舊慣의 傳統을 벗어 나는데 勇敢하며, 祭祀는 지내야 하느냐에 대하여, 儒敎는 88.3%가 그렇다는 것임에 反하여, 基督教과 天主教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答이 各各 35.6%와 42.2%이다.

祭祀에 參席해야 할 親族의 範圍에 관하여도 基督教에 있어서는 儒敎에 있어서보다 그 範圍를 좁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戶主相續者의 必要與否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는 答이 儒敎에 있어서는 66.7%임에 反하여 基督教에 있어서는 48.7%, 天主教에 있어서는 33.3%이다.

同年輩 또는 손아래로서 行列이 높은 사람을 尊待해야 한다는 意見이 儒敎에 있어서는 80.0%임에 反하여 基督教에 있어서는 61.9%, 天主教에 있어서는 51.2%이다.

配偶者의 選定에 관하여, 儒敎에 있어서는 父母意見尊重이 51.7%, 當事者意見尊重이 45.0%임에 反하여, 基督教과 天主教에 있어서는 當事者意見尊重이 父母意見尊重보다 더 많아서 基督教에 있어서는 48.7%(父母) 對 49.5%(當事者), 天主教에 있어서는 37.1%(父母) 對 57.7%(當事者)이다.

父母의 意見에 反對하여 일한 事實의 有無에 관하여도, 儒敎에 있어서는 있다는 答이 16.7%임에 反하여, 基督教에 있어서는 22.6%, 天主教에 있어서는 28.9%이다.

이와 같이 基督教과 天主教는 儒敎보다 顯著하게 進步的인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基督教信者가 急速度로 增加하는 一路에 있으므로, 앞으로 基督教의 普及이 舊來의 家族制度觀念을 弱化시키는 影響도 적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셋째로 地域別로 볼 때에는 都市에 있어서 農村에 있어서 보다 훨씬 進步的이라는 것이 뚜렷하다.

祭祀를 차려야 한다는 意見은 都市에서는 農村에서 보다 顯著하게 低率을 보이고 있다. 祭祀는 반드시 宗孫이 차려야 하느냐에 관하여도 都市에서는 꼭 그럴 必要는 없다는 答이 壓倒的으로 많다. 祭祀를 지내야 할 祖上의 範圍에 관하여도 都市에서는 그 範圍가 매우 좁아서 祖父母代까지 라는 答이 最高率을 차지하고 있다.

祭祀에 參席해야 할 親族의 範圍, 喪服着用的 範圍, 生活能力없는 親族을 扶養해야 할 範圍等에 관해서도 大體로 都市에 있어서는 農村에 있어서보다 좁게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一家內 또는 一家親族全體에 統率者가 있어야 하느냐에 관하여도 都市에서는 不必要하다는 意見이 農村에 있어서 보다 많다.

戶主가 全家族을 扶養해야 하느냐의 問題에 관하여도, 都市에 있어서는 肯定的인 答이 農村에 있어서보다 顯著하게 적다.

配偶者選定에 있어서도 都市에 있어서는 農村에 比하여 當事者意見尊重이 顯著하게 많고 父母意見尊重이 顯著하게 적다.

父母의 意見에 反對하여 일을 한 事實의 有無에 관하여도 都市에 어있서는 農村에 比하여 있다는 答이 顯著히 더 많다.

이와 같이 都市에 있어서는 農村에 있어서 보다 顯著하게 進步的이며 그 만큼 舊來의 家族制度의 傳統에서 벗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農村社會는 都市社會에 接近하기 마련인 것이므로, 時日이 감에 따라 都市의 思想이 더욱 農村에 浸透하여 農村에 있어서의

家族制度意識도 都市의 影響下에 그 弱化過程이 促進될 것으로 豫想된다.

끝으로 職業別로 볼 때에는 學生이 언제나 가장 進步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公務員이다. 學生이 進步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年齡이 적을 수록 그리고 學歷程度가 높을 수록 進步的이라고 한 것과 對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以上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家族制度意識은 現在도 相當히 弱化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1) 世代의 交替, (2) 教育의 普及, (3) 基督教의 普及, (4) 農村社會의 都市化 等の 要因으로 말미암아 더욱 急速度로 弱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끝)—

<筆者 本大學院長>